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에코뮤지엄 계획

Eco-museum Planning of Baedari in Incheon
Based on Local Living and Historical Culture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양 희 은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에코뮤지엄 계획

지도교수 조경진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양 희 은

양 희 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에코뮤지엄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양 희 은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조경학과학위
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2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지도교수)

국 문 초 록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에코뮤지엄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양 희 은

지도교수: 조경진

최근 많은 우려 속에서도 '마을 만들기'는 전면철거 및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 방식에 커다란 화두를 던져주며, 우리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도시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지역의 역사자원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자원의 맹목적 보존보다는 창의적인 의미의 재해석을 통한 활용방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이 갖는 본질적이며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 개발에 있어 '소통'의 의의가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무형적 자원의 가치 및 지역생활 문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지역 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지로는 근대역사와 서민의 삶 속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배다리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바탕으로 배다리 지역 재생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배다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단체들의 여러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에코뮤지엄 개념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유래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역계획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등을 아우르는 유·무형의 지역자원 보존, 자원이 갖는 컨텍스트의 중요성 강조,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조성과정의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배다리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계획체계를 정립하였다.

위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하고자 하는 배다리 지역은 개항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삶터, 서민의 삶터로서의 많은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지역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어 지역의 생생한 생활문화 자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동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산업도로 건설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현재에도 지역 문화 보존 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대상지의 생활·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지의 자원을 발굴·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자원, 생활문화자원, 인적자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자원 분석에 있어 기존의 문헌에 존재하지 않지만 생활사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배다리 지역에는 지역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20~30년대, 50~6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존재하며, 이는 근대 건축물과 함께 지역에서 보존하고 관리해나가야 하는 자원이다. 또한 지역민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기에 현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보존방식은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민의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된 동네텃밭, 공동 작업의 행태,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경관은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 및 생활상이 재현된 것으로 향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하는 자원이다. 셋째, 문화단체의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벽화, 역사건축물의 활용행태, 산업도로의 새로운 생태계, 지역축제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은 에코뮤지엄 조성 시 필수적이다. 넷째, 지역 방문객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기록과 공유의 행태, 지식의 네트워크 등은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시 지역방문객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 자원이다.

위와 같은 대상지 분석과 대상지 자원분석을 통해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였다. 배다리 에코뮤지엄을 통해 역사적 층위가 계속적으로 쌓여가며 진화해 나가는 에코뮤지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생활과 자원의 연계를 통해 자원의 역사적 층위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간다. 둘째,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 생활·역사문화의 가치를 공유한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아래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다리 에코뮤지엄은 지역리더, 지역주민, 문화단체 및 NPO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의 지역과 관계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조직은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로 구성한다. 둘째, 에코뮤지엄의 시설은 코어시설, 일반시설, 관람루트로 나누어 설치하며, 앞선 자원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시적·비가시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에코뮤지엄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단계적 계획은 필수적이며, 점차 진화하는 배다리 에코뮤지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기금마련의 방안, 홍보 및 이벤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배다리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을 지켜내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을 연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해나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는 배다리 지역을 계획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을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 계획, 생활·역사 문화, 지역 자원 분석, 지역 커뮤니티,

인천 배다리

학 번: 2011-22347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착안점	6
1. 에코뮤지엄 관련 기존 연구의 동향	6
2. 연구의 착안점 및 차별성	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8
제1절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이해	8
1. 에코뮤지엄의 개념	8
2. 에코뮤지엄의 구조	10
3. 에코뮤지엄에서의 유산 개념	11
4. 에코뮤지엄의 주요 특징	11
제2절 에코뮤지엄의 사례	13
1. 국외사례	13
2. 국내사례	13
3. 사례분석의 종합	16
제3절 종합- 대상지 적용을 위한 에코뮤지엄 개념 정립	18
1. 에코뮤지엄의 개념 재정립	18
2. 에코뮤지엄 계획의 틀 정립	14
제3장 대상지 분석	47
제1절 배다리 지역의 역사적 맥락	47
1. 개항기 전·후의 제물포 시가지 형성과 배다리의 변화	47
2. 경인철도의 부설과 도시공간의 재편	15

3.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서민 주거지 형성	3 5
4. 근·현대 서민의 삶과 도시 역사의 산실, 배다리	5 5
제2절 계획 여건 분석	6 5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서의 배다리	6 5
2. 배다리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	1 6
3. 대상지 물리적 여건 분석	8 6
4. 대상지 주요 쟁점 사항	2 7
제4장 대상지 지역 자원 분석	73
제1절 역사 자원	37
1. 개항기 서구 문물 유입에 따른 자원 형성	3 7
2. 한국인 거주지 형성에 따른 자원 형성	5 7
3. 상공업 활성화에 따른 자원 형성	6 7
제2절 생활 문화 자원	8 7
1. 지역민의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원	8 7
2. 문화단체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원	3 8
3. 지역 방문객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원	9 8
제3절 인적 자원	19
제4절 지역 자원 요소의 종합 및 재분류	2 9
제5절 에코뮤지엄 조성의 가능성	5 9
제5장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97
제1절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목표 및 역할	7 9
1.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목표 및 전략	7 9
2.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8 9
제2절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의 개요	9 9
1. 배다리 에코뮤지엄 운영 및 추진 조직 구성	9 9
2.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체계	9 9
제3절 배다리 에코뮤지엄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	10 1
1.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 체계	10 1
2. 전시 및 프로그램 디자인	11

제4절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계획	721
1. 단계별 조성 계획	721
2. 에코뮤지엄 조성 기금의 마련	821
3.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	921
4. 홍보 및 이벤트	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3
Abstract	139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구조 및 흐름	5
<표 2-1>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9
<표 2-2> 크뢰조 몽소 레민 박물관의 내용 및 프로그램	6..... 1
<표 2-3> 아베노와 에코뮤지엄의 내용 및 프로그램	0..... 2
<표 2-4> 프렐리 에코뮤지엄의 내용 및 프로그램	3..... 2
<표 2-5> 히라노 에코뮤지엄의 내용 및 프로그램	7..... 2
<표 2-6> 하기 에코뮤지엄의 내용 및 프로그램	0..... 3
<표 2-7> 국내·외 사례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도출	7..... 3
<표 2-8> 에코뮤지엄 실행 시스템	6..... 4
<표 3-1> 인천광역시 4거점 4축 사업내용	7..... 5
<표 4-1> 배다리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	1..... 9
<표 4-2> 지역 자원 요소의 종합 및 재분류	2..... 9
<표 5-1> 코어시설 '배다리 다-움' 개요	5·0· 1
<표 5-2> '배다리 톨-움' 개요	6·0· 1
<표 5-3> '배다리 드리-움' 개요	1·1· 1
<표 5-4> '배다리 배-움'의 개요	4·1· 1
<표 5-5> 배다리 현책방 골목의 개요	6·1· 1
<표 5-6> '배다리 발돋-움' 개요	9·1· 1
<표 5-7> '배다리 지새-움'의 개요	0·2· 1
<표 5-8> 관람루트의 세부 장소	3·2· 1
<표 5-9>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역할 별 분류	5·2· 1
<표 5-10> 단계별 계획	7·2· 1
<표 5-11> 정부·지방 정부 시범 사업 및 공모 사업	9·2· 1
<표 5-12> 지역 예술문화단체 프로그램	0·3· 1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대상지의 범위	4
<그림 2-1>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뮤지엄의 조직 관계도	0..... 1
<그림 2-2> 에코뮤지엄의 유산 개념	1..... 1
<그림 2-3> 베레리 성	5..... 1
<그림 2-4> 운하박물관	5..... 1
<그림 2-5> 기와 공장	5..... 1
<그림 2-6> 학교의 집 박물관	5..... 1
<그림 2-7> 탄광 박물관	5..... 1
<그림 2-8> 식물과 사회생활 박물관	9..... 1
<그림 2-9> 식물과 사회생활 박물관 이벤트	9..... 1
<그림 2-10> 유리공방 박물관	9..... 1
<그림 2-11> 아름다운 나무 박물관	9..... 1
<그림 2-12> 살신 에코뮤지엄	3..... 2
<그림 2-13> 에코뮤지엄 센터	3..... 2
<그림 2-14> 스포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	3..... 2
<그림 2-15> 지역 스토리텔러로서 활동하는 료닌 승려	7..... 2
<그림 2-16> 히라노 에코뮤지엄 지도	7..... 2
<그림 2-17> 구마타 신사의 벼룩시장	7..... 2
<그림 2-18> 과자가게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7..... 2
<그림 2-19> 하기 에코뮤지엄	9..... 2
<그림 2-20> 하기 에코뮤지엄 지도	9..... 2
<그림 2-21> 하기 학(學) 무엇이든지 BOX 프로그램	9..... 2
<그림 2-22> NPO 회원들의 활동발표회 모습	9..... 2
<그림 2-23> 철암 상가건물 벽화 [배석빈, 장성아, 이해인]	1..... 3
<그림 2-24> 철암 상가 뒷모습	1..... 3
<그림 2-25> 청주역사자료관 에코뮤지엄센터 건립기본계획안 조감도	4..... 3
<그림 2-26> 청주지역 테마박물관 지도	4..... 3
<그림 2-27> 에코뮤지엄의 주요 요소 및 목표	8..... 3

<그림 2-28> 에코뮤지엄 활동주체의 구성	2	4
<그림 2-29> 에코뮤지엄 설립 프로세스	3	4
<그림 2-30> 에코뮤지엄의 운영 조직 구조	4	4
<그림 2-31> 지역 연구·분석의 틀	5	4
<그림 3-1> (위) 1980년 / (아래) 1895년 제물포의 모습	8	4
<그림 3-2> 1904년 제물포의 모습	8	4
<그림 3-3> 일본인 조계지의 모습	9	4
<그림 3-4> 1900년도 제물포 평면도	9	4
<그림 3-5> 한국인 거주지의 모습	9	4
<그림 3-6> 1930년대 인천조감도	2	5
<그림 3-7> 1930년대 조선인촌주식회사 전경	3	5
<그림 3-8> 조선인촌주식회사의 여공들	3	5
<그림 3-9> 1940년대 배다리 시장의 모습	5	5
<그림 3-10> 4거점 4축	6	5
<그림 3-11> 내항거점	6	5
<그림 3-1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8	5
<그림 3-13> 산업도로 조성 구간 현황	8	5
<그림 3-14> 배다리 구간 산업도로 공사 현장 현재 현황	9	5
<그림 3-15> 배다리 역사문화지구 지정 사업 범위 (동구청 측 범위)	0	6
<그림 3-16> 배다리를 가꾸는 시민모임의 산업도로 건설 반대 운동	1	6
<그림 3-17> 배다리 문화 축전 에코파크 개장 모습	1	6
<그림 3-18> 배다리 역사문화 마을 지도	2	6
<그림 3-19> 문화축전 당시의 모습	2	6
<그림 3-20> 배다리 지역 골목길 모습	3	6
<그림 3-21>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모습	3	6
<그림 3-22> 지역 문화단체 및 시설의 위치	4	6
<그림 3-23> 아벨서점 전시관 외부 모습	5	6
<그림 3-24> 아벨서점 내부 모습	5	6
<그림 3-25> 스페이스 빔 외부 모습	5	6
<그림 3-26> 스페이스 빔 내부 모습	5	6

<그림 3-27> 나비날다의 외부 모습	6	6
<그림 3-28> 나비날다의 내부 카페 모습	6	6
<그림 3-29> 마을 사진관 다행	7	6
<그림 3-30> 풍경너머 또 다른 세상	7	6
<그림 3-31> 사진공간 배다리	7	6
<그림 3-32> 띠 갤러리	7	6
<그림 3-33> 한점 갤러리	7	6
<그림 3-34> 1928년도 인천부지도와 비교한 가로망	8	6
<그림 3-35> 대상지 골목길 모습	9	6
<그림 3-36> 대상지 토지이용 현황	0	7
<그림 3-37> 금곡로에 위치한 문구도매상	0	7
<그림 3-38> 노후한 도시형 한옥	0	7
<그림 3-39> 셋골로 걷고싶은 거리	1	7
<그림 3-40> 도원역에서 바라본 셋골로 걷고 싶은 거리	1	7
<그림 3-41> 대상지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 현황	1	7
<그림 4-1> 역사 자원의 위치	3	7
<그림 4-2> 여선교사 기숙사	4	7
<그림 4-3> 영화초등학교 본관	4	7
<그림 4-4>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4	7
<그림 4-5> 우각로	4	7
<그림 4-6> 도시형 한옥	5	7
<그림 4-7> 외벽 문양 및 타일 외벽 건물	5	7
<그림 4-8> 우물을 보유한 옛 가옥	5	7
<그림 4-9> 여인숙 골목	7	7
<그림 4-10> 옛 대인상회 건물	7	7
<그림 4-11> 옛 창고 건물	7	7
<그림 4-12> 헌책방 거리	7	7
<그림 4-13> 옛 양조장 건물	7	7
<그림 4-14> 옛 조선인촌주식회사가 있던 자리의 현재 모습	7	7
<그림 4-15> 소성주를 맛볼 수 있는 개코막걸리	7	7

<그림 4-16> 동네 텃밭 조성 현황	9	7
<그림 4-17> 대상지 상자 텃밭 및 텃밭 모습	9	7
<그림 4-18> 대상지 텃터 모습	0	8
<그림 4-19> 주민들의 공동 작업 모습	0	8
<그림 4-20> 대상지 동네텃터 조성현황 및 쓰이지 않는 공간 현황	1	8
<그림 4-21> 저층 주거지 조망 경관	2	8
<그림 4-22> 골목길 경관	2	8
<그림 4-23> 저층주거지 경관 조망 가능 지점 및 폭 2m 이하 골목길 현황	3	8
<그림 4-24> 마을 벽화 조성 현황	4	8
<그림 4-25> 마을 벽화 모습	4	8
<그림 4-26> 공가 및 공실 건물의 현황	6	8
<그림 4-27> 낙화민화(옛 창고) 공방의 모습	6	8
<그림 4-28> 아벨서점 전시관의 지붕 및 벽돌 내벽 모습	6	8
<그림 4-29> 2010년 가림막 철거 공사	7	8
<그림 4-30> 2012년 8월 산업도로 공사 부지	7	8
<그림 4-31> 2012년 9월 산업도로 공사 부지	7	8
<그림 4-32> 2012 도시캠핑 모습	8	8
<그림 4-33> 2012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모습	8	8
<그림 4-34> 2011년 배다리 문화축전 당시 모습	8	8
<그림 4-35> 배다리 지역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온 작가의 모습	9	8
<그림 4-36> 배다리 지역으로 출사 나온 동호회 회원들의 모습	9	8
<그림 4-37> 스페이스빔 건물에서 열린 ICON Party	0	9
<그림 4-38> 스페이스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도시학교 강좌	0	9
<그림 4-39> 물리적 자원의 종합 및 위치	4	9
<그림 5-1>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비전 및 목표	7	9
<그림 5-2>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전략	8	9
<그림 5-3>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8	9
<그림 5-4>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운영 및 추진 조직	9	9
<그림 5-5>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계획 체계	0	0 1
<그림 5-6> 배다리 에코뮤지엄 시설의 체계	1	0 1

<그림 5-7> 실행 요소의 역할 및 네트워크	4·0·1
<그림 5-8> 배다리 다-움의 기능, 프로그램, 참여주체	5·0·1
<그림 5-9> '배다리 퇴-움'의 위치	6·0·1
<그림 5-10> 공가의 개조 전·후 단면도	7·0·1
<그림 5-11> 공가의 개조 전·후 조감도	7·0·1
<그림 5-12> '퇴-움'의 공간 구분	8·0·1
<그림 5-13> '通(통)하는 골목' 프로그램의 동선 개념	9·0·1
<그림 5-14> '通(통)하는 골목'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9·0·1
<그림 5-15> '텃밭 나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0·1·1
<그림 5-16> '배다리 공동작업소'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1·1·1
<그림 5-17> '배다리 드리-움'의 위치	2·1·1
<그림 5-18> '배다리 드리-움'의 전경	2·1·1
<그림 5-19> '드리움'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3·1·1
<그림 5-20> '배다리 배-움'의 위치	4·1·1
<그림 5-21> '배다리학'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5·1·1
<그림 5-22> '배다리 주민학교'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6·1·1
<그림 5-23> 헌책방 골목의 위치	7·1·1
<그림 5-24> 헌책방 골목과 및 연계 시설, 오픈스페이스 위치	7·1·1
<그림 5-25> '책 읽는 배다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8·1·1
<그림 5-26> '배다리 발돋-움'의 위치	9·1·1
<그림 5-27> '배다리 발돋-움'의 조망 공간 모습	0·2·1
<그림 5-28> '배다리 지새-움'의 개요	1·2·1
<그림 5-29> '막걸리 DIY'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2·2·1
<그림 5-30> 관람루트의 동선	2·2·1
<그림 5-31> '뚜벅뚜벅, 배다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4·2·1
<그림 5-32>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도	6·2·1
<그림 5-33> 에코뮤지엄 조성 기금 마련 방안	8·2·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1년 말부터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이 서울시 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으며 도시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지방정부들도 경쟁적으로 '마을 만들기' 정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마을 만들기'운동은 풀뿌리 시민단체 및 주민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진행되어져 왔고, 성공적인 결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정부주도 하에 이뤄지는 정책적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해 각계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주민의 창의성과 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정부의 정치적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 도시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마을 만들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원론적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사업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과 소비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축제, 이벤트 개최, 관광산업 육성, 건물·시설물 정비 위주의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등의 계획을 세우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지역의 맥락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는 지역을 상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 만들기' 정책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마을 만들기'는 마을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와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가치와 매력, 특성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두고 지역개발에 나서야 할 것인지를 지역주민들과 소통·공유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마을 만들기'는 전면철거 및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 방식에 커다란 화두를 던져주며 우리 도시개발 방향에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마을 만들기'의 개념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도시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지역 역사자원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역사자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오래된 유물뿐 만이 아니라 개항시대 및 근대산업유산까지도 지역의 자원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는 전면철거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것들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와 더불어 도시 자원의 맹목적 보존보다는 창의적인 의미의 재해석을 통한 활용방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고 그 속에서 시대정신을 읽어야 하며, 그 가치를 토대로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해당 지역이 갖는 본질적이며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 개발에 있어 '소통'의 의의가 재조명 받고 있다.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대립구도를 탈피하고자 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 자체가 개발과정의 큰 축을 담당한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무형적 자원의 가치 및 지역생활 문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지역 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 지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 삶의 가치와 행태를 담을 수 있는 계획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지역계획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또한 그 개념에서 인간과 환경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생활환경적인 문화양식 더 나아가 인간, 삶, 환경 모두를 박물관의 소재로 발굴하여 콘텐츠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인천의 배다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배다리 지역은 최초의 철도, 최초의 기독교 예배당, 최초의 사립학교 등이 세워진 근대역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장소이다. 또한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외국인 조계지역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장소이다. 그러나 현재는 인천지역의 확장으로 인해 낙후지, 슬럼, 구도심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배다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의 건설 계획과 전면철거 방식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많은 이들이 배다리의 미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다리 지역은 아직까지 근대도

시의 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체 문화를 통해 지역을 지켜내고자 하는 시민 단체의 움직임과 문화예술단체의 노력이 있어 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다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배다리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지역 생활문화를 분석하고 계획에 반영하여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의의를 담고 있다.

첫째, 에코뮤지엄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에코뮤지엄의 이론 및 개념을 고찰하며, 더 나아가 지역계획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 내 지역생활문화를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물리적 지역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지역의 정신 및 역사적 맥락 등과 같은 비물리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물리적 요소들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한 요소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배다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여러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배다리 지역의 보존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론적 토대와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제시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지역 생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계획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및 송림 2동 일대인 배다리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배다리 지역은 개항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해방이후에도 서민의 삶터로서 역할을 하며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지역이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하여 지역민들의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다리 지역을 대상으로 에코뮤지엄 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대상지의 범위

자료: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본 연구방법은 <표 1-1>과 같이 크게 이론적 고찰, 대상지 분석, 지역 자원 분석,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 배다리에 적용 가능한 에코뮤지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지 분석에서는 배다리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여 지역의 가치를

모색하며,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대상지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상지 답사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인터뷰를 통하여 대상지 지역자원을 면밀하게 연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생활·역사문화자원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에코뮤지엄 조성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과정에서는 앞의 연구에서 도출한 에코뮤지엄의 방향과 대상지의 생활·역사 문화자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계획을 제안할 것이다.

<표 1-1> 연구의 구조 및 흐름

연구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 방법
1 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정 ▶도시재생과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 ▶도시 내 지역생활문화를 재조명하여 그 가치를 발굴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획을 도출 선행연구 검토 ▶에코뮤지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착안점 및 차별성 도출	
2 이론적 고찰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이해 및 국내·외 사례분석 ▶에코뮤지엄의 이론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대상지 적용을 위한 에코뮤지엄 개념 정립 ▶에코뮤지엄의 개념 재정립 ▶에코뮤지엄 계획의 틀 정립	•문헌 •웹사이트 •전문가 인터뷰
3 대상지 분석	배다리 지역의 역사적 맥락 분석 ▶역사적 맥락 분석을 통한 지역의 가치 모색 계획 여건 분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서의 배다리 ▶지역 문화단체의 문화 활동 ▶배다리 지역의 지역사회 활동 ▶대상지 물리적 여건 분석 계획 여건 분석배다리 지역의 주요 현황 및 쟁점 분석 ▶관련 지역계획 및 지역사회의 활동 분석 ▶주요 쟁점 사항 도출	
4 지역 자원 분석	대상지 지역 자원 분석 ▶역사 자원 분석 ▶자원요소의 종합 및 재분류 ▶생활문화 자원 분석 ▶에코뮤지엄 조성의 가능성 도출 ▶인적 자원 분석	•문헌 •웹사이트 •전문가 인터뷰 •답사
5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목표 및 역할 구상 ▶목표 및 전략 제시 ▶역할 및 구성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체계 ▶운영조직 구성 ▶계획 요소 도출 배다리 에코뮤지엄 실행 계획 ▶전시 및 프로그램 체계 ▶전시 및 프로그램 디자인 배다리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관리 계획 ▶단계별 조성계획 ▶조성 기금의 마련 ▶지역 문화단체와의 연계 ▶홍보 및 이벤트	•지역주민 인터뷰
6 결론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착안점

1. 에코뮤지엄 관련 기존 연구의 동향

국내에서는 2001년 국립민속박물관의 '21세기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해외 에코뮤지엄이 소개되면서 에코뮤지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신현요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유럽의 사례를 분석하여 에코뮤지엄의 개념 및 변화요인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지역 가꾸기를 위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¹⁾

정수환은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로'에서 에코뮤지엄을 새로운 개념의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태백시 철암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 하는 계획을 도출하였다.²⁾

최경희는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에서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형 에코뮤지엄의 개념정립을 시도 하였으며, 실제 대상지인 북촌에 이를 적용시킨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관광지 차원을 넘어서 북촌 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유산의 활용과 보존 등에 가치를 더하여 북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다.³⁾

권수미는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에코뮤지엄(Eco-museum) 적용에 관한 연구: 부산사진박물관 설립 제안의 철학적 정당성을 중심으로'에서 부산사진박물관 설립의 정당성을 이론 및 철학적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서구에서 성공한 문화정책모델들을 무비판적으로 단순 이식하는 것을 비판하며, 지역문화정체성과 문화산업에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치적 모색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⁴⁾

1)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5.

2) 정수환,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5.

3) 최경희,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9.

4) 권수미,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학

이밖에도 유럽 및 일본의 에코뮤지엄 사례를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이 다수 존재하며, 에코뮤지엄 개념 도입을 통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관광지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논문이 존재한다.

2. 연구의 착안점 및 차별성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에코뮤지엄과 지역활성화 및 지역계획을 연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박물관학적 논지에서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정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내용으로 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며, 실제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코뮤지엄 계획을 도출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에코뮤지엄 개념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한 연구는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와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계획: 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해당 대상지만의 고유한 프로그램과 계획이 부족하다. 또한 그 계획이 주로 관광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에코뮤지엄의 의의를 충족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특히, 연구 대상지인 배다리에 적용 가능한 지역계획적 측면의 에코뮤지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제1절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이해

1. 에코뮤지엄의 개념

에코뮤지엄은 프랑스어 '에코뮬레(Écomusée)'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1960년대 프랑스에서 지역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자연공원을 설립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사회적 변화로 인해 훼손되는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통적 박물관의 개념 및 형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으며, 전통적 박물관과의 논쟁 속에서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존의 박물관들이 전문가 중심의 전문적 유물 보존에 주목했던 반면, 에코뮤지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유물과 생활의 다양한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에코뮤지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¹⁾는 에코뮬레를 "지역사회 사람들의 생활과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 환경의 발달과정을 탐구하고,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서 보존, 육성하고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해당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라고 기술하였다.²⁾ 즉, 지역의 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코뮤지엄은 에콜로지(Ecology: 생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그리스어 Oikos: 주거)을 갖기 때문에 그 뉘앙스에서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에코뮤지엄은 Eco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친환경의 뜻이 아닌 일정한 지리적 범주 내의 특정한 지역을 규정하는 자연, 역사, 문화 등 총체적인 환경을 기초로 하는 박물관이라는 의미이다.³⁾ 또한 에코뮤지엄은 사람이 사는 환경계와 그 환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관계를

1)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는 국제뮤지엄협회(ICOM)의 설립자이며,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2) Ohara Kazuoki, *Eco Museum Eno Tabi*, 김현정(역),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서울: 아르케, 2008), pp. 19-20.

3) 성혜영,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4), p. 63.

프로그램화한 박물관이다.⁴⁾ 이러한 의미에서 에코뮤지엄은 사람 또는 지역민의 커뮤니티가 이루고 있는 환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에코뮤지엄이 의미하는 생태 혹은 환경은 자연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에코뮤지엄은 지역 내의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유산을 박물관의 보존과 전시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인 것이다.

1992년 패트릭 보이런(Patrick Boylan)⁵⁾은 위와 같은 에코뮤지엄들의 특징과 환경적 요소를 바탕으로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차이점을 <표 2-1>과 같이 비교·정의하였다.

<표 2-1>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전통적 박물관	에코뮤지엄
전시영역	건물	장소
해석관점	수집한 유물	전체영역내의 모든 유산
학문영역	박물관학	복합적인 학문영역
방문객	관광객	공동사회
시스템	박물관과 전문가	에코뮤지엄과 지역사회
전시방법	단순전시	적극적인 체험

최근에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문화별 여건에 맞는 용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1987년 아라이 주조(新井重三)에 의해 '생활·환경 박물관'이라는 번역어가 만들어졌으며⁶⁾, 라이브 뮤지엄(Live Museum)으로도 불리고 있다. 또한 영문으로는 오픈 에어 뮤지엄(Open Air Museum) 혹은 필드 뮤지엄(Field Museum) 등으로 불리며, 프랑스에서는 커뮤니티 뮤지엄(Community Museum)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이 개념을 '지역 통째로 박물관' 등의 용어로 명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박물관학에만 국한된 개념으로 알려지거나 실제 에코뮤지엄이 추구하는 지역 활성화와 같은 개념으로 관련지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명칭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⁷⁾

4) Kazuoki Ohara, 앞의 책, p. 24.

"ecology(생태)라는 말과 같은 어원(그리스어 OIKOS: 주거)을 갖는 에코뮤지엄은 사람이 사는 환경계(milieu)와 사람이 그 환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관계를 스스로 프로그램화한 박물관이다. 하지만 에코뮤지엄을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에콜로지 박물관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에코뮤지엄은 무엇보다도 사람 혹은 하나의 사회집단이 특권적인 여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성의 직접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이 '환경계'라는 개념은 자연환경과 동시에 사회환경을 환기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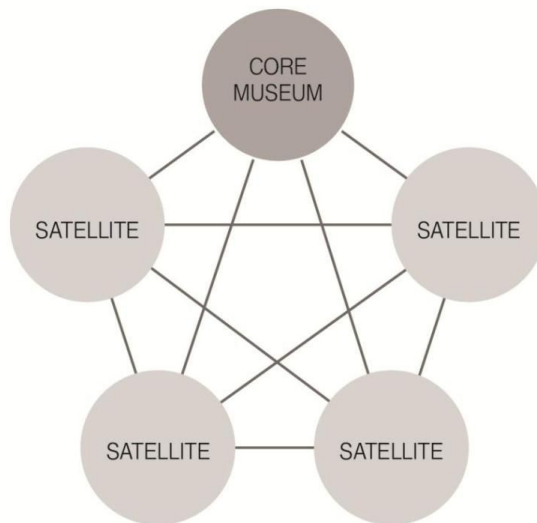
5) 패트릭 보이런(Patrick Boylan)은 유산경영 정책전문가이다.

6) Kazuoki Ohara, 앞의 책, p. 19.

2. 에코뮤지엄의 구조

일반적으로 에코뮤지엄은 '코어 박물관(Core Museum)'이 핵심 시설이며, '새틀라이트(Satellite)'로 불리는 주변 시설이 지역 내에 점재하고 있는 구조를 보인다. 새틀라이트는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갖가지 산업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에 대한 분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코어박물관과 새틀라이트는 상하관계가 아닌, <그림 2-1>과 같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에코뮤지엄은 어떠한 한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되는 추세이다. 또한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가 "에코뮤지엄은 보호되거나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이론과 틀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구조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⁸⁾



<그림 2-1> 크리조 몽소 레민 에코뮤제의 조직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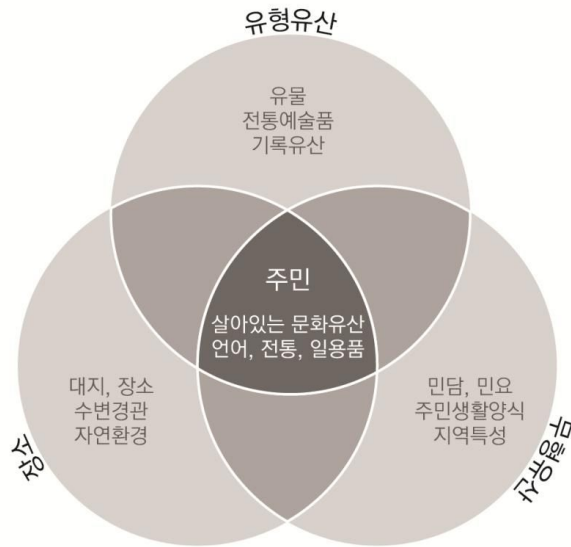
3. 에코뮤지엄에서의 유산 개념

에코뮤지엄은 유물의 가치만을 평가하던 기존 박물관의 개념을 넘어 장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유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유산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존의 박물관이 결과

7) 에코뮤지엄은 여러 가지로 폐쇄적인 선입견을 주는 기존의 '박물관(Museum)'이라는 이름 대신에 '문화유산 센터(Heritage Centre)'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다. (성혜영, 앞에 든 책, p. 67.)

8) Kazuoki Ohara, 앞에 든 책, pp. 35-7.

물만을 보여주는 개념이었다면 에코뮤지엄은 그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코뮤지엄의 유산 개념에서는 사람들의 삶과 관계된 언어, 전통, 생활용품 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에코뮤지엄의 유산 개념에 포함한다.⁹⁾



<그림 2-2> 에코뮤지엄의 유산 개념

4. 에코뮤지엄의 주요 특징

(1) 컨텍스트의 중시

지역의 유산 및 유물을 안전하게 '가두어' 보존하는 것보다 그 것이 갖는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컨텍스트는 지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컨텍스트 자체 역시 보존, 전승, 전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에코뮤지엄은 유물 중심적 보존 방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회구조적 모순 양상까지도 보존 대상으로 삼는 특징을 보인다.¹⁰⁾

9)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5 p. 11.

10) 권수미,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학회』, 14(2), 2011, p. 47.

(2)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

지역주민이 지역 유산을 보존하는 주체이자 박물관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다. 즉, 지역 유산이 탄생하게 된 컨텍스트이자 주체인 사람, 다시 말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운영됨으로써 운영주체가 전문가 중심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¹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등의 의식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 네트워크 형성에 의해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3) 조성과정의 중시

기존의 박물관이 결과물만을 보여주는 개념이라면, 에코뮤지엄은 조성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만들어 놓는 것'이라기보다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에코뮤지엄을 '미완성의 박물관'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에코뮤지엄이 사회적인 변화와 각 지역의 요구에 따라 점차 진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코뮤지엄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열린 기관으로서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11) 같은 책, p. 48.

제2절 에코뮤지엄의 사례

1. 국외사례

(1) 프랑스 에코뮤지엄

프랑스는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이론의 발상지이다. 농촌 지역의 지역 활성화 및 경제 재건을 위해 1960년대 후반에 생겨난 '자연 공원'을 에코뮤지엄 개념의 시초로 볼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에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접목한 국가이다. 또한 에코뮤지엄에 대한 비전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공유¹³⁾하고 발전시켰으며, 이를 다룬 보고서 '문화유산 개혁정책을 위하여(Pour nouvelle politique du patrimoine)'에서 지역 주민들은 적절한 조직체를 통해서 에코뮤지엄 활동의 주도권을 맡으며, 근무자들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물건들의 박물관화' 보다는 '전통기술의 보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야 하며 그 진정한 책임은 집단기억, 즉 부모 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전달되는 한 공동체의 기억이고, 국민 정체성의 원천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⁴⁾ 1988년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의회(FEMS)가 창립되었으며, 지역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에코뮤지엄을 설립하고 있다.

1) 르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뮤지엄 (Écomusée de Le Cresot Montceau-Les-Mines)

① 설립 배경

크뢰조(Le Cresot)지역은 20세기까지 프랑스의 철강 산업 중심지였으며, 몽소레민(Montceau-Les-Mines)지역은 주변 산업시설에 석탄을 공급하는 탄광마을이었다. 그러나

12)한주연, 해외 에코뮤지엄 사례 연구-경주 양동마을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22.

13)1981년 미테랑(François Maurice Marie Mitterrand)정부와 사회주의자들이 문화 보존에 관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14)Max Yvon Jean Querrien, *Pour une nouvelle politique du patrimoine: Rapport au ministre de la cultu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82), 이재영, 이종오, "프랑스 에코뮤지엄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EU연구』, 28, 2011, p. 238에서 재인용.

70년대 이후 산업 및 경제 구조의 변화로 지역이 쇠퇴하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안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기존의 자연공원형 에코뮤지엄과는 차별화되는 계획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브라르(Marcel Evrard)와 리비레르(Rivière)가 두 지역의 16개 코뮌(commune)¹⁵⁾ 공동체를 기반으로 에코뮤지엄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공동체 내에 있는 코뮌 위원들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 준비활동을 해나갔으며, 1972년 '사람과 산업박물관' 설립을 시작으로 1974년 공식적인 에코뮤지엄으로 탄생하였다.

② 운영

설립 초기에는 에코뮤지엄의 본부 역할을 하는 코어시설과 분관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성시설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3개의 위원회인 학술위원회, 이용자 위원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에코뮤지엄 전체의 운영방침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설립 10년 후 경제적 위기와 세대교체에 따른 추진력 약화로 인해 정체기를 겪자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재는 5개의 시설이 모두 대등한 관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탑다운(Top-down)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 탈피하여 각 시설의 실정에 맞는 논의를 통하여 자주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협약방식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지역코뮌', '각 시설의 위원회', '에코뮤지엄의 운영조직' 세 그룹의 협의에 의해 운영방식을 결정짓는 구조로 구성되어있으며, 매년 1~2회의 정례총회와 임시총회가 열린다. 각 그룹의 역할을 살펴보면 '지역코뮌'은 각 시설의 자산 보유, '위원회'는 각 시설의 운영, '에코뮤지엄 운영조직'은 기본방침과 제휴방침 수립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시설의 독자성과 정체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¹⁶⁾

③ 활동 내용

르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뮤지엄은 각 지역의 코뮌이 시설을 구입하고 수리·개조하는 과정을 거쳐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각 시설은 지역 자원 연구, 지역 역사 및 생활과 관련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설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

15) 12세기 북프랑스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립된 프랑스의 주민자치제이다. 프랑스에는 36,570개의 코뮌이 있다.

16) Kazuoki Ohara , 앞에 든 책, p. 111.

라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는 스토리텔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기와 공장'의 경우 실업자들을 건물이나 기계의 복원작업에 참여하게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다.

④ 시사점

'전문가-지역주민의 참여'라는 최초의 역할모델을 만들었다.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한 이 에코뮤지엄은 지역공동체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박물관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¹⁷⁾ 이때 형성된 지역공동체는 16개의 코뮌이 연합한 것으로, 행정적 영역에 따른 것이 아닌 에코뮤지엄의 설립으로 출현한 영역이다. 즉, 인위적인 행정단위가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적 영역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에코뮤지엄 조직 구조인 '분산형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전 세계 에코뮤지엄의 영향을 주는 선도적인 에코뮤지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코뮌', '각 시설의 위원회', '에코뮤지엄의 운영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위원회 방식 또한 많은 에코뮤지엄의 규범이 되고 있다.¹⁸⁾

17) 이재영, 이종오, "프랑스 에코뮤지엄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EU연구』, 28, 2011, p. 233.

18) Kazuoki Ohara, 앞의 책, p. 111.



<그림 2-3> 베레리 성



<그림 2-4> 운하박물관



<그림 2-5> 기와 공장



<그림 2-6> 학교의 집 박물관



<그림 2-7> 탄광 박물관

자료: Écomusée Creusot-Montceau <http://www.ecomusee-creusot-montceau.com>

〈표 2-2〉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뮤지엄의 내용 및 프로그램

명칭	내용	프로그램
베레리 성 (Château de la Verrer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기 후반 유리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을 슈네이더 (Schneider) 형제의 저택으로 활용하다 1970년 코윈이 구입하여 수리 및 개조를 거쳐 에코뮤지엄으로 활용 전시실, 코윈 회의실, 주민 집회소, 에코뮤지엄 사무실 등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기 크리스탈 산업 관련 전시 및 당시 사회, 문화, 역사, 도시 전반과 관련한 전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을 재미있게 탐험할 수 있도록 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istal works, The Schneider, a master of forges dynasty, Le Creusot: a city / factory, An illustration of work, Model factory and locomotives, Young visitors' trail
운하 박물관 (Musée du Ca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 중앙 운하 협회(Canal du Centre Association)를 설립 운하·수문 관리인의 거주 건물과 바지선을 지역 코윈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개조 초기에는 바지선의 운영자이자 수문장이었던 발레리 (Ballery)가 가이드의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두 명의 관리자와 두명의 가이드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문의 역사와 뱃사공의 생활상에 대한 전시 바지선을 타고 운하를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k House, The old lock gate, The barge, As you exit the Museum
기와 공장 (CIRY-LE-NO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3년에 세워진 공장(1967년 폐쇄)을 1995년 코윈이 구입 12명의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건물이나 기계의 복원작업 진행, 이를 통해 직업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산업지역을 돌아보며 세라믹 공장 프로세스를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교의 집 박물관 (MONTCE AU éc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0년 설립된 지역문화유산 남자 공립학교 건물을 개조 1994년 설립된 학교의 집 협회가 운영하며, 회원 70여명과 5명의 전시해설자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C 후반과 20C 초반의 교실을 재현 지역의 연장자가 아이들에게 생활문화의 역사를 이야기로 전해주는 프로그램 일반 학교 교사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시와 이벤트를 기획
탄광 박물관 (Musée de la m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2년 폐광된 생끌로드(Saint-Claude)탄광에 전시시설을 마련 1974년 설립된 광산인 협회(La Mine et les Hommes Association)가 운영을 맡은 뒤, 블랑지(Blanzys), 에코뮤지엄, 탄광회사의 후원으로 시설과 프로그램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 기술, 광산 시설의 램프, 모형과 지질학, 광부들의 작업 환경과 생활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하 200m로 내려가 광산의 현장과 기술을 체험

자료: Écomusée Creusot-Montceau <http://www.ecomusee-creusot-montceau.com>, Ohara Kazuoki(2008), 한추연(2012)의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2) 아베노와 에코뮤지엄(Écomusée de l'avesnois), (구)푸르미 트렐롱

① 설립 배경

이 지역은 1850년부터 양모직물, 유리산업이 발달하였으며, 19C에 번성했던 곳이다. 크뢰조, 몽소 레민 지역과 마찬가지로 70년대 이후 산업 및 경제 구조의 변화로 지역이 쇠퇴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유산들이 빠르게 파괴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마크 구자르(Marc Goujard)가 에코뮤지엄 설립을 제안하였다. 산업시대의 기계와 기술, 그 유적을 보호·정비하고, 관련 문서와 당시의 이야기들을 수집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적 산업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유산을 정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에코뮤지엄이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쇠퇴한 산업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1978년에 지역 문화센터와 지역 전체의 초등학교에서 교육프로젝트 계약을 맺어 프로그램 이름을 '푸르미 지방 100년의 사회 경제생활'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각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 즉, 조부모와 부모세대의 생애사를 조사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옛날이야기, 사진, 자료, 물품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물들을 각 학교에 전시하여 공개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또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추억을 수집해나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아이들이 모은 자료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역사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 노래, 방언 등을 녹음함으로써 마을 자원을 축적해 나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980년 현재의 에코뮤지엄 본부시설인 방적공장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를 통해 모아진 기록, 물품 그리고 기부금과 인적 네트워크(자원봉사자 및 주민)는 현재 아베노와 에코뮤지엄의 시초와 기반이 되었다.¹⁹⁾

② 운영

1980년 6월에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로 에코뮤지엄 전문가인 리비에르(Rivière)와의 교류를 통해 정식 에코뮤지엄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설립 후 5년 동안은 20개의 코뮌과 에코뮤지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며 사이트를 확보해 나갔다. 또한 1982년 학술조직 설립하여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으며, 대학 및 연

19) 같은 책, p. 119.

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연구 출판물 등을 내놓는 성과를 보여 왔다.

현재 전체 에코뮤지엄은 하나의 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에코뮤지엄 협회는 각각의 시설에 직원을 배치하고, 전체 지역에 퍼져있는 1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²⁰⁾ 각 시설은 에코뮤지엄 이론에서 명명하는 '새틀라이트(Satellite)'나 '사이트(Site)' 등으로 불리지 않고 '기억의 장소'로 불린다. 모든 '기억의 장소' 즉, 에코뮤지엄 시설은 '코어(Core)'와 '새틀라이트(Satellite)'와 같은 위계가 없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에코뮤지엄의 본부가 있는 '식물과 사회생활 박물관'은 규모가 가장 크며 중심시설로 역할을 한다.

③ 활동내용

1980년부터 시설을 확보해나가 현재 2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중 <표 2-3>과 같이 4개의 시설이 중요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중심시설인 '식물과 사회생활 박물관'은 지역 연구, 출판, 보관, 관리 등의 활동을 통해 에코뮤지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인턴십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각 시설들 또한 전문가들이 지역 전통 산업을 소재로 한 체계적인 워크숍을 진행하여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교육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베노와 에코뮤지엄은 특색 있는 행사와 이벤트를 다양하게 열고 있다. '식물과 사회생활 박물관'의 경우 방문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 스카프를 만드는 이벤트(L'écharpe et nous!)를 열고 있다. 이 밖에도 전체 에코뮤지엄 차원에서 지자체와 '주식회사 그린(Ter Green)'이 협력하여 '플랭 쉬드 데스티나씨옹(Plein Sud Destination)'이라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에코뮤지엄 전체 사이트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²¹⁾

④ 시사점

작은 주민의 모임에서 출발하여 에코뮤지엄을 설립하는데 까지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설립 초기에는 산업지역이 중심이 되었지만, 지역의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에코뮤지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20) 같은 책, p. 121.

21) "Écomusée de l'avesnois," <http://www.ecomusee-avesnois.fr/> (검색일: 2012년 9월 16일).

또한 지역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와 인턴십,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에코뮤지엄의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에코뮤지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받아 에코뮤지엄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1990년 유럽 뮤지엄(EMYA, European Museum of the Year Award)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림 2-8> 직물과 사회생활 박물관

<그림 2-9> 직물과 사회생활 박물관 이벤트



<그림 2-10> 유리공방 박물관

<그림 2-11> 아름다운 나무 박물관

자료: Écomusée de l'avesnois blog <http://ecomusee.canalblog.com/>

〈표 2-3〉 아베노와 에코뮤지엄 내용 및 프로그램

명칭	내용	프로그램
직물과 사회생활 박물관 (Musée du textile et de la vie sociale à Fourm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63부터 1978년까지 운영하던 전 방직공장을 개조한 곳 에코뮤지엄의 본부가 자리한 중심시설로 지역의 상징적인 존재 건물은 지역 코뮌이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시설에서 연구, 출판, 데이터베이스 보관, 관리, 판매, 시설대여 등의 역할 담당 지역주민에게 인턴십 및 일자리 제공 뜨개질 관련 워크샵 운영 및 세계에서 가장 긴 스카프를 짜는 등의 이벤트 (L'écharpe et nous!) 개최 주민들이 기증한 물품을 통해 당시 공장 노동자들의 삶 및 푸르미(Fourmies)지역의 생활상 재현
유리공방 박물관 (Atelier -Musée du à Trél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24년 지어졌으며 삼페인병, 향수병 등을 만들던 유리공장 1977년 공장이 폐쇄된 후, 1983년 코뮌이 매입하여 에코뮤지엄으로 재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도 및 작품 종류 별로 구분된 워크샵 과정을 통해 가족,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유리 공예를 배울 수 있는 워크샵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의 해설 및 가이드, 장인의 유리공예품 제작 시연 유리 공예품 판매
보카쥬의 집 (Maison du Bocage à Sains-du -N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70년 숲 속에 지어진 집으로 목초 농경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 1983년 지역 농업활동그룹이 발족하였고, 1985년 이 그룹이 에코뮤지엄 협회에 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자재, 장래성 있는 기술 등의 전시 매년 전통 사과축제를 개최 지역 비디오예술가가 참여한 영상을 박물관 옥외에 야간시간을 활용해 전시 목초 농경지의 경관을 감상하며 작은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는 루트 개발 및 정비 현재 개발하고 있는 농업생산품의 가공판매소 운영
아름다운 나무 박물관 (Musée des bois jolis à Felle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66년 제작된 물레방아와 제분공장을 복원하여 시설로 이용 1995년 아베노와 에코뮤지엄의 협력박물관으로 지정 15명의 자원봉사자 그룹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66년 제작된 물레방아의 작동 모습과 밀가루 생산과정을 재현 펠레리(Felleries)지역의 목공장인이 목공작업을 재연 목공작업 전시 및 정보제공 자원봉사자의 가이드를 통해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총 6km의 코스 운영 목공 작품 판매

자료: Écomusée de l'avesnois <http://www.ecomusee-avesnois.fr/>, Ohara Kazuoki(2008), 한추연(2012)의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2) 이탈리아 에코뮤지엄

이탈리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에코뮤지엄의 수용이 늦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에코뮤지엄을 양성한 결과 1999년에 15개였던 에코뮤지엄이 2010년 193개(조성과정 포함)까지 늘어나게 되었다.²²⁾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지역 에코뮤지엄 네트워크인 '몬디 로칼리(Mondi Locali: 지역 세계)'를 조직하여 에코뮤지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몬디 로칼리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리더 및 관계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고 있다.²³⁾

1)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 (Scopriminiera Ecomuseo)

① 설립 배경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은 제르마나스카(Germanasca) 계곡이 있는 토리노(Turin) 지방에 위치해 있다. 제르마나스카 계곡은 광산 채굴이 활발했던 곳이다. 이러한 광산 지역에 대한 여행 안내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바탕이 되어 에코뮤지엄 설립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관련법이 마련됨에 따라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이 설립되었다. 이 에코뮤지엄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기억과 역사, 전통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소속감을 강화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한다. 지역의 협회·단체·기관의 관계를 강화한다.

② 운영

운영조직은 크게 운영위원회, 기술-과학 위원회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문화관광 관련 커뮤니티의 대표와 다섯 개의 지자체 시장이 맡으며, 에코뮤지엄 활동의 년 단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활동결과를 평가한다. 기술-과학 위원회는 기술 및 문화 관련 지역 커뮤니티의 대표, 에코뮤지엄 활동가들의 대표자들, 외부 전문가들

22) Peter Davis, *Ecomuseums: a sense of place* (London: Continuum, 2011), pp. 149-50.

23) Maurizio Maggi, "Ecomuseums in Italy. Concepts and practices," *Museologia e Patrimônio*, 2(1), 2009, pp. 74-6.

에 의해 구성된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의 활동 및 계획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것은 튜노 주식회사(Tuno Srl)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스코프리미니에라(Scopriminiera)라는 교육 담당 시설과 에코뮤지엄 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과학·환경·민족·지학 등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가치와 전통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계획과정부터 에코뮤지엄 운영까지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²⁴⁾

③ 활동내용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은 지역사회의 철학과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두고 활동해가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인 광산을 다양한 차원에서 바라보며 지역주민들의 역사, 지역의 전통 문화, 비가시적인 자원 등과 관련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주요 시설은 '스코프리미니에라', '프렐리 에코뮤지엄 센터', '살쾨 뮤지엄', '광산과 제르마나스카 에코뮤지엄' 등이 있다. 그 중 '프렐리 에코뮤지엄 센터'는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의 코어 역할을 하는 시설이며, 전시역할 외에도 지역 역사에 대한 아카이브 및 교육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각 시설의 활동 내용은 <표 2-4>와 같다.

④ 시사점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유산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 역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들과 커뮤니티가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아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연구와 해석, 복원이 바탕이 되어 에코뮤지엄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활동과 에코뮤지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역량강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투어를 통해 방문객에게 지역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24)"Scopriminiera Ecomuseo," <http://www.scopriminiera.it> (검색일: 2012년 11월 5일).



〈그림 2-12〉 살신 에코뮤지엄

〈그림 2-13〉 에코뮤지엄 센터

〈그림 2-14〉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

자료: Scoprimeria <http://www.scoprimeria.it>

〈표 2-4〉 프렐리 에코뮤지엄 내용 및 프로그램

명칭	내용	프로그램
살썬 뮤지엄 (Salsin Muse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데즈(Valdese)라는 오래된 학교 건물을 복원하여 활용 2007년 살자(Salza)의 지역 사회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구 지역 커뮤니티 공간 제공 지역의 사회, 경제, 지역민의 일상과 관련한 전시
프렐리 에코뮤지엄 센터 (Centro di Accoglienza dell'Ecomus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건물에 설립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의 코어시설의 역할을 하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광부들의 삶, 지역 공동체에 대한 상설전시 문화 이벤트 개최 지역 역사에 대한 아카이브, 교육 활동 서점 및 헬컴 센터 운영
스코프리미니에라 (Scoprim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의 주요 사이트 1998년에 조성되었으며 광산유적을 기반으로 운영 3.5km의 터널과 지하 통로를 포함한 코스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보 및 광산기차로 관람코스를 관람 샘, 물웅덩이, 폭발물 저장고, 휴식장소 등을 전시

자료: Scoprimeria <http://www.scoprimeria.it>, 한주연(2012), 신현호(2006)의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3) 일본의 에코뮤지엄

일본은 아시아에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다. 1974년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소개된 이래로 1990년대부터 일본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 등에 그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는 수많은 지역이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다.²⁵⁾

일본 에코뮤지엄에 대한 연구에서 츠치코쿠(笹谷)는 지역개발의 수법으로서 에코뮤지엄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 째,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명소, 고적이 없어도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보존·전시하는 것에 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째, 에코뮤지엄의 활동 내용 중 지역 자원의 재발견과 활용은 지역개발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 째, 산간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넷 째, 사람, 자연, 문화 등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유산을 활용하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지역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 다섯 째, 지역의 자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된다. 여섯 째, 주민 참여형의 지역개발의 방법으로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행정기관도 지역개발에 있어서 에코뮤지엄의 가치를 인식하여 행정기관이 에코뮤지엄을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에코뮤지엄은 도시와 농촌의 일본 전역에 분포되어있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히라노(平野) 에코뮤지엄

① 설립 배경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일본에서 최초로 설립된 상징적인 에코뮤지엄이다. 14C 봉건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경제적인 자립을 기반으로 지역의 독립적인 재정을 운영해 온 독특한 역사는 히라노 지역이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생활방식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다.²⁷⁾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조성된 절, 신사, 정원 등의 많은 역사적 장소들이 있으며,

25)여경진, 주영민, "일본 에코뮤지엄의 형성과 목적," 『한국농촌관광학회』, 14(1), 2007, p. 113.

26)츠치코쿠(笹谷康之), "日本エコミュジウム究員の描くエコミュジウム像," 『エコミュジウム究』, 4, 2001, pp. 53-5, 여경진, 주영민, "일본 에코뮤지엄의 형성과 목적," 『한국농촌관광학회』, 14(1), 2007, p. 128에서 재인용.

27)Óscar Navajas Corral, "Japan ecomuseums: Global models for concrete realities," *Cadernos de Sociomuseologia*, 38, 2010, p. 223.

"히라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은 일본인 특유의 상냥하며 인정이 많은 특성과 비

1300년 전 구획된 가로구조와 마을 수호를 위해 건설된 해자가 현재에도 남아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 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을 보존 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0년 센쿠지사의 승려 료닌 카와구치(良仁 川口)의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거주민들이 지역 운동을 시작하였고, 1993년에 에코뮤지엄이 설립되었다.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회복, 정체성 회복과 도시공간의 재생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⁸⁾

에코뮤지엄이 설립되면서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수리 및 개조하여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작은 공간들 또한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시 등을 열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에도 활용되는 역사적 건축들은 역사적인 자산 및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화해나가는 공간의 가치를 갖는다.

② 운영

15개의 시설과 40여명의 스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식적인 위원회 형태의 운영조직은 없으며 '지역 유산과 문화 보존'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주민 연합이 존재한다. 활동이념으로 '회장 없음·회칙 없음·회비 없음'의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느슨하게 연대 한다'는 네트워크형의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현재 7개의 역사적 장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소유의 집을 방문객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100개의 시설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코뮤지엄 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²⁹⁾

일반적인 에코뮤지엄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지역민이 중심이 되며, 이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인식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이 부담 없이 생활 속에서 에코뮤지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오픈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매월 넷째 일요일)에만 오픈하며 평소에는 주택, 상점 등 본래의 목적으로 쓰고 있다.

③ 활동내용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지역자원을 섬세하게 발굴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히라노 소리 박물관의 경우 지역의 소리 자체를 지역자원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리를

교해 아주 특징적이다."

28) 신현요, 앞에 든 책, p. 66.

29) "おもろいで平野," <http://www.omoroide.com/> (검색일: 2012년 9월 12일).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독특한 가업, 특기 등을 보유한 지역 인적자원들을 발굴하여 에코뮤지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시설의 활동 내용은 <표 2-5>와 같으며, 아래의 4개의 시설 외에도 퍼즐 찾집, 영상자료관, 자전거 가게 박물관, 유령 박물관, 신문가게 박물관, 생활의 박물관, 수호신의 숲 박물관, 작은 과자가게 박물관, 우체국 박물관, 커피가게 박물관, 부뚜막 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위와 같은 시설들을 네트워킹 하는 지역 지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문에 방문객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물음으로써 지역을 관광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히라노 에코뮤지엄의 큐레이터가 되고, 가이드가 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오사카지역 무형문화재인 '모내기 행사' 축제를 구마타 신사에서 열고 있으며, 여름에는 상설전시 이외에도 기획전시와 공연, 이벤트, 벼룩시장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사카와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역사적 경관의 보전 등을 실시하는 "히라노 지역 희망(平野郷 HOPE) 계획"을 비롯해 국제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³⁰⁾

④ 시사점

국가나 지자체 차원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로 형성되었으며, 일본 최초의 에코뮤지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방문객을 위하여 에코뮤지엄을 조성해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만들어어나가는 마을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보존 방식에서는 가시적 랜드마크를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예기술, 지역의 지혜와 놀이와 같은 무형적 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30)"おもろいで平野," <http://www.omoroide.com/> (검색일: 2012년 9월 12일).



〈그림 2-15〉 지역 스토리텔러로서 활동하는 로닌 승려

〈그림 2-16〉 히라노 에코뮤지엄 지도

〈그림 2-17〉 구마타 신사의 베타시장

〈그림 2-18〉 과자가게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자료: おもしろいで平野 <http://www.omoroide.com>

〈표 2-5〉 히라노 에코뮤지엄 내용 및 프로그램

명칭	내용	프로그램
히라노 소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에 설립 • 기차 소음, 전통 축제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소리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히라노 지역에 대한 소리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아카이빙하며 전시 운영 • CD나 FM라디오 방송을 통해 히라노 마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활동 전개 	
과자가게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9년에 창업한 과자 가게 • 지역의 전통 과자 제조방법으로 다양한 전통 과자를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화과자 만들기 체험과 연 6회의 강습이 열리는 과자 교실 진행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과자 제적 도구 등을 전시 	
신문가게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9년 개점한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판매점 • 현재 건물은 1929년에 지어졌으며 유형문화재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신문을 비롯하여 부록, 과거 기사 등을 소장 및 전시 	
칼의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이 보유한 역사적 도검을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째 전승된 도검, 연마 도구 및 관련 작품 전시 • 아키라씨와 그 일가가 보유한 검 연마 기술 시연 	

자료: おもしろいで平野 <http://www.omoroide.com>, 한주연(2012), Peter Davis(2004)의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2) 하기(萩) 에코뮤지엄

① 설립 배경

하기(萩)시는 일본 근대화가 시작된 지역이며 유신시대의 태동지로 역사와 관련한 많은 문화재와 생활문화자원이 존재한다. 또한 바다와 하천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지역 생활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1959년부터 향토 박물관이 설립되어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평생 학습과 정보화 사회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에코뮤지엄을 계획하였다. 2004년 하기 에코뮤지엄의 코어시설인 '하기 박물관'과 하기 에코뮤지엄을 설립하였다.³¹⁾

하기 에코뮤지엄은 하기의 자연, 역사, 민속, 산업, 미술 공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과 동시에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하기는 물론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하기시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기의 역사, 자연, 문화 자원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며 더 나아가 '하기 학(學)'을 창조하고자 한다.³²⁾

② 운영

하기 에코뮤지엄은 2005년 '하기 박물관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 및 사업 범위, 운영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기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은 박물관 학예부서와 사무부서 직원들과 NPO-하기 마을 박물관의 회원인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담당하고 있다. 학예부서는 역사, 민속, 해양생물, 천문 분야로 나뉘어 6명이 근무하며 사무부서에는 관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한다. NPO-하기 마을 박물관의 회원들은 접수, 안내, 가이드, 청소, 카페의 경영, 전시 보조, 연구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의 다른 해외사례와 비교해볼 때 하기 에코뮤지엄은 코어시설 및 본부의 기능이 매우 강하다. 지역의 자원 및 연구 내용을 코어시설인 '하기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 또한 '하기 박물관'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다소 중앙 집중적인 운영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사례에 비해서 지역 역사,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 및 전시, 정보제공에 대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지역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람 루트를 통해 네트워크하며, 지역 전반에서 마을 주민의 활동과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에코뮤지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1) 하기하쿠부즈칸(萩博物館), 『萩博物館 展示案内』(山口: 萩博物館, 2004), pp. 4-7.

32) "萩博物館," <http://www.city.hagi.lg.jp/hagihaku> (검색일: 9월 17일).

③ 활동내용

하기 에코뮤지엄의 활동은 <표 2-6>과 같이 크게 하기 박물관의 활동과 NPO-하기 마을 박물관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하기 박물관은 하기의 역사, 민속, 해양생물, 천문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하기 학(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하게 기획하여 전시하고 있다. NPO-하기 마을 박물관은 지역주민이 회원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기 에코뮤지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전시, 이벤트 등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하기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다.

④ 시사점

하기 에코뮤지엄은 하기박물관과 NPO-하기 마을 박물관이 협력하여 운영해 나가는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NPO-하기 마을 박물관의 회원인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체계적으로 주민인력이 배치돼 에코뮤지엄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문 학예사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역사,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 및 전시, 정보제공에 대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단순히 문헌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2-19> 하기 에코뮤지엄

<그림 2-20> 하기 에코뮤지엄 지도



<그림 2-21> 하기 학(學) 무엇이든지 BOX 프로그램

<그림 2-22> NPO 회원들의 활동발표회 모습

자료: 萩博物館 <http://www.city.hagi.lg.jp/hagihaku>

〈표 2-6〉 하기 에코뮤지엄 내용 및 프로그램

명칭	기능	활동 내용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학(學)'창조를 목표로 조사·연구를 수행 ·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조사·연구를 진행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지역의 주민 및 하기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 다양한 자료 수집 · 하기 학(學) 무엇이든지 BOX 프로그램³³⁾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자료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습도, 염분, 해충, 곰팡이 등에 대한 방어기능을 고려하여 자료 보관 시설 및 체제를 정비 · 자료의 등록·보관 시스템을 구축 · 미래세대를 위한 자료 보관 계획 수립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자료와 복제, 모형, 영상 등을 조합하여 전시 · 실물자료의 적극적인 전시로 현장성 중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 활동, 홍보 활동, 출판 활동 전개 ·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 지원과 사회 교육 활동과 연계 	
시설, 설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의 안전과 자료의 보존 방안을 중시 하는 시설 정비 · 중요 전통 건축물군 보존 지구의 환경을 정비 	
정보 수집,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정보 제공 서비스 	
학교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정보 제공 서비스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제공 · 지역 가이드 및 학습 지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제공 	
NPO 하기 마을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하기 박물관 관리 · 운영을 NPO단체에 위탁하였으며, 행사와 전시회 개최, 정보 제공, 마을 자원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활동에 참여 · 박물관 점수와 안내, 전시실 안내, 청소, 방범, 상점과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짐 	

자료: 萩博物館 <http://www.city.hagi.jp/hagihaku>, NPO 萩まちゅう博物館 <http://www.npomachihaiku.com>, 하기하쿠부초칸(萩博物館)(2004)의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33)하기의 역사·문화·산업·자연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자료 및 정보 박스에 담아 보관 및 전시. Box의 내용물은 자유롭게 손에 들고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어, 방문객이 자료와 정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음.

2. 국내사례

국내에는 아직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 사례에 비해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또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박물관학적 논의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에코뮤지엄의 개념 및 그 함의를 제대로 적용한 정부 차원의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개발 방식의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자연, 산업, 문화 예술 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노력들은 에코뮤지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³³⁾ 또한 지역산업의 쇠퇴로 방치된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주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에 국내사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1) 강원도 태백시 철암 빌리지움



<그림 2-23> 철암 상가건물 벽화 [배석빈, 장성아, 이해인]
자료: 임종업, 2008



<그림 2-24> 철암 상가 뒷모습

자료: 박창현, 2011

1) 배경 및 현황

강원도 태백시의 탄광도시인 철암은 폐광 후 급격한 쇠퇴로 인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낙후지역이다. 이러한 철암지역의 재생을 위해 건축가,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을 결성하여 제안한 개념이 '철암 빌리지움'이다. 1997년부터 몇몇 건축가들이 논의를 시작하여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개발과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 공무원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2년 만에 실패하였고,³⁴⁾ 2005년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도 철암을 떠나게 되었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의 개념과 정신을 이어 다양한 예술가 및 단체(할아텍 등)들이 철암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

33) 권수미, 앞에 든 책, p. 47.

34) 임종업, "'할아텍' 사람들 폐광촌 철암에 녹아들다," 『한겨레신문』 (2008년 8월 21일).

고 있으며, 2011년 들어 태백시가 철암 탄광촌 보존·복원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철암 빌리지움' 프로젝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³⁵⁾

2) 개념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의 대표건축가인 주대관 소장은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과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 계속 보존되는 작은 도시, 다른 말로 지속가능한 작은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상 자본유입을 통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낮아 역으로 대안적 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³⁶⁾ 이와 같이 '철암 빌리지움'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철암지역 내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겨졌던 것들을 문화유산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철암만의 독특한 경관과 시간의 자취들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이다.³⁷⁾

3) 내용

① 탄광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철암지역은 탄광지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과 거대한 스케일 감을 보여주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철암 빌리지움' 프로젝트는 저탄장, 경석장, 상탄시설 등의 석탄 관련시설들을 산업폐기물이나 고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를 지탱해온 동력이자 철암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산업·문화유산으로 바라보았다.

② 지역성을 유지한 경관의 보존

석탄관련시설 이외에도 철암의 도시적인 지역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경관으로는 삼방동과 신설동 지역의 단독 주택군과 철암천과 철암로 사이에 줄지어 서있는 상가건물(<그림2-24>)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하천부지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도시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뒤에는 1/2정도가 폐가가 되거나 철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광부들의 일상이 기록된 단독주택과 독특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상가건물들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철암만의 특별한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였다.³⁸⁾

35) 박창현, "[폐광지 산업문화 유산을 살리자] 11. 에필로그-탄광촌의 새로운 희망찾기" 『강원도민일보』 (2011년 11월 16일).

36) 김정수, "'철암건축도시작업팀' 주대관씨," 『한겨레신문』 (2004년 6월 8일).

37) 김영숙, '에코뮤지엄 개념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3, p. 71.

38) 같은 책, pp. 73-4

③ 도시경관의 재정비

철암의 도시조직은 철암천 하천부지를 점유하면서 발달하였다. 하천에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서있으며 상가의 생활하수는 분리하수관과 연결되지 않고 철암천에 직접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철암의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철암천의 관리 및 정비가 필수적이였다. '철암 빌리지움'은 이러한 정비 계획을 단순한 하천복개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철암천을 도시경관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관광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재 철암천을 끼고 형성된 철암상가는 2011년 도로 확포장 개발 사업으로 일부 구간 헐렸으나 일부 건축물은 여전히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2-23>)³⁹⁾

4) 시사점

'철암 빌리지움'은 근대 산업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지역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역산업의 쇠퇴로 활기를 잃어버린 지역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이 아닌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례로 남았으며, 이는 어떠한 좋은 의도의 도시개발과 재생도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동의와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⁴⁰⁾

또한 이 프로젝트는 관주도방식이 아닌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건축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은 기존의 도시개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방식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들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 철암지역 재생을 위한 시민단체 및 예술가들의 참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에는 태백시에서 철암지역 재생에 관심을 갖으며 '철암 빌리지움' 프로젝트가 재조명받고 있으며, '할아텍'과 같은 예술가 단체의 활동이 철암지역 재생의 희망을 다시금 불어넣고 있다. 비록 초기의 에코뮤지엄 조성 시도가 실패하였지만, 철암 빌리지움의 비전과 개념은 현대 도시 재생에 있어 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9) 박창현, "[폐광지 산업문화유산을 살리자] 2. 이것이 산업유산이다," 『강원도민일보』 (2011년 9월 14일).

40) 박창현, "[폐광지 산업문화 유산을 살리자] 11. 에필로그-탄광촌의 새로운 희망찾기," 『강원도민일보』 (2011년 11월 16일).

(2) 청주 에코뮤지엄 센터(역사자료관) 건립계획 및 체험형 박물관 계획



<그림 2-25> 청주역사자료관 에코뮤지엄센터 건립기본계획안 조감도
자료: 신현요, 2005



<그림 2-26> 청주지역 테마박물관 지도
자료: 신현요, 2005

1) 배경 및 현황

청주시는 2000년 12월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계기로 2001년 5월 '세계문화도시포럼'을 열었다. 이 때 발표한 '청주선언'의 구체화 및 청주시를 홍보를 위한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청주 에코뮤지엄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사업을 지원하던 청주시의 단체장 및 조직구성의 변화로 인해 진행을 멈춘 상태이다. 다만, 이 지역에 위치한 'BK21-청주대학교 건축공학'의 구성원은 지역유산의 보전·연구와 역사적 도심부로서의 청주지역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주민워크숍으로 마을의 미래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도출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⁴¹⁾

2) 개념

청주, 청원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지역유산들과 문화유적을 복원·연구하고, 보존된 유산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자연유산, 산업유산, 유무형의 다양한 유산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주도의 지역개발보다는 민간의 주도로 하되 행정의 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⁴²⁾

41) 최경희,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복촌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2009, pp.25-26

3) 내용

① 에코뮤지엄 센터 건립 기본계획

청주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청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외지인에게는 청주에 대한 교육·홍보의 장소가 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지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산을 포함한 청주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기능을 두었다. 즉, 기존 박물관의 기능을 포함하며, 청주지역과 인근 청원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유산을 보존, 연구, 전시, 관람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고자 한 것이다.

② 체험형 박물관 육성 기본계획

21세기 박물관은 참가, 체험형이 되어야한다는 기초아래 청주지역의 공공박물관 및 공공시설에 다양한 체험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유산을 조사·분석하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도시 전체를 지역 통째로 박물관, 평생학습의 도시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으로는 청주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을 연계한 네트워크와 자연, 산업, 문화유산에 기초한 지역축제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4) 시사점

지역유산을 전 지역 차원에서 관리·보존·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센터의 건립과 지역전체의 박물관 및 공공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에코뮤지엄 이론에서 제시하는 코어 및 세틀라이트 뮤지엄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서 실현되지 못했으며, 센터의 건립이 지나치게 큰 규모로 계획되어있어 지속가능성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42) 신현요 앞에 든 책, pp.74-75

3. 사례분석의 종합

지금까지 에코뮤지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외사례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가장 먼저 발전한 유럽의 사례 중 에코뮤지엄 개념의 발상지 프랑스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빨리 에코뮤지엄 개념을 받아들여 지역계획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르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뮤지엄은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운영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왔다. '지역코뮌'이 시설의 자산을 보유하고, '각 시설의 위원회'는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며, '에코뮤지엄의 운영조직'은 운영방침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민주적 운영 구조는 현재 많은 에코뮤지엄이 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아베노와 에코뮤지엄은 작은 주민의 모임으로부터 성공적인 에코뮤지엄으로 발전해왔다. 지역학생과 노인그룹이 참여하여 지역의 이야기, 사진, 물품 등을 수집한 초기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문화를 지역의 자원화 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현재는 지역의 자원을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주민 및 방문객에게 풍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기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최근의 급속한 성장의 중심에 에코뮤지엄 네트워크인 '몬디 로칼리'가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훈련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코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 또한 교육 담당시설과 연구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주민을 교육하여 지역주민이 계획과정에서부터 에코뮤지엄 운영까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국가나 지자체의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 속에서 에코뮤지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에코뮤지엄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자원 또한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하기 에코뮤지엄은 하기박물관과 NPO-하기 마을 박물관이 협력하여 운영해 나가는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NPO-하기 마을 박물관의 회원인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체계적으로 주민인력이 배치돼 에코뮤지엄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 역사,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 및 전시, 정보제공에 대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성공적인 사례가 아직 없으며, 에코뮤지엄의 개념 및 그 함의를 제대로 적용한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쇠퇴로 방치된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 방안으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의 방법으로 에코뮤지엄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비록 실패한 사례이지만 철암 빌리지움은 에코뮤지엄 개념을 통해 탄광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성을 보유한 경관을 보존하는 도시경관 정비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표 2-7> 국내·외 사례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도출

국가	에코뮤지엄	시사점
프랑스	르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뮤지엄 (Écomusée de Le Crest Montceau-Les-Mines)	민주적 운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코핀'이 시설의 자산을 보유하고, '각 시설의 위원회'는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며, '에코뮤지엄의 운영조직'은 운영방침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민주적 운영 구조
	아베노와 에코뮤지엄 (Écomusée de l'avesnois)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문화를 지역의 자원화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생과 노인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이야기, 사진, 물품 등을 수집한 초기의 프로그램(푸르미 지방 100년의 사회 경제 생활, 1978) •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이탈리아	스꼬프리미니에라 에코뮤지엄 (Scopriminiera Ecomuseo)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훈련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담당시설과 연구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주민에게 교육하여 지역주민이 계획과정에서부터 에코뮤지엄 운영까지 활발히 참여
일본	히라노(平野) 에코뮤지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비물리적 자원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 속에서 에코뮤지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에코뮤지엄 운영방식 • 지역에 숨겨진 다양한 비물리적 자원을 발굴·보존
	하기(萩) 에코뮤지엄	역사,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전시 연구과정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하기 마을 박물관의 회원인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체계적으로 주민인력이 배치되 에코뮤지엄 운영
한국	강원도 태백시 철암 빌리지움	국내 에코뮤지엄 설립의 첫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뮤지엄 개념을 통해 탄광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성을 보유한 경관을 보존하는 도시경관 정비를 추구
	청주 에코뮤지엄	지역유산을 지역차원에서 관리·보존·육성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뮤지엄의 운영 구조 및 지역자원 관리 개념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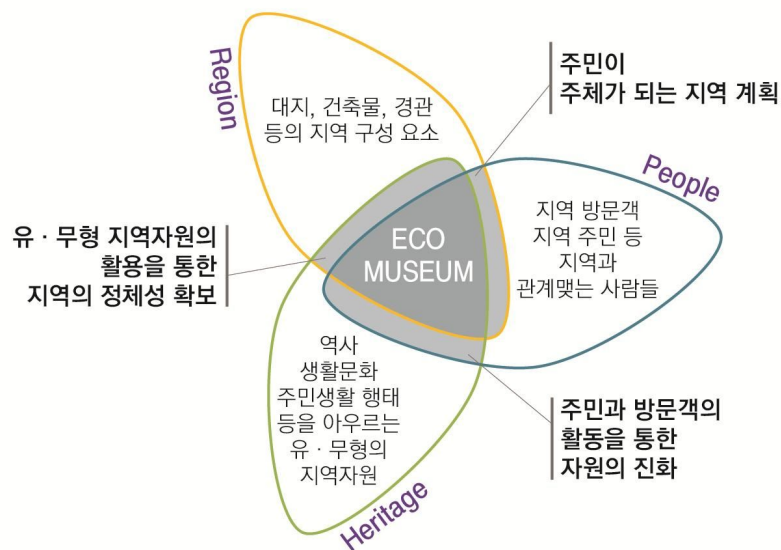
제3절 종합- 대상지 적용을 위한 에코뮤지엄 개념 정립

1. 에코뮤지엄의 개념 재정립

(1) 에코뮤지엄의 주요 요소 및 목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시 에코뮤지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선 에코뮤지엄은 전시의 무대가 되는 지역, 전시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자원, 이를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는 사람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한다. 이 세 요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세 요소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제시하는 에코뮤지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 요소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연구, 보존, 활용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이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방문객들이 지역 자원을 발굴·연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애정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지역개발 및 계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생적이며 자치적인 에코뮤지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27> 에코뮤지엄의 주요 요소 및 목표

(2) 에코뮤지엄의 적용의 의의

1) 역사와 현재의 균형 잡힌 시각

현재 '북촌 한옥마을'은 한옥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상업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몇몇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주민의 개성과 추억이 남아있는 한옥양식을 전통 한옥양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기존 한옥을 수리·신축할 때 보수적인 가이드 라인에 맞춰 짓다보니千篇일률적인 경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옥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기존의 많은 주민들이 살던 주거 유형인 연립주택이 사라져 '북촌 한옥마을'은 점차 고소득계층의 별장 혹은 주택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 학생, 청년층, 젊은 부부 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며, 그들이 이루고 있던 커뮤니티가 점차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⁴³⁾

이처럼 보수적 기준의 '역사 보존지구 설정'으로 주민 개성의 반영을 봉쇄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통해 오히려千篇일률적인 건축물과 경관을 양산하는 기존의 보존방식은 현재 주민의 삶을 과거에 갇히게 한다. 즉, 현재 주민의 삶보다 역사적인 것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해나갈 수 있는 가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래된 역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배다리 지역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북촌한옥마을'과 같은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국외사례에서 살펴본 '아베노와 에코뮤지엄'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애사를 그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야기, 사진, 자료, 물품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에코뮤지엄이 강조하는 유·무형 자원의 발굴 과정을 통해 지역에 다양한 유산의 형태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주민 개개인이 가진 이야기와 그들의 개성이 담긴 유품, 주거형태와 생활양식 등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를 역사의 한 흐름으로 간주하고, 현재 주민의 삶과 이야기가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것과 그 역사적 맥락에서 파생되어 나온 삶의 다양성이 한 방향만을 강조하는 보존 방식보다 지역의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43) 박승배, "북촌을 통해 바라본 마을만들기의 의미," 『도시연대 오픈강좌』 (2011년 9월 1, 서울).

2)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 보존 모델 제시

지역 유산의 보존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후대에 전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를 수행해야하는 지자체는 대규모 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정책이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사례에서 살펴본 '청주 에코뮤지엄 센터' 건립계획은 보존 정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시설투자와 첨단기술을 투입하는 기존 박물관의 모델을 따르고 있기에 에코뮤지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배다리 지역에서도 '역사문화마을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나 예산의 문제로 구청 측이 적극적인 추진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국외사례의 경우 점진적 시설 확장, 기존 건물의 적극적 활용,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으로 에코뮤지엄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 자체 내에서 수익구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뮤지엄이 강조하는 기존 시설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수립의 과정을 통하여 과도한 예산지출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기존의 지역 유산의 보존 방식을 지양해야한다. 우선 신축건물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건물의 의의와 가치를 찾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며, 현재 문화시설 혹은 주민시설로 활용되는 공간을 활용해 에코뮤지엄의 프로그램 실행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실건물 및 공가 등의 수리 및 임대 사업, 마을기업 등의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자체 내에서 기금 마련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에코뮤지엄의 계획과 실천을 통하여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생활·역사문화 보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민의 생활과 밀착한 지역계획

역사적 의의를 갖고, 많은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계획에 있어 역사자원 보존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도출, 전문적 연구 과정을 통한 지역계획은 당연히 여겨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정보가 부족했으며, 지역민의 삶과 괴리가 있는 지역계획이 이루어졌다. 현재 배다리 지역의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동구청측에서 수행한 '역사문화마을 조성 계획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문 연구원만이 참여하여 문헌조사 위주의 '역사문화마을' 조성 계획안을 내놓았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주민 설명회 개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⁴⁴⁾

그러나 국외사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의 주체적 경영과 민주적 운영방식은 에코뮤지엄 설립에 있어 필수요소이며, 주민의 삶까지도 지역자원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필수적 과정으로 강조한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의 기회 제공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즉, 에코뮤지엄은 실행주체의 측면과 지역자원의 측면에서 모두 지역주민을 지역계획의 중심에 둠으로써 지역민의 생활과 밀착한 지역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2. 에코뮤지엄 계획의 틀 정립

(1) 에코뮤지엄의 활동 주체

에코뮤지엄의 활동 주체는 <그림 2-28>과 같이 크게 에코뮤지엄 실행에 직접적 역할을 하는 에코뮤지엄 위원회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에코뮤지엄 위원회는 지역 리더⁴⁵⁾와 지역의 문화단체, NPO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지역 리더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며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또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따라서 에코뮤지엄 위원회에서 일반 주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계획으로서 에코뮤지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단체 및 NPO는 지역 문화기반 마련,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해온 단체로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단체 및 NPO의 참여로 보다 전문적이고, 추진력 있는 에코뮤지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단체 및 NPO는 단체 본연의 업무와 에코뮤지엄의 업무가 상충되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지역 문화단체와 NPO단체의 프로그램을 에코뮤지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며, 이들의 시설 또한 에코뮤지엄의 시설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 문화단체 및 NPO와 에코뮤지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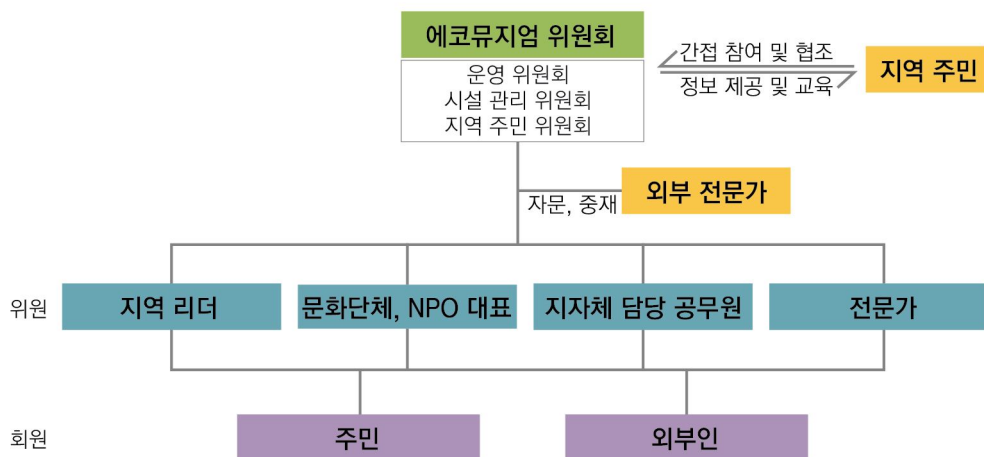
44) 유승희, "인천 배다리 문화지구 '갈 길 멀다'," 『인천신문』 (2012년 3월 21일).

45)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주민 또는 부녀회, 통장 등 지역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주민

에코뮤지엄은 지역계획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긴밀한 상호협력 및 소통은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힘쓰며 지역의 자생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코뮤지엄 위원회는 지자체가 세운 기존 정책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코뮤지엄 설립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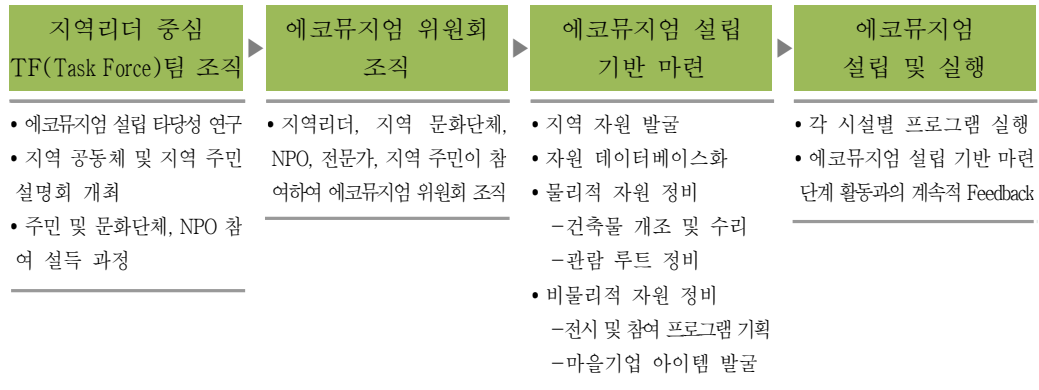
또한 전문가들과의 교류 또한 필요하다. 에코뮤지엄 계획 및 자원 발굴·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에코뮤지엄 설립 및 실행과정에 참여하여 활동 주체들이 에코뮤지엄 및 지역 계획에 대해 바람직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주민, 지자체와 에코뮤지엄 간의 의견이 상충되며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 활동주체 외에도 지역의 일반 주민들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 기본적인 에코뮤지엄 실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실행 시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에코뮤지엄 위원회는 에코뮤지엄 계획 및 실행 과정에 대해 모든 지역주민이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28> 에코뮤지엄 활동주체의 구성

(2) 에코뮤지엄 설립 프로세스에 따른 계획 체계



<그림 2-29> 에코뮤지엄 설립 프로세스

1) 지역리더 중심 TF(Task Force)팀 조직

에코뮤지엄의 설립이전에 가능 타진 및 방향 설정을 위하여 에코뮤지엄 설립 의지를 가진 지역리더 및 관계자(주민 공동체 리더, 지역 연구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를 중심으로 TF팀을 조직한다. 이들의 역할은 에코뮤지엄 설립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역사성, 지역 자원, 수요,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에코뮤지엄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조직과의 연대하며, 조성 기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역 공동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에코뮤지엄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에코뮤지엄 위원회 조직

본격적인 에코뮤지엄의 설립을 위한 인력확보의 단계이다. 전 단계의 과정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코뮤지엄 위원회를 조직한다. 에코뮤지엄 위원회는 에코뮤지엄의 운영과 활동, 프로그램 기획 등 에코뮤지엄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는 에코뮤지엄 실행의 기본적 업무가 되는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그림 2-30>과 같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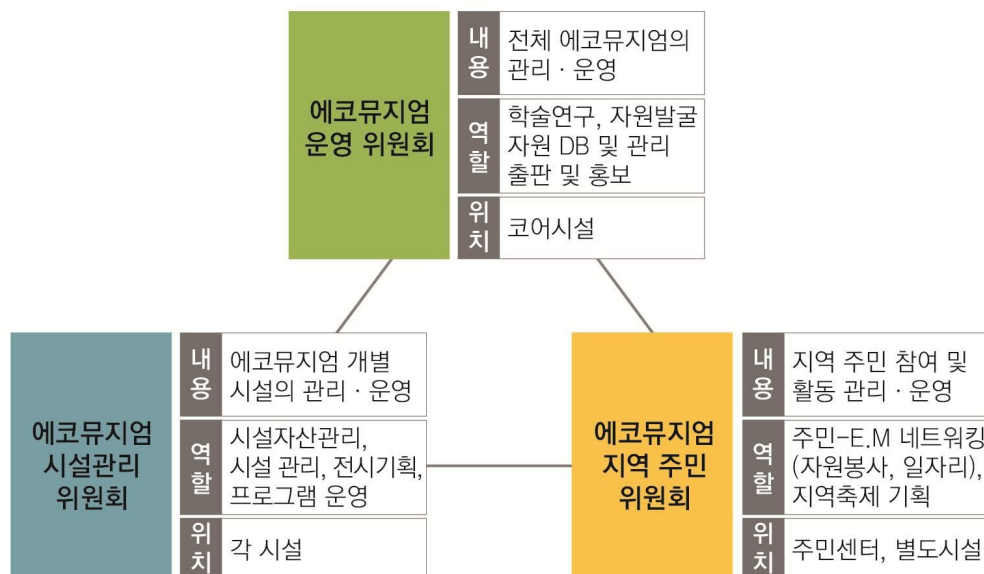
첫째, 에코뮤지엄 운영위원회는 지역 전체 에코뮤지엄의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즉, 에코뮤지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업무로 지역에 대한 학술 연구, 지역 자원 발굴, 발굴한 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 연구결과물의 출판, 에코

뮤지엄의 홍보 등을 담당한다. 운영 위원회의 사무실은 에코뮤지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코어 시설에 위치하여 지역의 정보제공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에코뮤지엄 시설위원회는 지역 전체에 분포한 에코뮤지엄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각 시설에 직접 근무하며 시설의 관리, 전시 혹은 워크숍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시설의 매입, 개조 등과 관련한 시설자산을 관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에코뮤지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에코뮤지엄 지역 주민 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활동 지원·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에코뮤지엄과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에코뮤지엄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또는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주민을 자원봉사 혹은 직원의 형태로 인력 배치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에코뮤지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에코뮤지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과 주민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탄탄한 지역주민이 에코뮤지엄 지역주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들 세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 조직 및 시설의 실정에 맞는 논의를 통하여 자주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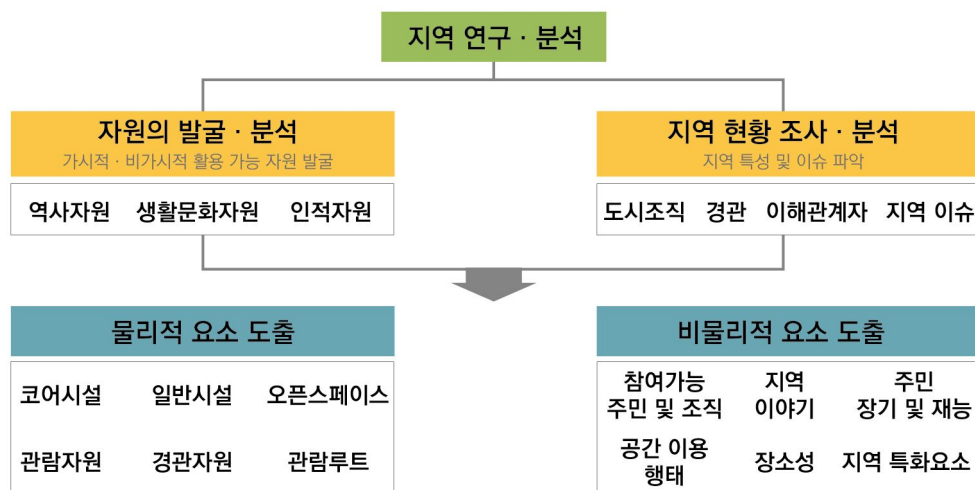
<그림 2-30> 에코뮤지엄의 운영 조직 구조

3) 에코뮤지엄 설립 기반 마련

에코뮤지엄 설립에 필요한 자원 및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먼저 면밀한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지역에 대한 분석은 지역자원 분석과 지역현황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지역자원에 대한 분석은 크게 지역의 역사 및 역사자원, 지역주민의 생활 및 생활문화자원, 인적자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자원의 종류는 유·무형의 자원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이때 문헌조사 뿐만 아니라 심층 인터뷰, 지역답사 등을 시행한다. 또한 지역현황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의 물리적 현황, 지역과 관련한 도시 계획, 개발 계획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 및 이슈에 맞는 에코뮤지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에코뮤지엄 설립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다. 물리적 요소들 중 코어시설, 일반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과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역사문화자원을 선별한다. 또한 비물리적 요소들 중 지역의 이야기, 참여 가능한 주민 및 주민 조직, 주민의 재능, 지역주민 및 외부인의 공간 이용 행태, 장소성 등을 도출하여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및 시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후 위에서 도출한 지역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며 필요한 공간 및 자원은 정비하여 에코뮤지엄 설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물리적 자원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마을기업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2-31> 지역 연구·분석의 틀

4) 에코뮤지엄 설립 및 실행

위의 과정을 토대로 에코뮤지엄을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그 실행 단계에 따라 실행 기반 마련, 프로그램 실행, 관리 및 홍보의 기능을 담당한다. 설립 초기에는 이 기능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코뮤지엄이 정착한 뒤에는 각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단계별 기능, 실행해 나가야 하는 프로그램, 참여 주체는 <표 2-8>과 같다.

<표 2-8> 에코뮤지엄 실행 시스템

	기능	프로그램	참여주체
실행 기 반 마 련	지역 자원 DB구축 및 등록 시스템	지역 자원 DB 구축 지역 자원 DB 등록 지역자원 DB의 개발 및 업데이트 지역 자원 등록 시스템 개발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공무원
	지역 자원 생산 시스템	지역자원의 발굴, 연구 연구, 자원 발굴, 교육, 워크샵, 평가 새로운 지역 자원의 창조 활용 계획 수립 및 활용	운영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 지역주민 운영위원회 외부 전문가 공무원
	전시 및 프로그램 시스템	코어시설 시스템 정보제공, 운영 및 관리, 마을 상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전시 시스템 시설 및 자원 관리,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카페 및 샵 운영	운영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지역주민 시설관리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 지역주민
	관람 루트 시스템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 관람루트 개발 및 정비	시설관리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 지역주민
프 로 그 램 실 행	지역 자원 관리 시스템	지역 및 자원 정보 관리 지역 주민 및 참여주체에 의한 해설 및 가이드 지역 주민 및 참여주체를 위한교육 자원 보존 및 활용 방안 구축 문화재 등록 및 지정, 자원 보존 방안 수립, 건축물 수리 및 개조 시스템 구축	운영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 지역주민 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공무원
	지역 자원 홍보 시스템	지역자원 정보의 공개 BI 디자인, 가이드북 출판 및 보급, 공식 웹사이트 개발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외부 전문가 운영위원회
	관광 시스템	지역, 시설, 교통, 숙박과 관련한 정보 제공	시설관리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

제3장 대상지 분석

제1절 배다리 지역의 역사적 맥락

현재 인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훼손된 인천 근대 주류문화였던 개항장 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자장면의 원조 공화춘 복원사업, 중국인 거리의 공자상 건립, 일본 조계의 일본인 가옥 복원, 인천근대건축전시관, 만국공원 복원 사업 등을 이미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조선인 문화의 중심지이자 근대 산업 문화의 중심지인 배다리는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산업도로의 건설 계획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현재에도 지역 문화 보존 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개항기를 겪으며 형성된 배다리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및 의의를 연구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1. 개항기 전·후의 제물포 시가지 형성과 배다리의 변화

(1) 개항기의 시가지 형성

인천 동구는 구한말 서양외세에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근대화의 역사적 현장이었다. 또한 인천이 근대적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는 제물포 일대의 땅 1.67km²가 1883년에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개항으로 인해 당시 인천의 행정중심지였던 관교동 일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한적한 어촌이었던 제물포 포구를 중심으로 개항장 일대가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천의 행정 중심축 이동으로 제물포 일대는 근대문물의 접점지이자 한반도 변화의 핵심 장소로 부각되었다.²⁾ 때문에 국내 물자 수송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외교통상이 활발해져 많은 이주민이 모여들었고, 개항 이후 동구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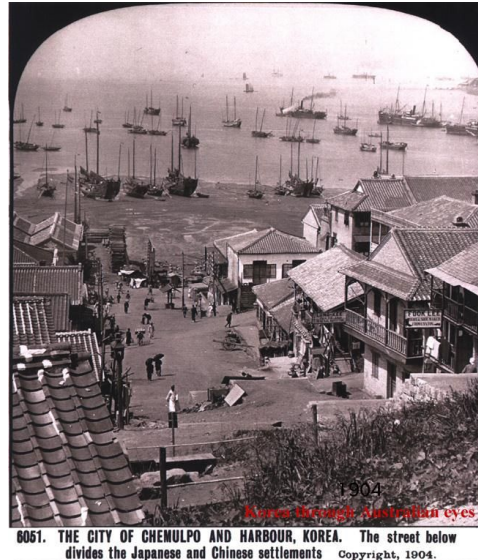
1)이희환, "인천 동구 배다리 일대의 지역개관,"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 (인천: 작가들, 2009a), pp. 1-2.

2)이종복, "배다리와 우각리의 형성,"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 (인천: 작가들, 2009), p. 24.

주변에는 외국 상공인들이, 동구 일대에는 인천으로 일자리를 찾아 온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여들며 급격히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즉, 제물포의 새로운 근대도시 인천 개항장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은 곧 한국 근대사의 기원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그것이 공간적으로 발현되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



<그림 3-1> (위) 1980년 / (아래) 1895년 제물포의 모습
자료: 한수당 연구원 <http://blog.naver.com/hahnsudang>



<그림 3-2> 1904년 제물포의 모습

형과니의 삶 <http://blog.daum.net/alzade57>

(2) 한국인들의 삶터와 문화적 토양 형성

1) 외국인 조계지와 한국인 주거지의 분리

1883년 개항과 동시에 외국의 여러 조계가 설치되었으며, 그 외곽은 한국인 거주지가 둘러싸고 있었다. 일본조계는 일본영사관(현 중구청)을 중심으로 자유공원 동서사면 약 23140m²를 점유하였다. 청국조계는 일본조계의 서쪽 현 선린동 일대의 약 16528m², 각국 조계는 일본 및 청국조계를 둘러싼 현 중앙동·송학동·북성동·송월동·향동 일대의 약 462809m²를 차지하였다.⁴⁾ 이어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각 나라와도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한 뒤에는 일·청 조계를 제외한 제물포 일대 330578m² 부지가 각국 조계로 설정되었다. 한국인 거주지는 현재 중구 내동지역의 감리서(조선말기 개항장의 외교·통상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관) 주변으로 한국인 주택과 거리가 만들어지면서 형

3)이희환, "인천 개항장의 역사문화지리," 『인천문화연구』, 1, 2003, p. 197.

4)이희환(2009a), 앞에 든 책, pp. 7-8.

성되었다.⁵⁾ 현재 행정동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배다리 지역을 포함한 금곡동·창영동·송림동·화수동·만석동 일대이다. 이곳에 찾아온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온 한국인들이었으며, 주로 운반업과 상업, 부두노동자, 공장 노동자로 종사하였다. 이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인 마을 또는 한국인 거리라고 부르는 집단거주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개항장 일대가 근대적 도시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면, 그 이북과 내륙지역 즉, 한국인 거주지는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와 자연적인 지형이 유지된 채 근대문물과의 접변지역을 이루며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가지 형성 배경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 인천의 구도심은 직교식 가로로 조성된 외국인 조계지와 미로형의 좁은 가로로 조성된 한국인 거주지로 분리되는 이중적 도시경관을 갖는다.



<그림 3-3> 일본인 조계지의 모습

자료: 인천역사자료관



<그림 3-5> 한국인 거주지의 모습

자료: 형파나의 삶 <http://blog.daum.net/alzade57>



<그림 3-4> 1900년도 제물포 평면도

자료: 한수당 연구원 <http://blog.naver.com/hahnsudang>

2) 근대 문화의 토양 형성

당시 한국의 개항장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여 일본조계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다. 제물포항 또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다른 개항장인 부산 및 원산과 비교하여 보면 각국조계가 형성된 이후로는 공동조계로서의 성격

5) 김용하, "인천의 성장과 도시계획," 『배다리 또 하나의 인천: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 (사)도코모모 코리아, (서울: 하나, 2010) pp. 28-9.

이 강하게 나타났던 개항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물포항은 국제적 교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서양의 근대문화를 수용하는 제1의 관문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인 거주지 지역 중 배다리 지역은 전통문화와 근대문화의 접변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 중 하나이다.

① 한국 기독교 교육의 산실

1890년대부터 미국 북감리회가 이 지역을 조선의 선교기지로 삼아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문화적 접변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⁶⁾ 선교활동을 위해 선교사 조원시(존스)는 우각리 38번지와 42번지 일대에 에즈베리 목사관을 건축하였고, 이후 우각리 40, 42번지 일대에 남녀선교사 기숙사를 건축하여 배다리 지역을 선교활동의 주춧돌로 삼았다. 또한 이 선교기지는 1900년 순 한글로 쓰인 한국 최초의 신학 잡지 『신학월보』를 발행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배다리 지역은 한국 기독교의 산실이며 한국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세워진 역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근대 극장문화 수용

한국인 주거지에서 형성된 한국인 사회는 물밀 듯 밀려들어오는 서양 근대문화와 접촉하며 이를 수용해나갔다. 최성연의 『개항과 양관역정』(1959)에 나타난 선교사 조원시(존스)의 회고를 보면 "1900년에 들어섰을 무렵 이미 인천에는 상설극장 2개소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고일의 『인천석금』(1955)에서는 이 극장이 조선의 전통 연희, 민속놀이, 민속예술 등뿐만 아니라 가수와 배우들이 새로운 민요들을 공연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⁷⁾ 이는 배다리 지역이 근대적 상업도시로 변모하며 최초의 근대적 유흥문화를 수용하였으며, 조선인 사회에서도 근대적 극장문화가 출현했던 것임을 보여준다.⁸⁾

③ 근대교육과 독립운동의 시발점

배다리 지역은 한국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배다리 지역에는 개항기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최초의 사립 초등학교인 영화초등학교와

6)이성진, "우각리로 들어온 근대문화-역사적 의미와 가치성,"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 (인천: 작가들, 2009), pp. 39-40.

7)고일, 『인천석금』 (인천: 경기문화사, 1955), pp. 97-8.

"당시에는 『남사당패』 또는 『굿중패』 라는 민속가요와 연예가 흥행계의 첫손 사락을 쥐었었다. 인형극 『박첨지』, 『흥부놀부』 도 있었고, 『땅재주』 와 『줄타기』, 『무등타기』 승무도 있었고, 『성주푸리』 의 구한말가요가 '광대'라는 가수와 배우에 의하여 출연되었던 것"

8)이희환(2003), 앞에 든 책, p. 238.

인천 최초의 공립초등학교인 창영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1892년 4월 설립된 영화초등학교는 한국 최초의 여대생 김애리시, 최초의 여성박사 김활란, 이화학당 이사장 서은숙, 이화여대 사범대학장 김애마, 이화여대 음대학장 김영의, 영화배우 황정순, 노동운동의 대모 조화순 등을 배출한 한국 여성 교육의 산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 사회에서의 근대교육은 애국심 고취와 애국자강 사상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1907년 개교한 창영초등학교(당시 인천공립보통학교)는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하였다. 1919년 3월 6일, 창영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이 주축이 되어 인천 공립상업학교 학생들과 만세시위를 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인천지역 학생과 기독교인들의 만세운동, 개항장 주변 조선인 상점의 철시항의, 황어장터 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배다리 지역이 교육을 통해 의식 있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주성을 심어주었으며,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더 나아가 해방 후에도 이 같은 문화적 토양이 영향을 미쳐 『문예탑』, 『동화세계』 등의 국내 최초 문예지가 발간되었으며⁹⁾, 배다리 지역의 많은 문학인들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역민들로 인해 현재의 배다리 현재방 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경인철도의 부설과 도시공간의 재편

(1) 경인철도의 부설과 상공업도시로의 변화

경인철도는 1899년 9월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개통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지만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인천을 포함한 경인지역의 지역 구조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¹⁰⁾ 경인철도의 건설로 주요기관이 서울로 이전되었고, 대일무역의 중심이 부산으로 이전 되며 인천은 점차 서울의 관문 혹은 서울의 배후지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후 인천은 점차 상공업도시로 변화하게 되며,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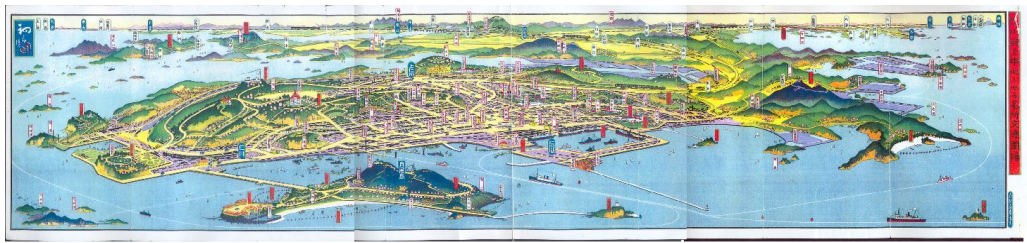
배다리 지역은 각지에서 몰려든 한국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섰다. 1917년 '조선인촌주식회사'가 연간 7만여 상자¹¹⁾의 성냥을 생산하면서 '성냥촌'이라고

9)정진오, "살아 숨 쉬는 인천 배다리," 『플랫폼』 20, 2010, p. 86.

10)이영민, "경인선 철도와 인천의 문화지리적 변화," 『인천학연구』 4, 2005, p. 400.

11)당시 국내 성냥 소비량의 20%

불릴 만큼 성냥제조업이 성행하였으며, 남보원의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란 노래가 나온 배경이 되었다. 또한 간장, 된장, 양조 제조 산업이 활발하였다. 현재에도 이 당시 쓰이던 창고건물과 양조공장의 건물이 배다리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많은 공장 and 산업시설이 자리했던 중구와 동구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수출을 담당하는 공업지대로 발전하게 됐다.



<그림 3-6> 1930년대 인천조감도

자료: 형파니의 삶 <http://blog.daum.net/alzade57>

(2) 도시공간의 재편

철도부설은 인천과 서울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며 산업시설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공간적으로는 도시가 더욱 차등적으로 분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미 외국인 조계지와 한국인 거주지가 나뉘어 있었지만 경인철도 개통을 계기로 저습지와 산으로 이루어져 면적이 협소한 동인천역 북측은 한국인 가옥이 더욱 조밀하게 들어섰으며, 남측의 외국인 조계지는 중구 지역까지 밀려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수도국산¹²⁾ 일대에 1920년대 후반부터 저소득층 노동자 밀집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3) 노동운동과 노동문학의 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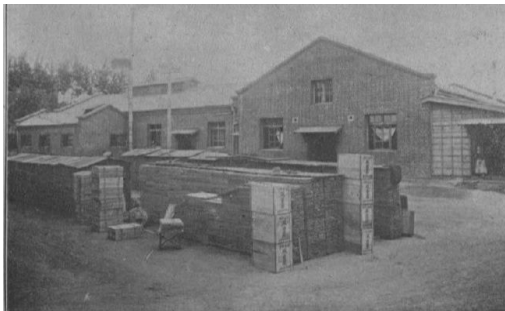
1886년 동구지역에 최초의 공장이 들어선 이후 동구지역에는 9개 이상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배다리와 인근지역은 일제 강점기부터 공업지대의 역할을 하였으며 해방 이후와 산업화시기를 거쳐 인천은 우리나라 경공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치하에서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고, 때문에 1920년대 들어 많은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조선인촌주식회사의 경우 가혹한 노동환경으로 여공들의 노동파업이 자주 발생하였다. 조선인촌주식회사와 인천항 주변 정미공장의 여공들의 파업은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하여 1930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당시 조선

12)'수도국산'이라는 이름은 인천의 식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송현 배수지'를 관장하는 '수도국(水道局)'에서 유래하였다.

인촌주식회사의 동맹 파업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32번지로 배다리지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¹³⁾

이러한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삶은 당시에 쓰인 많은 노동문학에서 소재로 다루어 졌다. 개항이후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공업화로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일제치하에서의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지역의 식민지 근대화의 모순을 그려낸 강경애의 『인간문제』, 인천 도시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려낸 엄홍섭의 『새 벽바다』 등에서 당시 인천지역 노동환경과 노동자들의 삶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인천을 배경으로 한 노동문학은 1970~80년대까지 이어져온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정화진의 『씻물처럼』 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인천 및 인천동구 지역은 식민지 시대 힘겨운 노동자들의 삶이 이어진 장소이며, 1980년대까지 맥락이 이어져온 노동문학의 시발점이 된 장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 자료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은 한국 산업화 초기 노동자들의 삶과 문화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하며,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림 3-7> 1930년대 조선인촌주식회사 전경
자료: 이성진 블로그 <http://blog.daum.net/duruhana/>



<그림 3-8> 조선인촌주식회사의 여공들
자료: 그매를 아십니까? <http://cafe.naver.com/mamj8836>

3.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서민 주거지 형성

광복 직후 귀향한 동포들과 한국전쟁 이후 많은 피난민들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거주지였던 중구와 수도국산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 피난민들은 환경이

13) 인하대학교,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8), p. 150.

14) 이희환, "근대화와 산업화, 노동자들의 삶터-배다리 일대의 산업화와 노동운동,"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 (인천: 작가들, 2009b), pp. 70-91.

열악한 수도국산 지역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이들은 중구 즉, 배다리 지역에 터전을 잡아 나갔다고 한다.¹⁵⁾ 배다리 지역 주변으로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과도 연관이 깊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지역민들이 노점을 차리면서 당시 그 수가 약 50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점상들은 배다리 철교, 창영동 꿀꿀이죽 골목¹⁶⁾, 영화학교 철길까지 이어졌고 배다리 지역(금창동) 북서쪽 지역인 화평동과 만석동까지 퍼져나갔다. 이를 기반으로 배다리 시장(현 중앙시장), 답동시장, 송월동시장, 송의시장, 송림시장 등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1910년대부터 번성했던 배다리 시장 일대 즉, 창영학교 앞길에서 배다리를 지나 중앙시장으로 연결되는 이면도로는 가장 변화한 곳 중 하나였다. 지역민들이 옷가지와 술, 과일 등을 내다팔기 시작하면서 배다리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었고, 서민들이 책을 사고팔면서 배다리 헌책방 거리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배다리는 유랑극단이나 떠돌이 약장수 등이 자주 찾아 당시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⁷⁾ 1960년대에 중학교 시절을 배다리 지역에서 자란 시인 김윤식에 따르면 통행이 잦았던 배다리 지역에서 개인업자가 주관한 고래와 상어 전시회가 열렸을 정도로 배다리 지역은 활기찬 변화가였다고 한다.¹⁸⁾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수도국산 달동네는 2001년 '송현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불량주택 1780동을 철거하고 3000여 가구의 주공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아파트촌으로 변모하였다. 현재는 철거현장에서 수집한 물품과 표지판, 문짝 등을 모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서민 주거지였던 배다리 지역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때는 40여 곳의 헌책방들이 밀집해 있던 배다리 헌책방 골목에는 아벨·한미·창영·삼성·우리서점 등 10여 곳만이 남아 헌책방 골목을 지키고 있다.¹⁹⁾

15) 아벨서점 곽현숙 대표 인터뷰 내용 (2012년 7월 30일).

16) 현재 금창동은 금곡동과 창영동이 통합된 행정동이다. 금창동의 동측에 해당하는 당시의 창영동 지역은 꿀꿀이죽 골목으로 유명하였는데, 꿀꿀이죽은 미군들이 먹다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손질하여 팔았던 음식이다. 당시 이 지역 피난민들과 노동자들은 끼니를 위해 꿀꿀이죽을 찾았으며, 때문에 창영동 골목에 꿀꿀이죽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17) 이희환, "오래된 서민들의 삶의 터전-배다리 일대의 문화와 풍속,"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 (인천: 작가들, 2009c), pp. 48-60.

18) 김윤식, "배다리에 관한 몇 가지의 기억들,"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 (인천: 작가들, 2009), pp. 91-4.

19) 이희환(2009c), 앞에 든 책, pp. 65-6.



<그림 3-9> 1940년대 배다리 시장의 모습

자료: 인천의 어제와 오늘 <http://blog.naver.com/kkkk8155>

4. 근·현대 서민의 삶과 도시 역사의 산실, 배다리

이와 같이 배다리 일대는 과거 구도심의 상징이자 한국 근현대의 시발점과 같은 곳이다. 또한 이곳은 식민지 시대의 외세에 저항하며 한국인들이 자주적으로 한국인 사회를 형성해 나간 곳이며, 해방과 전쟁 전후 서민들이 그들의 삶을 이어갔던 땀과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갖는 배다리 지역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배다리 지역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서구의 근대문화가 만나 한국 근대문화의 토양을 형성한 장소이다.
- 교육을 통해 자주성을 갖춘 지식인들을 배출하였으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장소이다.
- 많은 노동자들의 삶터였으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배경으로 자리하던 장소이다.
-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왔으며, 현재도 이와 같은 지역성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다.

제2절 계획 여건 분석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서의 배다리

(1) 4거점 4축 계획



<그림 3-10> 4거점 4축



<그림 3-11> 내항거점

자료: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icweb/>

4거점 4축 계획은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로서 내항과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문화, 환경, 산업, 경제,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내항거점, 부평거점, 주안·구월거점, 가정거점 등 도시재생 4거점과 경인전철,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경인고속도로 등 4축 등으로 나눠 새롭게 조성하고자 2009년 발표한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불균형 성장을 예방하고 구도심의 중심지 기능을 재창출하기 위해 2005년에 수립한 1거점 2축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구상을 4거점 4축의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표 3-1>과 같이 배다리지역이 속해있는 내항 거점에는 해양·역사·문화·관광지 등이 건립되고 주안·구월거점은 업무, 미디어, 디자인 등으로 나눠 재생되며 부평거점에는 풍물축제현장과 첨단제조업 등이 들어서고 가정거점에는 스포츠와 문화교류 중심의 도시가 개발된다. 또한 경인전철 주변은 전체 도시재생의 핵심 축으로 인천 지하철 1~2호선 주변을 신성장축, 경인고속도로 일대는 준·공업 지역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생축 등으로 조성되는 등 지역별 개발이 추진된다.

<표 3-1> 인천광역시 4거점 4축 사업내용

4 거 점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의 목표	내항거점	도심권 재생거점 (역사, 해양, 문화, 관광)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	부평거점	동북권 재생거점 (풍물축제, 첨단제조)
	인천내항과 경인고속도로축, 경	주안·구월거점	동남권 재생거점 (업무, 미디어, 디자인)
	인천철축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가정거점	서북권 재생거점 (스포츠, 문화교류)
4축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의 목표 실현 을 위한 도시활동과 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	도시재생1축	세계수준의 도심
		:경인전철 주변	전체도시재생의 핵심축으로 육성
		도시재생2축	생활권별 중심가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 심축으로, 거점, 축 및 그 주변지 역을 포함하는 범위	:1호선 주변	생활권단위 기반시설 확충
		신성장축	신성장거점 육성
		:2호선 주변	강화·융진 활성화
		산업재생축	신개념 복합산업단지 육성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별 신성장동력 창출

자료: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icweb/> (인천광역시 4거점 4축 사업내용을 표로 재구성)

그 중 배다리 지역이 속한 내항거점은 신포~월미 상정보행축 조성사업, 월미 은하레일 사업, 동인천역 주변 도시 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중 신포~월미 상정보행축 조성사업, 월미 은하레일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 반대 및 산업도로 건설의 문제점 등으로 추진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는 6개 지구로 나뉘어 각 구역에 맞는 개발 방식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배다리 지역의 경우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상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아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²⁰⁾

(2)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난 2008년 6월 동인천역 주변지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전체지구는 31만 247㎡로 2098가구를 헐고 45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는 계획이었다. 총 6구역으로 나뉘었으며, 배다리 지역은 2구역에 속해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방식과 개발주체에 대한 주민의견이 엇갈리고, 인천시의 재정이 악화되며,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던 재개발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지구지정의

20) 오민근, "배다리 역사문화마을과 문화지구 지정에 관하여," 『인천 지역·미술·문화 비평지, 시각』 (2012년 3, 4월), pp. 32-42.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하여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12년 5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역별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배다리 지역이 속한 2구역 및 3, 5구역은 공공시설 정비 등의 방식을 선택해 지구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으며, 6구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지구지정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한 반발과 배다리 지역 보존에 대한 문제, 인천시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자료: 코리아리포트, 신대성

(3) 산업도로 건설 사업



<그림 3-13> 산업도로 조성 구간 현황

인천시는 1998년부터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중앙지점에 위치한 배다리에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총연장 2510m, 폭 50~70m, 총사업비 1,206억원) 개설공사를 계획하여 왔다. 이 산업도로의 개발 목적은 인천광역시 교통망 계획의 남북축에 속하는 남북고속도로로서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남북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구 도심지 도로망 확충에 따른 교통 분산으로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 확보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그림 3-13>과 같이 모두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1, 2, 4 구간의 공사는 보상과 시공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배다리를 관통하는 3구간은 지역주민의 반발, 산업도로 사업 타당성 부족 및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다리 구간 산업도로를 지하화하기로 함으로써 갈등이 완화되어 배다리 지역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하화 되는 도로와 건설 완료 도로와의 연결문제로 인해 배다리 구간(제 3구간) 반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이 다시 지상화 되어야 한다는 계획으로 선회되어 시민 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림 3-14> 배다리 구간 산업도로 공사 현장 현재 현황

(4)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계획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교육박물관' 건립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박물관의 위치에 관해 강화도에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천 동구 즉, 배다리 지역 창영초등학교 구관에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천교육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창영초등학교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다리가 우리나라 신학교육과 초등교육의 시초이며, 창영초등학교 구관이 갖는 건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²¹⁾

이와 같이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계획은 현재 위치 지정과 마스터플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그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 방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21)이환직, "인천교육박물관 부지선정 '갑론을박'," 『인천신문』 (2012년 4월 19일).

(5) 배다리 역사문화지구 지정 사업



<그림 3-15> 배다리 역사문화지구 지정 사업 범위 (동구청 측 범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구 금창동 일대 66,590㎡ 규모로 배다리 역사문화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시민모임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배다리 주민·상가 대책위원회, 중·동구 관통 산업도로 무효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배다리 주변 일대를 역사·문

화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행된 사업이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인천 시민들은 물론, 배다리 주민들과 타 지역 주민들,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 총 5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운동과 배다리 책방거리 보존 및 에코뮤지엄(역사문화마을) 조성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받아들여 2011년부터 용역비 약 2600만원을 투입하여 배다리 지역의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보고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건축물을 활용·관리 방안,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한 마케팅 방안, 책 관련 박물관 및 공방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²²⁾ 둘째, 지역사회의 생활사적 가치 및 주민 간 기본적인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²³⁾ 문화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민설명회를 전체 과업 수행기간 4개월 중 셋째 달 하순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셋째, <그림 3-15>와 같이 산업도로 건설 예정 부지를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는 산업도로 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용역수행 연구소 및 동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²⁴⁾

22) 오민근, 앞에 든 책, pp. 32-42.

23) 유승희, "인천 배다리 문화지구 '갈 길 멀다'," 『인천신문』 (2012년 3월 21일)

24) 오민근, "배다리 역사문화마을과 문화지구 지정에 관하여," 『인천 지역·미술·문화』

2. 배다리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

(1) 산업도로 건설 반대 운동 및 시민단체의 활동

1) 배다리를 가꾸는 시민 모임



<그림 3-16> 배다리를 가꾸는 시민모임의 산업도로 건설 반대 운동

자료: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 시민모임



<그림 3-17> 배다리 문화 축전 에코파크 개장 모습

자료: Stop n Look Photographs

2006년 말부터 현책방 골목에서 아벨서점 주인 곽현숙 대표, 박의상실 박태순 대표와 여성주민, 3인이 처음으로 산업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노력이 시발점이 되어 2007년 '배다리를 지키는 인천 시민 모임'이 발족하였다. 이 때 주민들은 배다리 지역의 역사 환경, 역사 문화재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산업도로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²⁵⁾ 이후 '배다리를 가꾸는 시민모임'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활동 중이다.

또한 지역 내 예술단체인 스페이스빔과 함께 '배다리 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주민 내부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주민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언론에 배다리 산업도로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시위로 산업도로 건설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인천시와 주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산업도로 공사는 중단 및 재개를 반복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 감사원이 산업도로 건설 강행은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자, 인천시는 산업도로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으로 선회하였고, 갈등이 완화²⁶⁾되었다. 현재는 주민 및 시민 모임 회원들이 산업도로 중단 부지를 일시적으로 텃밭 및 각종 행사진행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비평지, 시각』 (2012년 3, 4월), pp. 32-42.

25) 강동진, "인천 배다리지역 재생을 위한 이슈 탐색," 『배다리 또 하나의 인천: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 (사)도코모모 코리아, (서울: 하나, 2010) p. 49.

26) 같은 책, p. 49.

2)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위원회



<그림 3-18> 배다리 역사문화 마을 지도

자료: 스페이스범



<그림 3-19> 문화축전 당시의 모습

자료: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 시민모임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배다리 에코뮤지엄(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문화축전 당시의 주제를 '배다리 에코파크'로 설정한 것을 시작으로 '배다리를 가꾸는 시민모임'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산업도로 건설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반대운동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개발 만능주의 사고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가치와 삶의 형태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 자산이나 요소, 문화공간이나 시설, 행사 등으로 밀도 있게 채우는 마을이 아니라, 하나의 마을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 속에서 시대정신을 일고 실제 삶에 접목 및 적용시켜보려는 노력이 활발한 마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나온 삶의 방식과 형태 및 요소들이 지닌 가치와 특성, 매력 등을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는 거점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지향한다.²⁷⁾

현재는 구청 측에서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받아들여 배다리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그 내용과 과정상에서 시민단체와의 의견 대립이 있어 앞으로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7) 민운기, "배다리 문화지구 지정 제안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인천 지역·미술·문화 비평지, 시각』 (2012a년 3, 4월), p. 29.

3)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



<그림 3-20> 배다리 지역 골목길 모습

자료: 차준호, 2012

<그림 3-21>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모습

자료: 차준호, 2012

배다리 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1960년대에 지어졌으며, 몇몇 주택은 수년 동안 주택소유자가 수선 없이 방치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은 골목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장소 등으로 바뀌며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동구청 측에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 기업' 나누리 건설'과 공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2012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가꾸기 공동체, 구청, 사회적 기업이 폐가를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²⁸⁾ 또한 동구청은 박경리 선생이 배다리 지역에서 헌책방을 운영했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박경리 선생이 살았던 미음(口)자 모양의 주택과 유사한 빈 집 한 채를 개조하여 2013년 3월 '박경리 북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²⁹⁾

이 사업은 동구청 측의 정책수립과 사업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나,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배다리 지역에서 구청 측이 정책변화를 보인 것은 그동안의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위 사업은 주택소유주, 지역주민, 사회적 기업이 실행 주체가 되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8) 차준호, "버려진 폐가가 어려운 이웃들 '보금자리'로", 『동아일보』 (2012년 11월 20일).

29) 심혜진, "대하소설 '토지'의 박경리 선생이 배다리에서 헌책방 연 사연", 『부평신문』 (2012년 11월 13일).

(2) 지역 문화단체의 문화 활동



<그림 3-22> 지역 문화단체 및 시설의 위치

1) 배다리 역사 전시관: 아벨서점 전시관

아벨서점은 쓰이지 않는 오래된 건물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배다리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옛 교과서, 옛 책, 시집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소설가 박경리 선생³⁰⁾과 관련된 물품들도 전시하고 있으며, 아벨서점 곽현숙 대표가 직접 지역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다. 때문에 주변 중·고등학생들의 답사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낭송회, 출판회 등과 같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의 시민모임도 다양하게 열리는 장소이다.

30) 배다리 지역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 가족이 살았던 곳이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금곡동 59번지에 살았으며, 배다리 시장에서 헌책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인천 배다리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마르크스, 바쿠닌 등 사회주의 서점등과 다양한 소설들을 접하면서 역사의식을 깨쳤다고 한다. 남편 김행도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장소로 금곡동 즉, 배다리 지역을 꿈꿀 정도로 배다리 지역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3> 아벨서점 전시관 외부 모습



<그림 3-24> 아벨서점 내부 모습

2) 문화단체: 스페이스 빔

1996년 70년간의 막걸리 생산을 중단하고 청천동으로 자리를 옮긴 양조장 건물을 2007년 스페이스빔이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문맥을 고려한 활동³¹⁾을 통해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도로 부지를 활용한 도시캠핑,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지역의 맥락을 반영하는 레지던시 작가 프로그램 등을 주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산업도로 부지를 활용한 '배다리 에코파크' 조성, '배다리 문화축전' 기획, '역사문화마을 조성' 등에 앞장서며 지역 공동체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25> 스페이스 빔 외부 모습



<그림 3-26> 스페이스 빔 내부 모습

31) "스페이스빔 커뮤니티," <http://www.spacebeam.net/aboutus> (검색일: 2012년 8월 23일).

3) 책방: 나비 날다

환경활동가인 '나비날다' 대표가 도시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배다리 지역에 조성한 생활문화공간이다. 초기에는 금곡로의 현책방거리에 책방을 열었으나 현재는 옛 조흥상회 건물로 이전하여 더 넓은 공간을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열고 있다. 책방, 북카페, 벼룩시장, 유기농 먹거리 판매, 뜨개질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점심마다 모여 함께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27> 나비날다의 외부 모습



<그림 3-28> 나비날다의 내부 카페 모습

4) 사진관: 마을 사진관 다행

사진관의 역할과 함께 주민과 방문객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사진가 분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담은 지역의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신문 '우각로 신보'에 담아 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계를 맺고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자 하며, 지역의 생활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5) 나무 공방: 풍경너머 또 다른 세상

지역공동체 공공사업을 진행 중인 공방이다. 지역 아이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예 수업과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재는 집수리, 공예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도원역 걷고 싶은거리 주변에 설치될 석판 그림을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작업 중이다.



<그림 3-29> 마을 사진관 다행



<그림 3-30> 풍경너머 또 다른 세상

6) 갤러리

현재 배다리에는 사진공간 배다리, 한점 갤러리, 띠 갤러리, 낙화민화 공방 등 4곳의 갤러리가 조성되어있다. 4곳 모두 작은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잘 살려 갤러리 내부 공간을 디자인하였으며, 작가들에게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갤러리 공간을 빌려주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림 3-31> 사진공간 배다리



<그림 3-32> 띠 갤러리



<그림 3-33> 한점 갤러리

3. 대상지 물리적 여건 분석

(1) 도시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1) 도시구조

개항기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구릉을 따라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자연발생적 가로구조를 보인다. 현재의 가로구조는 대부분 1890년대 개항 직후부터 1930년대에 형성되어 자연적으로 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지의 큰 골격을 이루는 금곡로, 우각로, 금창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로는 폭 5m 이내로 차가 한 방향으로만 지나다닐 수 있거나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사도의 형태를 보인다.



<그림 3-34> 1928년도 인천부지도와 비교한 가로망



<그림 3-35> 대상지 골목길 모습

2) 토지이용 및 건축물 이용 현황

대상지는 <그림 3-36>과 같이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제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시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2층 이하의 건축물로 구성되어있다. 창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대부분을 저층 2종 일반주거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우각로와 현책방 삼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가로의 전면으로는 일반상업시설 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주거지는 84%가 단독주택의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6%가 다세대 주택이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도시형한옥의 형태를 보이며,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있다. 상업시설은 전체 176개의 상업시설 중 문구 및 서점 도·소매 업종이 36개로 약 2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현책방거리와 우각로 및 금곡로에 위치하여 있다.³²⁾ 그러나 현재 상업시설의 대부분이 위치한 우각로 및 금곡로 지역도 상권이 침체되어 공실이 있는 상업건물이 8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대상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상권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1920~40년대, 1950~60년대, 1970~80년대 지어진 다양한 구조의 건축물이 혼재하여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32)"소상공인진흥원," <http://www.seda.or.kr/> (검색일: 2012년 10월 11일).



<그림 3-36> 대상지 토지이용 현황



<그림 3-37> 금곡로에 위치한 문구도매상



<그림 3-38> 노후한 도시형 한옥

(2) 도로 및 교통 현황

1) 차량 접근성

경인고속도로 가좌 IC와 이어지는 송림로와 도화 IC와 이어지는 참외전로를 통해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위의 간선도로와 이어지는 2차선 도로인 금곡로를 통해 대상지의 중심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하나 도로 폭이 좁고, 이 도로의 전면에 위치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정차로 인해 도로의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가로가 폭 5m이내 이거나 사도로 이루어져 차량으로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를 접근성에 대한 위협요소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유리하며, 방문객의 도보 방문을 권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요소로 삼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대중교통 접근성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가까이 위치하여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지의 대표적 역사자원이 모여 있는 우각로로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최근 '셋골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통해 도원역에서 배다리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대상지를 지나는 2, 15번 버스는 인천 구도심의 역사 유적(차이나타운 및 일본조계지)을 거쳐 배다리 지역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해당 노선을 통해 근접한 인천 구도심의 역사문화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 3-39> 셋골로 걷고싶은 거리



<그림 3-40> 도원역에서 바라본 셋골로 걷고 싶은 거리



<그림 3-41> 대상지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 현황

4. 대상지 주요 쟁점 사항

- 산업도로 지상화 구간 계획으로 인한 갈등 재 점화

2008년 산업도로 건설이 전면 중단되며 지하화 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일부 구간이 지상화 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계획에 있어 산업도로 부지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인한 주민 내부 간 갈등의 전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와 현안유지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대안제시에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역사·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 대립

역사문화지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그 내용에서 의견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시한 안과 시민단체의 안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계획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 지역 쇠퇴에 따른 개발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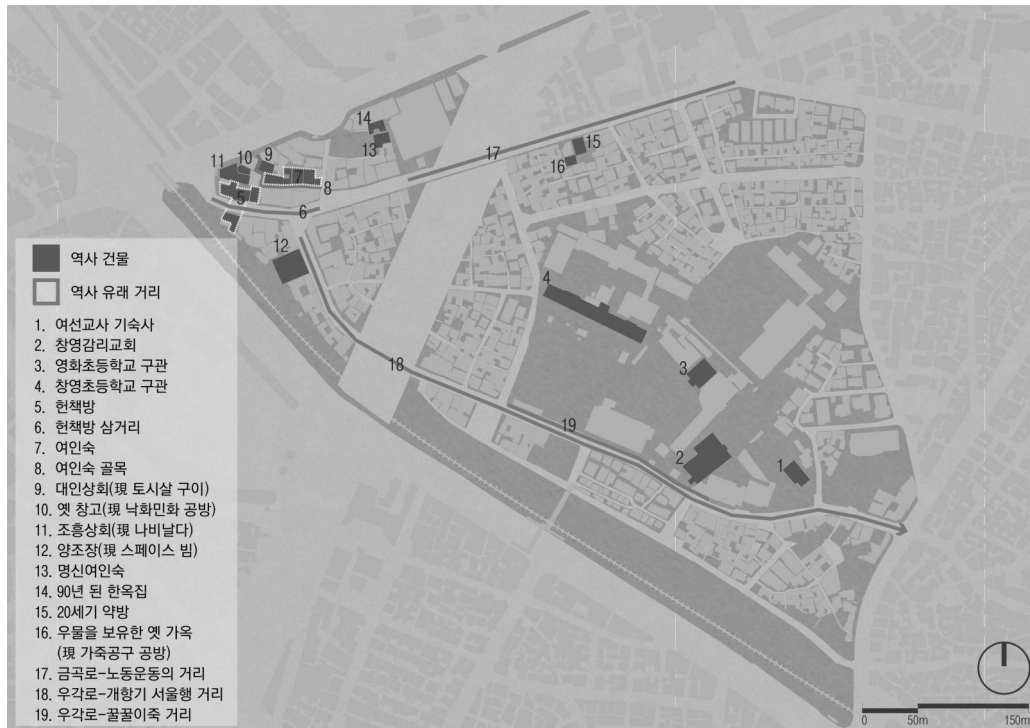
노후한 주택가와 침체된 상권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전면재개발 방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 시민단체 및 문화단체의 활발한 활동

배다리 지역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문화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역계획 시 이들과의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대상지 지역 자원 분석

제1절 역사 자원



<그림 4-1> 역사 자원의 위치

1. 개항기 서구 문물 유입에 따른 자원 형성

배다리 지역은 19세기 말 개항 이후의 역사문화 유적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있어 인천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린다.¹⁾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의 첫 번째 활동장소로 배다리 지역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벌였고, 그 흔적인 여선교사 기숙사 건물²⁾이 남아있다. 또한 선교활동의 시발점이며 근대교육의 요람이기도 했던 이 지역에는

1) 한동수, "인천 배다리의 근대건축과 경관,"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 (인천: 작가들, 2009), pp. 91-4.

2) 19세기 말 미국 감리교회가 파견한 여자 선교사들의 합숙소로 쓰이던 건물로 근세 북유럽의 르네상스 양식과 전통양식과의 결합을 시도했는데 예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93년 7월 6일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영화초등학교의 본관³⁾과 창영초등학교 구교사⁴⁾가 있다. 이 두 건물 모두 1900년대 초반의 근대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 영화초등학교 본관은 현재에도 학교 건물로 쓰이고 있고,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어 실제로는 쓰이지 않고 있다. 배다리 지역은 근대 개항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한국인들의 주거지로 형성되어 갔으며 도시조직의 큰 틀이 잡혔는데, 이때 형성된 주요 도로가 우각로이다. 우각로는 당시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였기 때문에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각로를 활발히 이용하였다. 때문에 우각로는 배다리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활성화된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해방이후에도 우각로를 따라 시장과 상업 활동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림 4-2> 여선교사 기숙사



<그림 4-3> 영화초등학교 본관



<그림 4-4>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그림 4-5> 우각로

- 3) 한국 최초의 서양식 학교이며 내리교회 제 2대 목사인 존스 목사 내외에 의해 건립되었다. 1910년에 착공하여 1911년 완공되었다. 재래식 적 벽돌을 사용한 벽돌구조이며 각각의 건물방향으로 독립된 방공형식의 건물양식을 보여준다. 2001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39호로 지정되었다.
- 4) 한국 최초의 공립 교육기관이다. 1907년 4월 보통학교령 제 4호에 의해 인천공립보통학교로 세워졌다. 현재의 구교사는 1922년 낡은 건축물을 헐고 현재의 규모로 지은 것이다. 붉은 벽돌로 지어졌으며 현재까지도 현관 복도 난간, 기둥 등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1992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되었다.

2. 한국인 거주지 형성에 따른 자원 형성

외국인조계지 형성으로 산 아래의 내륙지역으로 밀려난 한국인들은 현재의 동구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당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이 어려웠지만 수도국산 지역으로 밀려난 거주민들에 비하면 상업도 발달하고, 물도 풍부한 배다리 지역의 거주민들의 삶은 나은 편이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1920년대 지어진 한옥이 존재하며, 그 구조 또한 건축사적으로 갖는 의의가 있다. 현재 배다리 지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도시형 한옥은 해방이후부터 1950~60년대에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이다.⁵⁾ 따라서 당시의 생활문화를 반영한 구조와 건축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타일 외벽으로 장식한 집, 외벽에 넣은 독특한 문양, 당시의 유행을 보여주는 창틀의 문양 등 도시형 한옥 한 채 한 채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당시 인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금곡로를 따라 당시의 부호가 보유했던 2~3층 규모의 벽돌집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현재 1층이 가죽공구 공방으로 쓰이는 건물은 집안에 우물이 존재하며 옥상까지 이어지는 집의 구조가 매우 독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다리 지역에도 어려운 삶을 이어가던 한국인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러한 생활상으로부터 유래된 꿀꿀이죽거리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창영초등학교 앞 우각로에는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운반하는 차량이 오갔는데, 이를 받아 손질하여 쑵 죽을 판매하는 꿀꿀이죽 시장이 번성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 곳을 꿀꿀이죽 거리라고 불렀으며, 현재에도 이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존재한다.



<그림 4-6> 도시형 한옥 <그림 4-7> 외벽 문양 및 타일 외벽 건물 <그림 4-8> 우물을 보유한 옛 가옥

5) 손장원, "건축은 문화재 생산활동," 『인천일보』 (2008년 9월 30일).

3. 상공업 활성화에 따른 자원 형성

인천 동구는 개항 직후인 1886년부터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건설된 여러 사회간접시설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왔다. 때문에 현재 까지도 이에 얽힌 이야기들과 시설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927년부터 가동한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 '소성주(邵城酒)'를 생산하던 공장은 현재 지역 문화단체 '스페이스빔'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도 '소성주'는 청천동으로 자리를 옮겨 생산되어지고 있으며, 산업도로부지 남측에 위치한 '개코막걸리'에서 이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또한 현재에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1917년에 성냥공장 '조선인촌회사'가 금곡로에 건설되었는데, 당시 배다리 지역의 500여 가구가 성냥갑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번성했던 공장이었다. 하지만 노동환경이 극도로 나빠 당시의 성냥공장 아가씨의 힘든 삶을 재미있게 묘사한 『성냥공장 아가씨』 노래와 1920년 금곡로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파업에 얽힌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전해져온다. 이처럼 배다리 지역은 공장이 많이 들어섰던 지역이기에 이를 지원하는 시설들의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여인숙들은 그 건물 그대로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며 여인숙 골목을 지키고 있으며, 당시 사용했던 창고건물은 황토벽과 나무기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낙화민화 공방으로 쓰이고 있다.

해방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 주거지를 형성했던 배다리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교환하고 판매했던 것을 시작으로 시장이 성업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거상들의 건물인 대인상회와 조흥상회 건물은 그 외벽의 장식부터 당시의 재력을 보여준다. 2층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 건물내부 구조와 건축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건축사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금곡로를 따라 자리한 헌책방거리와 20세기 약방 건물은 당시의 번성했던 상업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배다리는 그 역사적 층위에 따라 형성된 역사자원이 풍부하게 형성된 지역이다. 위에서 밝힌 역사자원은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인정받은 문화재 뿐 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상이 반영된 자원들 또한 포함한다. 단순히 지역을 추억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차원의 자원이 아닌 현재도 사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존재하는 지역이 배다리인 것이다. 배다리는 과거의 삶을 이어 현재도 지역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역사자원과 현재의 삶의 연결고리를 면밀히 파악하여 배다리 지역민

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역사자원의 보존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9> 여인숙 골목

<그림 4-10> 옛 대인상회 건물

<그림 4-11> 옛 창고 건물



<그림 4-12> 현책방 거리

<그림 4-13> 옛 양조장 건물



<그림 4-14> 옛 조선인촌주식회사가 있던 자리의 현재 모습

<그림 4-15> 소성주를 맛볼 수 있는 개코막걸리

제2절 생활 문화 자원

1. 지역민의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원

(1) 동네 텃밭

배다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문화단체 '퍼포먼스 반지하'는 동네 텃밭이 형성하는 경관의 독특성을 발견하고, 2007년부터 동네 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을 환경작업을 실시하였다. 버려지고 방치된 공간까지 마을 텃밭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마을 골목 곳곳에 텃밭과 상자텃밭⁶⁾ 수가 늘어 현재 64가구가 5개 이상의 상자텃밭을 보유하여 가꾸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텃밭을 일구고 있다. (2012년 10월 14일 기준)

주민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이야기⁷⁾를 담아 정성스럽게 텃밭을 일구고 있으며, 텃밭 생산물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의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 즉, 동네 텃밭이 마을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공통분모로 자리하며 삶의 소통과 공유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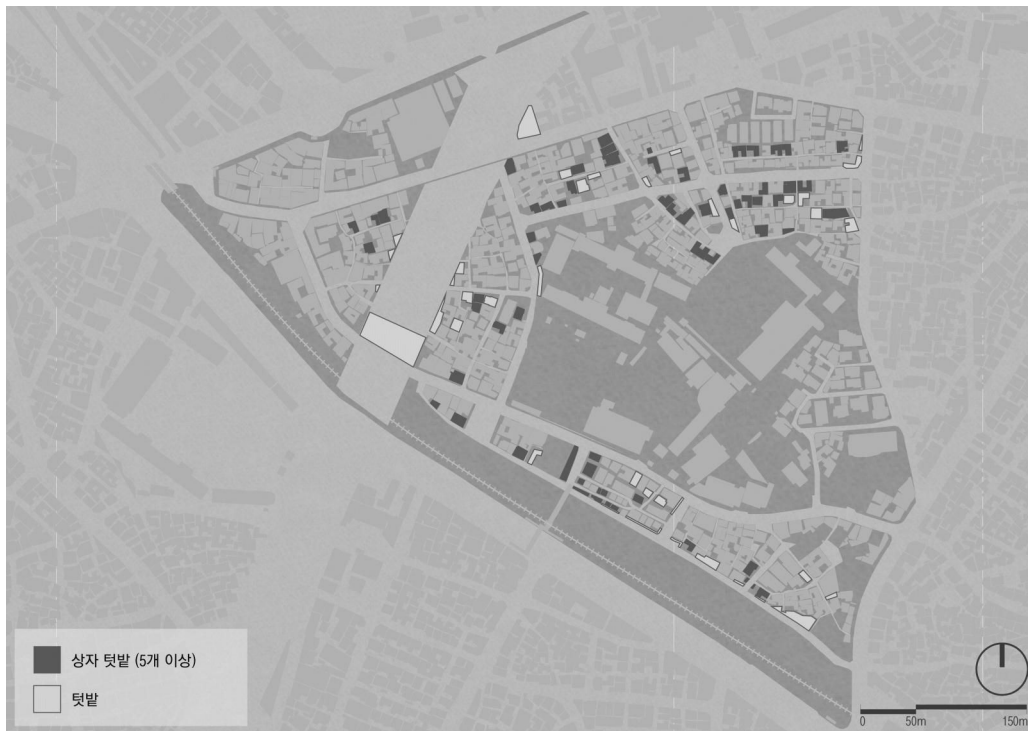
동네 텃밭은 가시적으로도 골목길 경관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마을 대부분이 밀도 높은 주거지와 폭 2m 이하의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어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비춰질 수 있으나, 골목 곳곳에 놓인 텃밭과 상자 텃밭으로 자연의 일부를 재현하여 골목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골목 양쪽의 많은 집에서 상자텃밭을 가꾸고 있는 골목의 경우 주민들 각각의 취향과 애정이 반영된 다양한 초화류, 관목류 및 채소류를 볼 수 있어 배다리만의 개성 있는 골목길 경관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네 텃밭은 좁게는 내 집, 넓게는 배다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들 개인의 생활영역을 넘어 지역 소통의 매개체로서 확장 가능성을

6) 고무대야, 화분, 스티로폼 상자 등 다양한 물품을 활용하여 식물을 기르는 것.

7) 손자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기 위해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내 집 앞 골목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상자텃밭을 가꾸는 아주머니, 동네 주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로 텃밭을 일구는 할아버지, 가꾼 채소로 음식을 해먹는 주민들이 부러워 자신도 남는 상자를 이용해 텃밭을 일군다는 아저씨, 남는 시간에 야채를 키워 깨끗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아주머니, 버려진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나무를 심었다는 아주머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긴 텃밭이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동네 텃밭은 배다리 에코뮤지엄 조성 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시적이며 물리적 요소로서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6> 동네 텃밭 조성 현황



<그림 4-17> 대상지 상자 텃밭 및 텃밭 모습

(2) 공동의 작업과 소통-동네 쉼터

배다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민들의 또 다른 특성은 주민간의 공동 작업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집앞 공터, 동네 쉼터에서 야채 다듬기, 김장 담그기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며, 이웃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약속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아는 주민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즉, 주민간의 공동 작업 활동은 단순히 작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웃들과 이야기 하고, 소식을 나누는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골목골목에서 지나가다 만나는 주민들과 인사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며 함께 협동하는 모습은 주민 공동체의 친밀도가 높음을 보여주며, 마을 공터와 쉼터가 협동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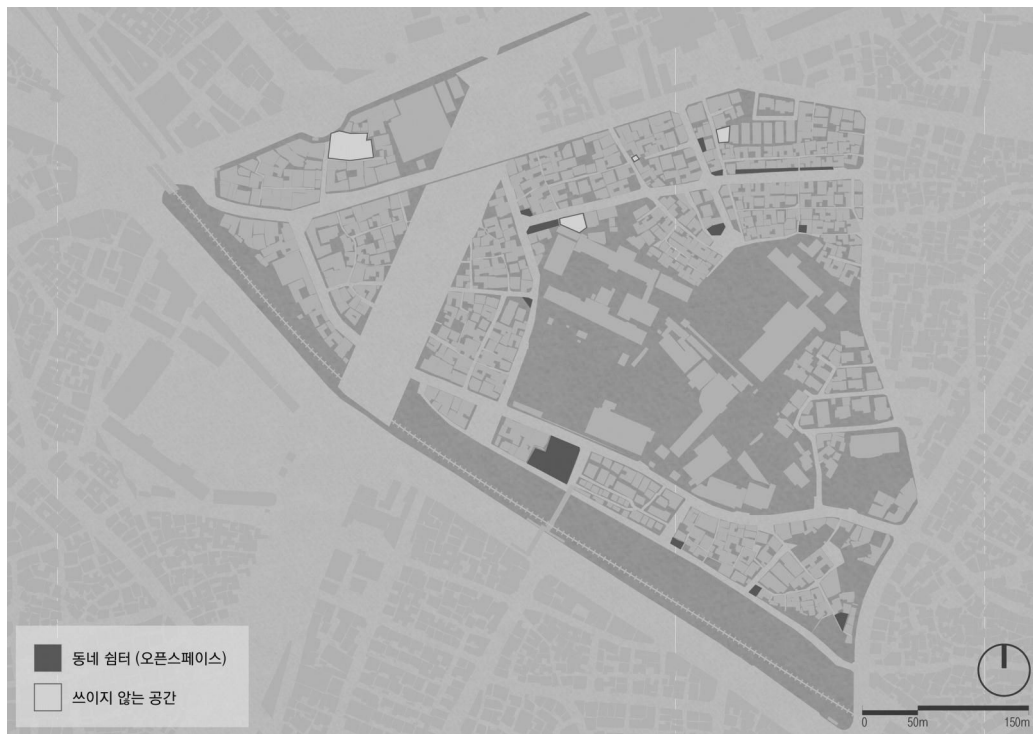
따라서 기존의 돈독한 주민 공동체가 지역의 현안과 계획을 풀어 가는데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며, 동네 주민이 모여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공간인 동네 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대상지 내에는 13개소의 동네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⁸⁾ 에코뮤지엄 조성 계획에 있어 이러한 동네 쉼터를 기반으로 주민 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계획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쓰이지 않고 있어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마을 경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간은 주민들의 활용과 요구에 맞게 조성되어 소통과 협동의 행위를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4-18> 대상지 쉼터 모습

<그림 4-19> 주민들의 공동 작업 모습

8) 각 쉼터별로 지정된 주민 단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4-20> 대상지 동네쉼터 조성현황 및 쓰이지 않는 공간 현황

(3) 저층 주거지의 경관

1) 저층 주거지 조망 경관

대상지는 대부분이 2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곡로를 따라 몇몇의 상업시설만이 4층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대상지 곳곳에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은 배다리 지역의 저층주거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로서 작용한다. 배다리는 개항기와 해방이후 형성된 주거지로 박공지붕과 한옥지붕을 특징으로 하는 가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 4-23> 지도에 표시된 대상지의 조망 포인트에서 이러한 주거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생활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지 역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역 답사를 통해 발견한 조망 포인트들은 공실 혹은 공가로 남아있어 에코뮤지엄 계획에서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간 자체로도 건축사적 가치가 있어 향후 계획 시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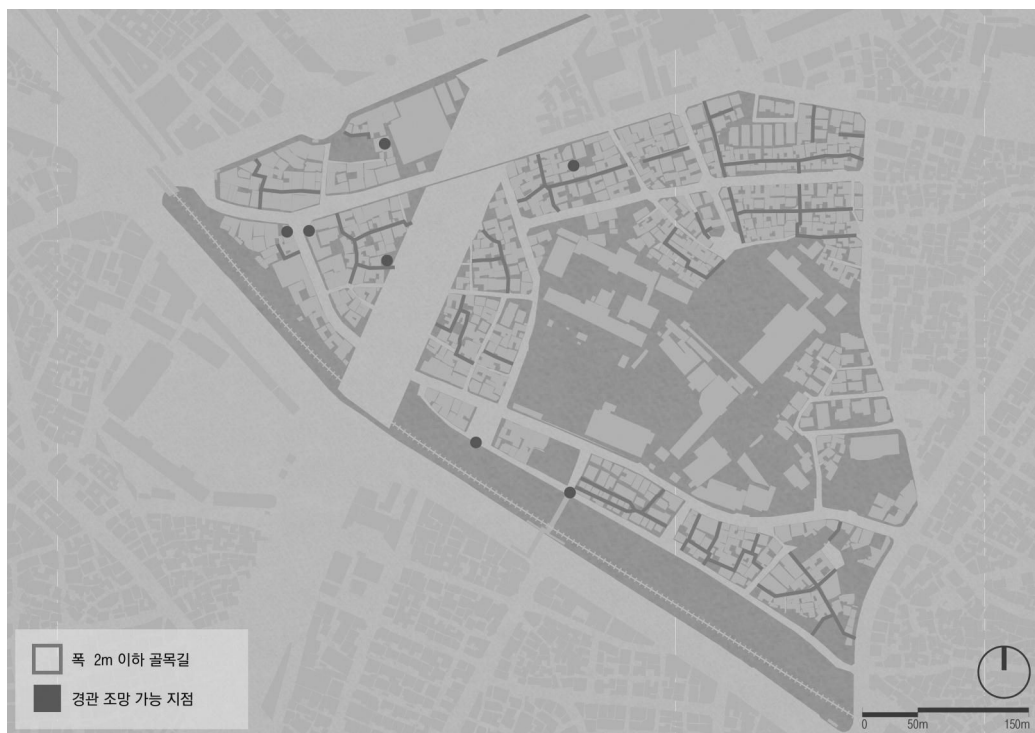
<그림 4-21> 저층 주거지 조망 경관

2) 골목길 경관

대상지는 <그림 4-23>과 같이 폭 2m이하의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골목길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1910년대부터 구릉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지로 인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골목길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퍼포먼스 반지하'의 마을 환경작업으로 다양한 마을 벽화가 조성되어있으며, 골목집들에서 내어놓은 상자 텃밭으로 주민의 취향을 반영하는 개성 있는 경관이 조성되어있다. 또한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생각지 못하게 마주하는 골목집과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 골목길의 구조를 반영하여 조성한 쉼터 등 마을의 숨겨진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골목길 경관은 한 순간에 조성되어 완료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변화하는 경관이다. 주민의 삶이 반영된 골목길 경관은 배다리 지역만의 자원이며, 지역주민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골목길 경관이 지역 방문객에게 마케팅 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의 가치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2> 골목길 경관



<그림 4-23> 저층주거지 경관 조망 가능 지점 및 폭 2m 이하 골목길 현황

2. 문화단체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원

(1) 마을 벽화

현재 대상지에는 <그림 4-24>와 같이 27개 가옥의 벽면과 담장 3곳에 마을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들 벽화는 2007년 문화단체 '퍼포먼스 반지하'가 진행한 '우각로 프로젝트'와 2008년 문화관광부가 지원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계기로 조성된 것이다. '퍼포먼스 반지하'의 활동가들은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공간별 계획을 세워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벽화를 그려나갔다. 단순히 벽을 채워 넣는 벽화의 개념을 넘어 배다리 주민들의 이야기와 개별 건물의 특성을 담은 벽화를 조성하여 방문객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08년 산업도로 건설 반대운동과 맞물려 지역의 현안을 이슈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 지역 사람들이 배다리 지역을 '문화마을'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방문객들이 도원역부터 이어지는 마을벽화를 사진에 담기 위해 배다리 지역을 찾고 있다. 이러한 벽화들은 마을 골목 곳곳에 숨겨져 있어 방문객들

에게 마을 골목의 깊숙한 곳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대상지의 마을 벽화는 지역의 좁은 골목길과 함께 어우러져 배다리 지역만의 골목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것은 지역 자원의 역할로서 타 지역민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24> 마을 벽화 조성 현황



<그림 4-25> 마을 벽화 모습

(2) 역사 건축물의 활용과 가능성

현재 대상지에는 <그림 4-26>과 같이 9개의 문화관련 업종 작업실 및 사무실⁹⁾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단체들이 들어선 건물들 중 역사적으로 의의를 갖는 건축물들도 다수 존재하여 이들 건물을 에코뮤지엄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비날다'의 경우 옛 조흥상회의 건물을 임대하여 수리기간을 거쳐 책방 및 마을카페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배다리 지역 거상의 건물로 2층 벽돌 건축물이며, 독특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비날다'는 이 건물을 수리하여 1층 공간은 책방과 게스트 하우스로, 2층 공간은 북 카페와 뜨개 작업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옥상공간에도 텃밭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옛 건축물의 독특한 구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벨서점 전시관은 <그림 4-28>과 같이 건물의 독특한 지붕구조와 벽돌 내벽을 그대로 살린 채 새롭게 보수하여 헌책방 및 문학 관련 전시 및 행사가 열리는 시다락방을 조성하였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 매달 정기적인 시낭송회 행사와 강의 등이 열리고 있다. 스페이스빔은 옛 양조장 건물을 임대 및 수리하여 공공미술, 지역 공동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옛 공장 건물이기때 내부구조가 매우 독특하며, 이러한 구조와 특징을 유지한 채 수리하여 현재도 양조장으로 쓰였던 공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낙화민화 공방은 일제 강점기부터 창고 건물로 쓰이던 건물을 임대 및 수리하여 공방 및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4-27>과 같이 건물 내부에 당시에 쓰이던 건물 나무 기둥과 황토벽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작가가 직접 건물의 수리 작업에 참여하여 역사적 의의와 건축물의 특징을 살려 리모델링하였으며, 방문객에게 건물의 유래와 의의를 해설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공구 공방은 옛 벽돌식 주택을 임대 및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집안에 우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류층의 가옥으로 건축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단체들은 쓰이지 않고 비어있던 건물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고 쓰임새를 부여함으로써 역사를 과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닌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건축물들을 현재에도 쓰임새 있게 사용할 수

9)나비날다(책방, 마을카페 및 쉼터), 아벨서점 전시관(헌책방, 문학 관련 전시관), 스페이스빔(공공미술), 배다리 사진 공간(사진 전시관), 한점 갤러리, 마을 사진관 다행, 띠갤러리, 낙화민화 공방, 가족공구 공방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역사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되면서 배다리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림 4-26> 공가 및 공실 건물의 현황



<그림 4-27> 낙화민화(옛 창고) 공방의 모습



<그림 4-28> 아벨서점 전시관의 지붕 및 벽돌 내벽 모습

자료: 인천미디어

(3) 산업도로의 새로운 생태계 형성

200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산업도로는 현재 약 4년간 나대지로 남아있다. 2009년 지역 축제인 '배다리 문화축전'이 열릴 당시 축제 기획가들이 중심이 되어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던 산업도로 부지를 '배다리 에코파크'로 명명한 뒤 축제의 장소로 활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 까지 활용되고 있다. 당시에는 축제이후 시청 측에서 축제 때 조성한 조형물,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도로의 공사가 중단되며 2010년 가림막이 모두 철거되었고, 현재는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가림 막을 철거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의 정지작업과 코스모스 씨앗 뿌리기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자연스러운 생태계 형성으로 계절별로 초화류가 만발하는 장소로 탈바꿈 되었다. 이러한 산업도로 중단부지에 지역 문화단체인 '풍경너머 또 다른 세상'에서 원두막을 조성하고, '스페이스 빔'에서 구 청 측에 텃밭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여 2012년 주민들에게 일부 땅을 분양하였다. 현재는 주민들의 드나들음으로 자연스럽게 오솔길이 형성되어 산업도로 부지로 단절되었던 양쪽 마을이 다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단체는 지역 축제와 행사시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림 4-32>, <그림 4-33>과 같이 도시캠핑, 허수아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도로 중단부지의 활용과 생태계 형성은 외부인들이 배다리 지역을 찾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2012년 가을) 코스모스가 만발한 산업도로 중단부지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위해 많은 사진작가와 동호회 사람들이 배다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도로 중단 부지는 문화단체의 창의적인 활용으로 새로운 자연 생태계와 주민공동체의 생태계가 진화하는 장소로서 거듭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다양한 행태와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그림 4-29> 2010년 가림막 철거 공사 <그림 4-30> 2012년 8월 산업도로 공사 부지 <그림 4-31> 2012년 9월 산업도로 공사 부지
자료: 배다리 역사문화만들기 위원회



<그림 4-32> 2012 도시캠핑 모습

<그림 4-33> 2012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모습

자료: 스페이스빔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spacebeam>

(4) 지역축제-배다리 문화 축전

2008년 산업도로 반대 운동을 계기로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게된 지역 문화단체와 주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배다리 문화축전을 개최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총 5회의 배다리 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하였다. 축제의 프로그램도 지역 문화단체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있으며, 헌책방, 막걸리, 꿀꿀이죽 등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과 상자텃밭 분양, 벼룩시장, 장터 등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다루어 배다리 지역의 가치와 의의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5년간의 꾸준한 지역축제 개최로 배다리 문화축전은 지역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공유하는 지역자산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정기적인 지역축제의 개최는 지역의 브랜드를 확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매년 축제를 기획하고 이끌어온 인력과 그들의 노하우는 지역 계획에 있어 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4-34> 2011년 배다리 문화축전 당시 모습

자료: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위원회

3. 지역 방문객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원

(1) 기록과 공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상지는 근대역사자원과 꾸준히 삶을 이어온 배다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자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어우러져 배다리 지역만의 개성 있는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배다리 지역은 독특한 경관을 찾아다니는 사진작가와 사진 동호회 회원들의 출사장소 및 주요코스이다. 또한 회화작가들이 배다리 지역의 경관을 화폭에 담기 위해 나온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근대 문화를 접하려는 여행객들의 주요 코스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영화작가들 또한 도시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배다리 지역의 경관을 배경으로 영화촬영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배다리 지역의 순간순간이 기록되고 또한 이를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배다리의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객들의 활동은 앞으로 지역을 브랜딩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5> 배다리 지역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온 작가의 모습<그림 4-36> 배다리 지역으로 출사 나온 동호회 회원들의 모습

(2) 지식의 네트워크

현재 지역의 문화단체 중 스페이스빔, 배다리 사진 공간, 아벨서점 전시관은 각 공간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빔은 도시환경 관련 강좌, 사진 공간 배다리는 사진 및 인문학 강좌, 아벨서점 전시관은 문학 관련 강좌 등을 개설한다. 때문에 강좌를 들으려는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지역을 찾아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의 가치에 대하여 공유하는 네트워크

가 형성되고 있다. 사진공간 배다리의 경우 정기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한번 강좌를 들으러 왔던 방문객들이 배다리 지역의 경관과 갤러리가 자리한 오래된 건축물에 매료되어 다시 방문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고 한다.¹⁰⁾ 이와 같이 지역을 방문하는 지식인들이 지역의 가치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향후 지역을 계획함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4-37> 스페이스빔 건물에서 열린 ICON Party <그림 4-38> 스페이스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도시학교 강좌

10) 사진공간 배다리 운영직원 인터뷰 내용 (2012년 9월 25일).

제3절 인적 자원

배다리 지역에는 지역의 현황과 맞물려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며, 문화단체들이 존재하여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에코뮤지엄 설립 시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다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에코뮤지엄의 연구 및 자원 발굴, 자원보존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문화단체들과 지역의 풍부한 이야기를 알며 재능을 보유한 지역주민들은 앞으로의 자원 발굴 과정을 거쳐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답사를 통해 발굴한 배다리 지역의 인적자원은 <표 4-1>과 같다.

<표 4-1> 배다리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

분류	인적자원	내용
문화단체 관계자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	스페이스빔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
	스페이스빔 활동가	스페이스빔 활동가로서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
	곽현숙 아벨서점 대표	산업도로 반대운동, 배다리 지키기 활동에 참여
	청산님 나비날다 대표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임병수 풍경 너머 또다른 세상 대표	공동체활동을 위해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이 욱 스페이스빔 연구원	스페이스빔에서 지역 연구 관련 활동 참여
	띠갤러리 대표	지역 문화단체와의 교류를 유지하며 갤러리 운영
	마을사진관 다행 대표	지역신문 '우각로신보'를 발간,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
	사진공간 배다리 운영 직원	배다리 지역 가치에 대한 인식
	한점 갤러리 대표	배다리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갤러리 운영
	낙화민화 공방 대표	배다리 지역 건축 자원 보존을 위하여 현 위치에서 공방 운영, 지역주민 체험 이벤트 운영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 대표	배다리 지역 및 인근 지역의 문화 활동
주민	박태순 박의상실 대표	박의상실을 운영하며 산업도로 반대운동, 배다리 지키기 활동에 참여, 지역주민과의 돈독한 네트워크 형성
	금창동 부녀회 대표	지역부녀회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 전개
	금창동 5통장님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 전개, 지역주민과의 돈독한 네트워크
	장희숙 주민	스페이스빔, 나비날다 등의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전문가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연구원	배다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이희환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	인천 및 배다리지역 연구 활동에 참여

제4절 지역 자원 요소의 종합 및 재분류

제 3장 대상지 분석과 제 4장 대상지 지역 자원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물리적인 지역자원들을 종합해보면 <그림 4-39>와 같다. 역사자원들은 우각로와 금곡로에 대다수가 위치하여 있으며, 가시적 생활문화자원이라 할 수 있는 텃밭, 벽화 등은 주거지역에 밀도 있게 존재하고 있다. 빈공간과 오픈스페이스, 공가와 공실 건물은 위의 지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자원들과 자원발굴을 통해 드러난 비물리적 자원들을 에코뮤지엄 실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 4-2>와 같이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 공간자원', '프로그램으로 기획 가능한 자원',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 '향후 발굴해야하는 잠재자원'으로 재분류하였다. 분류별 세부 자원의 내용은 <표 4-2>와 같으며 물리적 자원의 위치는 <그림 4-39>에 표시하였다.

<표 4-2> 지역 자원 요소의 종합 및 재분류

자원 분류	세부 분류	자원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 공간 자원	실내	역사적 창영초등학교 여선교사기숙사 보존 가치를 양조장(스페이스빔) 지닌 시설 20C약방 가족공방 조흥상회(나비날다) 아벨 전시관 헌책방들 여인숙들 90년된 한옥 옛 창고 (낙화민화 공방) 도시형 한옥 공가 1 도시형 한옥 공가 2 활용 가능 시설 도시형 한옥 공가 3 풍경 너머 또 다른 세상 띠 갤러리 마을 사진관 다행 한점 갤러리 사진공간 배다리 개코막걸리 조망가능 공실 1 조망가능 공실 2 조망가능 공실 3
	실외	산업도로 공사 중단 부지 마을 쉼터 공터
프로그램으로	무형	마을 이야기 풀풀이죽 거리 이야기

기획 가능한 자원					성냥공장 아가씨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		
					박경리 소설가 이야기		
					우각로 이야기		
					마을 텃밭 이야기		
					지역축제	배다리 문화축전	
					주민, 방문객 행태	텃밭 가꾸는 활동	
						공동작업 활동	
						기록 및 공유 활동 (블로그, 웹사이트)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	
					유형	마을 00자원	막걸리
							성냥
							사진
							책
							그림
							벽화
						경관	텃밭과 벽화가 있는 골목길 경관
							저층 주거지 조망 경관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	적극적 활동	문화단체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				
			스페이스빔 활동가				
			이 옥 스페이스빔 연구원				
			곽현숙 아벨서점 대표				
			청산님 나비날다 대표				
			임병수 풍경 너머 또다른 세상 대표				
		전문가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연구원				
			이희환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				
			주민	박태순 박의상실 대표			
				금창동 부녀회 대표			
	금창동 5통장님						
	장희숙 주민						
	보조적 활동	문화단체	띠 갤러리 대표				
			마을사진관 다행 대표				
			사진공간 배다리 운영 직원				
			한점 갤러리 대표				
			낙화민화 공방 대표				
			문화공간 플레이 캠퍼스 대표				
		전문가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연구원				
			이성진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교사				
			송림동 성당 신부님				
			주민	향후 발굴 필요			
향후 발굴해야 하는 잠재 자원		목소리					
글씨체							
사진자료							
집안 소장 물품							
기억							
이야기							



〈 그림 4-39〉 물리적 자원의 종합 및 위치

제5절 에코뮤지엄 조성의 가능성

대상지 분석 및 지역자원 분석을 통해 바라본 에코뮤지엄 조성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자원 층위의 다양함과 생생함

배다리 지역은 개항기부터 산업시대의 역사적 자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이 시기를 거쳐 오랫동안 이 지역을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배다리의 역사자원을 단순히 복원과 보존의 과정을 거쳐 유물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연장선 상에서 현재까지 배다리지역을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지닌 독특한 삶의 역사와 기억, 문화를 지속시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원의 층위까지 포함하여 더욱 풍부한 자원의 층위를 더해나가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돈독한 지역 공동체의 존재

배다리 지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¹¹⁾ 또한 서로의 일상으로 바쁘지만 몇 십 년이고 마주치는 얼굴들이기에 가족이고, 친구라고 말한다.¹²⁾ 즉,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마주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배다리 지역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를 나눠먹기도 하고, 공터에서 야채를 다듬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며, 잠시 지나가다 듣는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살기가 힘든 현대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이웃의 연대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산업도로 반대운동에 다함께 힘을 모았고, 몇몇의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운동 등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역공동체가 지역현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문화단체의 많은 활동에도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지속되어온 지역 문화단체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희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³⁾ 이러한 이웃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이

11) 하신철물점 주인 인터뷰 내용 (2012년 9월 25일).

12) 배다리 머리방 주인 인터뷰 내용 (2012년 10월 5일).

13) 충인 상회 주인 인터뷰 내용 (2012년 10월 5일)

주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문화단체의 활동을 통한 문화적 토양 형성

배다리라는 작은 지역, 구도심에 최근 3년 사이 많은 문화단체와 갤러리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의 분위기는 더욱 풍요로워 졌다. 금전적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많은 방문객들이 배다리를 찾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해외의 작가 집단, 유명 사진가, 회화작가, 지식인들이 배다리를 찾아오고, 이 지역의 가치에 대해 논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역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지역이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만든다. 단순히 관주도로 조성된 문화지구의 조성이 아닌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지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계획은 그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외부인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이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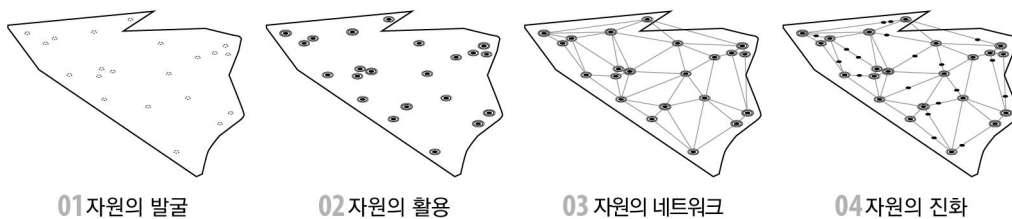
2008년 산업도로 공사 반대운동을 계기로 배다리 지역이 이슈화되기 시작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현재에도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강좌를 통해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지역의 정보는 지역을 꾸준히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제5장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제1절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목표 및 역할

1.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목표 및 전략

(1)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비전 및 목표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 생활·역사문화의 가치를 공유

지역민 생활과 자원의 연계를 통해 자원의 역사적 층위를 지속적으로 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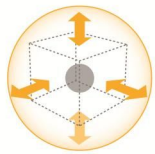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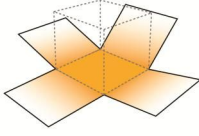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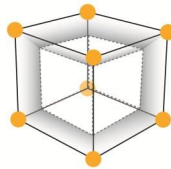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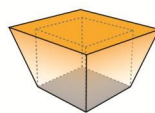
<그림 5-1>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비전 및 목표

배다리 지역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삶터로서 역할을 해온 장소이다. 때문에 역사적 층위가 다양하며 현재에도 지역민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자원이 형성되고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배다리 에코뮤지엄은 고층에 의한 자원의 복원이 아닌 지역민의 삶터와 어우러져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지향한다. 자원의 발굴과 활용, 네트워크 과정을 거쳐 지역자원의 역사적 층위가 계속적으로 쌓여가며 진화해 나가는 에코뮤지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지역민 생활과 자원의 연계를 통해 자원의 역사적 층위를 지속적으로 축적
-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 생활·역사문화의 가치를 공유
-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2)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출한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역사문화자원의 유물화가 아닌 현재화
주민생활영역으로서의 삶터 존중과 자원과 주민의 네트워크 형성
- 2  물리적, 문화적 소통을 통한 빈 공간(공가)의 확장
쓰이지 않는 공터, 공가의 공간을 지역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
- 3  주민과 방문객의 활동을 통한 지속적 진화
지역의 지속적 자원발굴을 통한 에코뮤지엄의 풍부한 자원의 층위 확보
- 4  주민 일상생활의 지역 문화화
생활적 노동의 사회적인 역할, 마을에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확장

<그림 5-2>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전략

2.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배다리 에코뮤지엄은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치 재조명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자원 발굴을 담당하며, 이를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교육하고 전달하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 역사 및 생활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전시를 실행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실행 및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경제에 보탬이 되며,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그림 5-3>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제2절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의 개요

1. 배다리 에코뮤지엄 운영 및 추진 조직 구성

배다리 에코뮤지엄을 운영하는 조직은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로 나뉜다. 이들 위원회는 지역리더, 문화단체·NPO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가, 주민, 지역과 관계 맺는 외부인으로 구성하며, 그 참여도 및 역할에 따라 위원과 회원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자율적 주민참여에 의한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2장 본문의 에코뮤지엄 위원회 조직(p. 43)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또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전문적 자문, 기금마련을 위해 공공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 관련공무원, 문화단체 및 NPO 대표를 통한 중재, 자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림 5-4>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운영 및 추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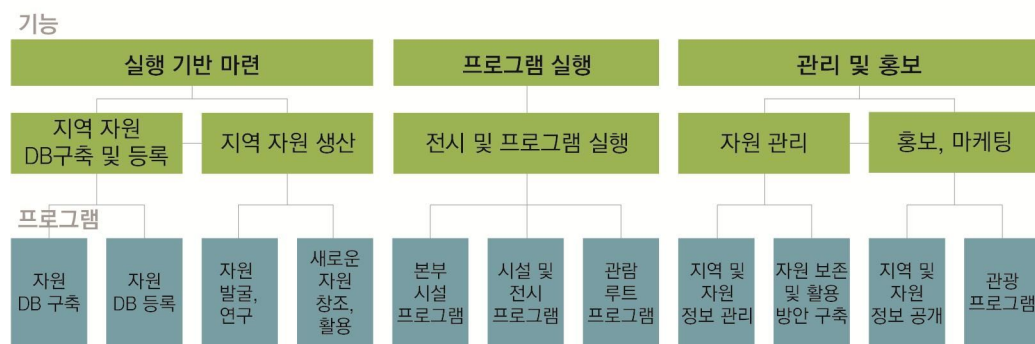
2.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 체계

배다리 에코뮤지엄은 그 실행 단계에 따라 실행 기반 마련, 프로그램 실행, 관리 및 홍보의 기능을 담당한다. 설립 초기에는 이 기능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다리 에코뮤지엄이 정착한 뒤에는 각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기능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실행기반 마련의 단계에서는 지역 자원을 지속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들 자원과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서는 코어시설과 일반시설, 관람루트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행한다. 관리 및 홍보의 단계에서는 지역자원과 지역 및 자원의 정보를 관리하며,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프로그램 별 세부 내용은 2장 본문의 에코뮤지엄 설립 및 실행(p. 46)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제 3절 배다리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실행 계획에서 프로그램 실행 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계획가 입장에서 대상지 분석과 지역자원 발굴을 기반으로 도출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이다.



<그림 5-5>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계획 체계

제3절 배다리 에코뮤지엄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

1.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 체계

(1)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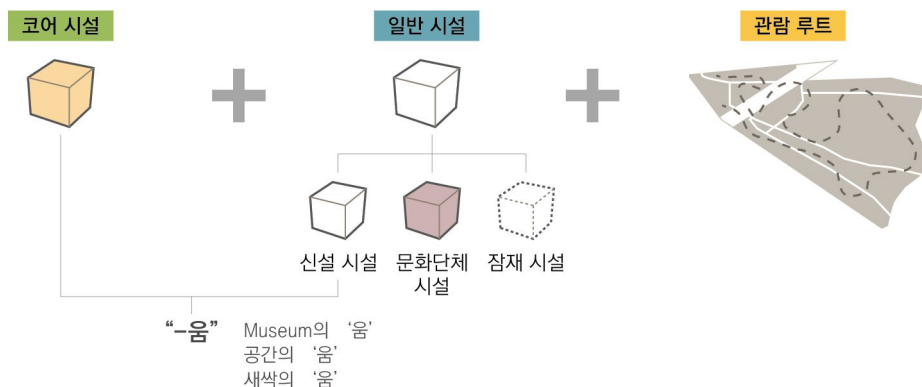
1) 지역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전체 지역, 에코뮤지엄 시설, 활동주체 등이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역사, 생활문화를 연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기에 에코뮤지엄의 각 시설 및 활동주체와 전체 지역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2) 시설

배다리 에코뮤지엄은 코어시설, 일반시설, 관람루트를 그 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코어 시설은 전체 에코뮤지엄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일반시설은 실질적인 전시 및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이 일반 시설은 본 계획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신설 시설과 기존 문화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앞으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잠재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관람루트는 지역 전체에 분포한 시설 및 자원을 네트워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계획에서는 새롭게 제시하는 시설들이 에코뮤지엄 시설이라는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움'을 종결어미로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각 시설의 프로그램 내용을 암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움'은 뮤지엄(Museum)의 '움', 공간을 뜻하는 단어 '움', 새싹을 뜻하는 단어 '움'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림 5-6> 배다리 에코뮤지엄 시설의 체계

3) 활동주체

에코뮤지엄은 조성단계에서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계까지 지역과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활동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지역 및 에코뮤지엄의 시설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배다리 에코뮤지엄은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에코뮤지엄 위원들과 이 위원회에 소속된 회원, 일반 지역주민, 방문객,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단체 및 작가들을 그 활동주체로 한다.

(2)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요소의 역할 및 네트워크

위에서 제시한 전시 및 프로그램 실행 요소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러한 요소별 역할 및 네트워크 관계망을 활동주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배다리 에코뮤지엄 위원회의 위원들은 지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며, 코어시설 및 일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이때 코어시설에서의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일반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콘텐츠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지역정보 및 자원정보를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교육을 시행한다. 더불어 잠재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에코뮤지엄 시설을 확충해나가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위원 외에도 일반 회원이 소속되어 에코뮤지엄의 코어시설 및 일반시설의 프로그램을 실행해나가야 한다. 이때 회원은 각 시설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지역 및 시설활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위원과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 또한 배다리 에코뮤지엄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역주민은 에코뮤지엄 시설에 이야기, 재능, 전시물품 등의 다양한 생활문화 자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배다리 에코뮤지엄 조성 시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이며, 이러한 이용활동(문화단체 프로그램 참여, 에코뮤지엄 시설 이용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콘텐츠는 에코뮤지엄 시설에 제공되어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배다리 에코뮤지엄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민 또한 일상의 활동 중에 만나는 방문객에게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또한 담당해야 한다.

배다리 에코뮤지엄에서 방문객의 역할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 또한 지역의 자원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담당한다. 문화 단체 및 일반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남긴 기록(사진, 그림, 글 등)들은 지역자원의 지속적 진화에 영향을 주며, 이들이 구매한 배다리 관련 상품의 수익금은 지역 및 에코뮤지엄 시설에 투자되어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현재 배다리 지역 내부에는 6개의 문화단체가 있으며, 이 밖에도 배다리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는 문화단체 및 작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들 또한 지역 자원의 지속적 진화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별 역할과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그림 5-7>과 같다.

2. 전시 및 프로그램 디자인

(1) 코어 시설: 배다리 다-옴

<표 5-1> 코어시설 '배다리 다-옴' 개요

위치	인천시 동구 창영동 7 스페이스빔
건물 이용 방식	스페이스빔 건물이 코어시설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프로그램 기능	실행기반 마련 및 교육, 정보제공
실행 주체	운영위원회 위원·회원, 시설관리 위원, 관련 공무원, 외부 전문가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코어시설은 지역 전체 에코뮤지엄의 센터역할을 하는 곳이다. 내부적으로는 전체 운영·관리의 기능, 배다리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기능, 지속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생산해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외부적으로는 주민 및 방문객에게 지역과 자원에 대한 정보 및 교육제공 등의 역할을 하여 주민의 역량강화와 방문객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한다. 기능별 프로그램과 참여주체의 내용은 <그림 5-8>과 같다.



<그림 5-8> 배다리 다-옴의 기능, 프로그램, 참여주체

현재 스페이스빔의 민운기 대표와 이희환 선생님은 문화예술 활동과 배다리의 역사 및 문화 연구, 지역 자원조사, 주민 인터뷰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원 발굴 및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의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역할까지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역 자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및 DB 등록 프로그램은 코어시설의 자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박물관학 및 지역 유산연구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시에는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재과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인천시의 유물과 역사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및 공무원의 도움과 공식적 루트를 통한 DB 구축은 향후 배다리 지역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일반 시설

1) 배다리 틈-옴

<표 5-2> '배다리 틈-옴'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1 공가
건물 이용 방식	동구청 사회적기업 나누리건설을 통한 공가 개조 후 임대
프로그램 기능	텃밭생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품 판매, 카페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실행 주체	운영위원회 위원·회원, 시설관리위원회 위원·회원, 지역주민위원회 위원·회원
이용 대상	지역주민, 방문객

① 공간의 성격

배다리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무대야, 화분, 상자 등에 꽃, 나무, 채소 등을 기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버려진 공터를 개간하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생산하며 주민들 간의 소통과 공유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마을의 개성 있는 골목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텃밭생활과 관련한 정보, 이야기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며, 텃밭 생활과 관련한 주민들의 활동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싹을 틔우다'라는 의미를 담으며 '옴'을 종결어미로 하는 '틈-옴'을 시설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② 공간의 선정



<그림 5-9> '배다리 틈-옴'의 위치

해당 공간은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배다리 지역에서 상자텃밭을 가장 활발히 가꾸고 있는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텃밭생활과 관련한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방문객들이 골목길을 걸으며 통과하는 동선 상에 위치하여 골목길 경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위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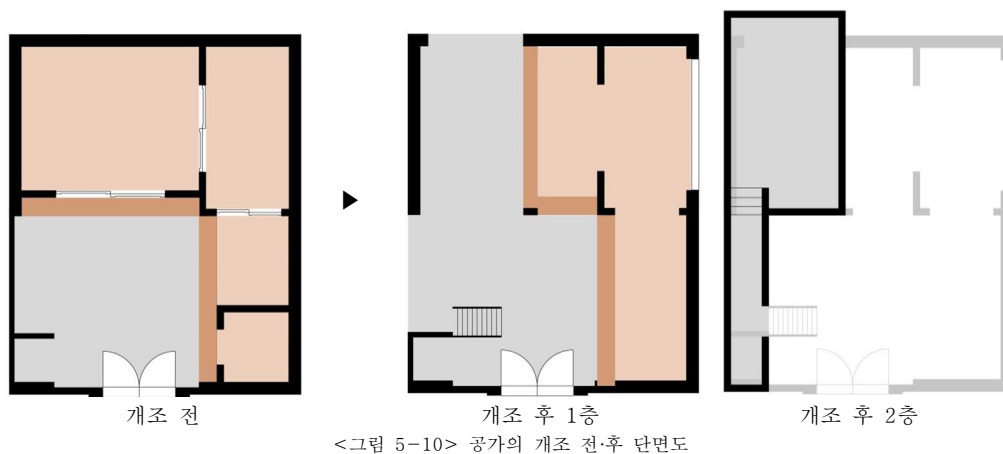
③ 공간 활용 방안

㉠ 공가의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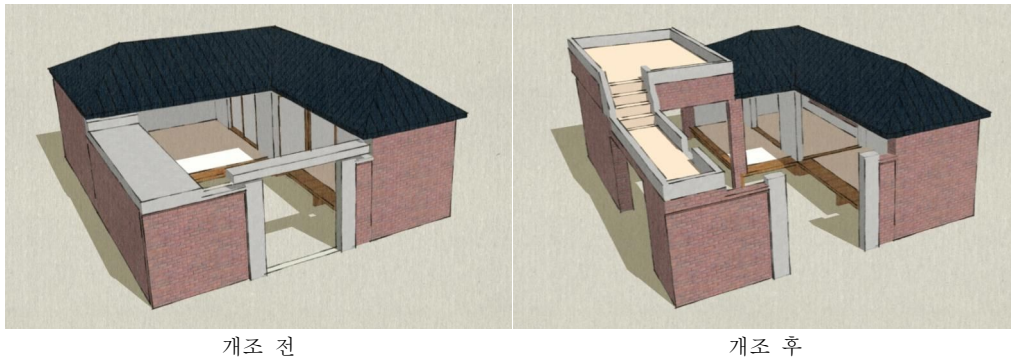
현재 배다리 지역에는 해당 공가 포함 5곳의 공가가 존재한다. 주택 소유자가 오랫동안 수선 없이 방치한 주택들이다. 동구청 측에서는 이러한 공가들이 지역의 환경을 저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 지역주민과 함께 공간을 개조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 이 사업을 통해 골목길에 위치한 공간을 개조하여 에코뮤지엄의 한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공간은 기역(ㄱ)자 형태의 도시형 한옥이다. 이 공간의 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림 5-13>과 같이 주변 골목길과의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두 곳의 출입구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변 골목길의 관람 동선이 차단되지 않고 해당공간을 통과하여 지나며, 텃밭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시각화 하여 나타내면 <그림 5-10>, <그림 5-11>과 같다.



1)'깨끗한 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은 동구청에서 2012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추진 프로세스는 "지역 주민 7인 이상의 지역 공동체 사업단을 구성▶활용 희망 공간 소유주의 동의▶사업계획서 작성▶주민자치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사업대상지 선정▶사업협약 및 시행"의 단계로 진행된다. 사업 시행 후 5년간 사업 추진 주체는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소유주에게 이전한다.



<그림 5-11> 공가의 개조 전·후 조감도

㉠ 공간 구분

해당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필요로 하는 공간은 5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5개의 공간은 '텃밭 나눔' 프로그램과 연계 공간인 종자 및 씨앗 보관 공간, 마을 텃밭의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 방문객이 텃밭수확 상품으로 가공한 제품을 먹어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의 공동 작업 공간, 텃밭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림 5-12> '퇴-움'의 공간 구분

④ 세부 실행 프로그램

㉠ 通(통)하는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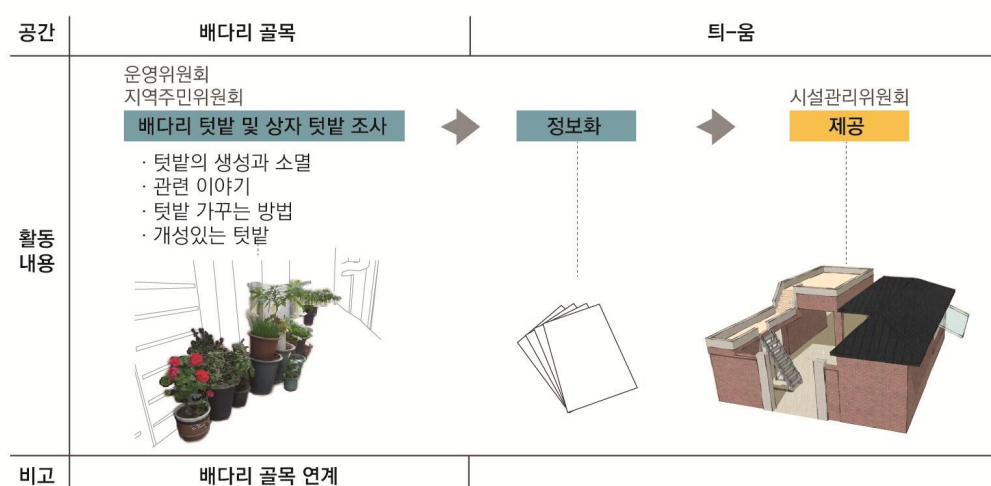
'퇴-움' 주변의 좁은 골목길에는 다양한 상자 텃밭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집집마다 다른 종류의 식물을 키우고 있는가 하면, 공통적으로 키우고 있는 식물 또한 존재한다. 또한 텃밭 및 상자텃밭을 가꾸게 된 주민들의 이야기와 가꾸면서 생겨난 이야기들이 존재한

다. 따라서 <그림 5-13>과 같이 주변 골목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띄-움'의 공간에서 텃밭 및 상자 텃밭 식물들에 대한 정보(종류, 키우는 방법, 독특한 텃밭의 위치)와 이에 얽힌 마을의 이야기들을 얻어갈 수 있는 '通(통)하는 골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지역주민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마을의 텃밭 및 상자 텃밭의 생성과 소멸, 이와 관련한 이야기, 텃밭 가꾸는 방법, 개성 있는 텃밭 등을 조사한다. 이를 정보화하여 '띄-움'의 마을 텃밭 정보 제공 공간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14>와 같다.



<그림 5-13> '通(통)하는 골목' 프로그램의 동선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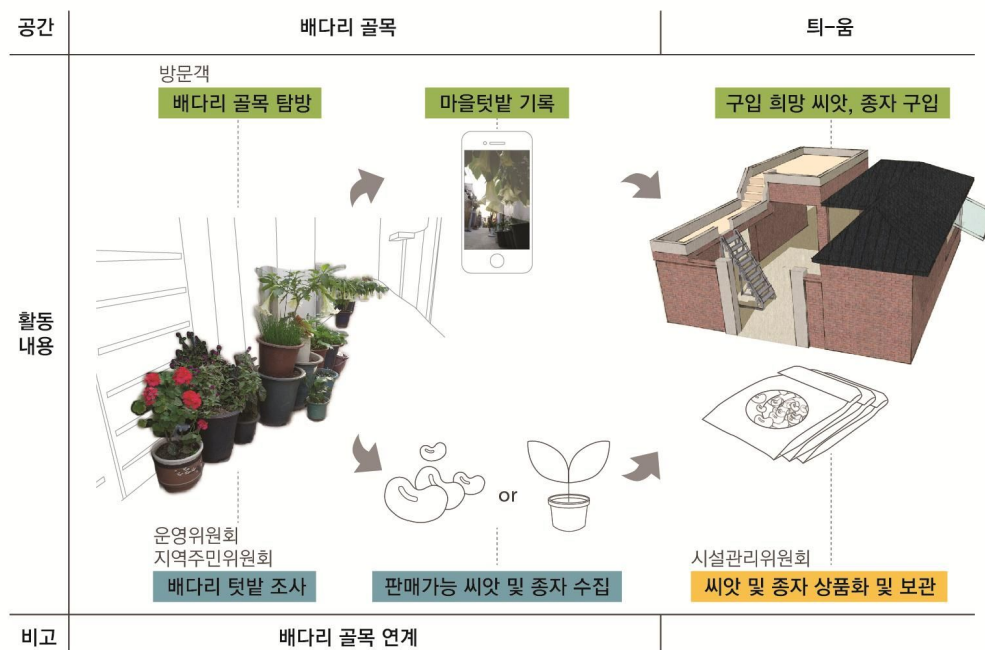
<그림 5-14> '通(통)하는 골목'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 텃밭 나눔

배다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사진 등으로 배다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보면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골목길의 모습과 집집마다 가꾸고 있는 텃밭 및 상자 텃밭의 모습을 담는 것을 알 수 있다. 꽃, 나무, 채소 등의 다양한 식물군이 존재하는 배다리 골목만의 독특한 개성을 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객의 위와 같은 행태를 이용하여 배다리 텃밭을 상품화 하여 판매하는 '텃밭 나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및 지역주민위원회는 배다리 골목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군을 조사하여 채취할 수 있는 씨앗 혹은 뿌리 및 줄기를 수집한다.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며 '티-옴'의 2층 공간인 종자 및 씨앗 보관 공간에 보관한다. 이때 어느 집의 텃밭 혹은 상자 텃밭에서 채취한 것인지를 함께 표시하여 상품화하도록 한다.

방문객은 배다리의 골목길을 탐방하며 구매하고 싶거나 길러보고자 하는 식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골목길 동선과 연결된 '티-옴'에 방문하여 자신이 기록한 식물을 시설 스태프(Staff)에게 보여주고, 같은 종류 또는 해당 주택에서 기르고 있던 식물을 구매하게 된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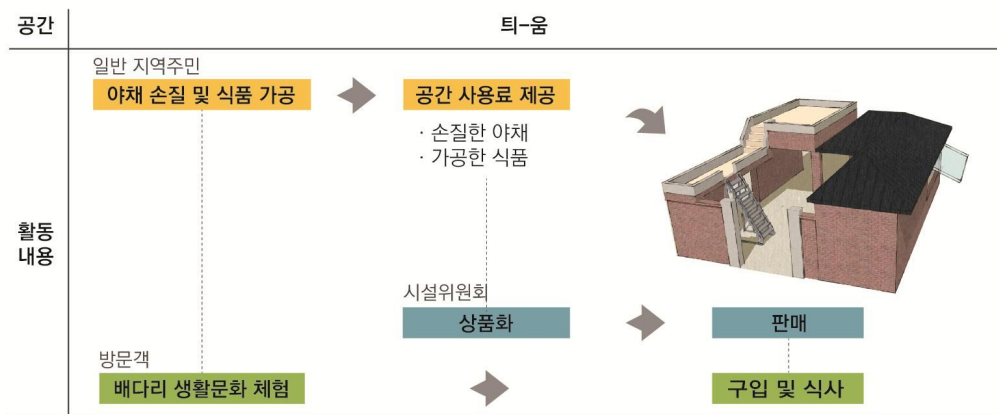
<그림 5-15> '텃밭 나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 배다리 공동 작업소

배다리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를 이웃 주민과 나눠먹기도 하고, 이를 손질하는 작업을 이웃과 함께 하는 등 텃밭 생활과 관련하여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틔-움'의 한 공간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인 '배다리 공동 작업소'로 조성하여 공동 작업이 필요한 야채 손질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야채를 손질하거나 이를 가공한 식품(김치류, 무침, 장아찌 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때 공간의 사용료로 현금 대신 손질한 야채의 일부 혹은 만든 식품의 일부를 제공받는다. '틔-움'의 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판매하거나 카페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여 방문객들이 '틔-움'에서 이를 구입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공간은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틔-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공간 즉, 시설 스태프들이 텃밭 관련 조사내용을 정보화 하거나 씨앗 및 종자를 상품화하는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은 주민들의 작업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배다리 지역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16>과 같다.



<그림 5-16> '배다리 공동작업소'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2) 배다리 드리-움

<표 5-3> '배다리 드리-움'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7-9 공가
건물 이용 방식	동구청 사회적기업 나누리건설을 통한 공가 개조 후 임대
프로그램 기능	골목생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품 판매, 카페 운영, 골목생활 관련 전시
실행 주체	시설관리위원회 위원·회원, 지역주민위원회 위원·회원, 지역작가, 지역 학생, 방문객
이용 대상	지역작가, 방문객, 지역주민

① 공간의 성격

배다리는 좁은 골목길과 다양한 마을 벽화가 어우러진 배다리만의 골목길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작가, 사진 동호회 회원, 영화감독들이 촬영장소로 애용하고 있다. 또한 독특한 경관을 구경하고자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 및 작품 활동과 골목길 경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자취를 남기다'라는 의미를 담으며 '움'을 종결어미로 하는 '드리-움'을 시설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② 공간의 선정



<그림 5-17> '배다리 트리-움'의 위치

대상 공간은 현재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문객이 이용하는 도원역에 가까이 위치하여 있으며, 배다리 지역만의 좁은 골목길 경관을 관람하기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공간이 위치한 블록은 3열 가구 블록이며, Y자 형태의 골목길 형태를 보인다. 여기서 해당 공간은 <그림 5-18>과 같이 Y자 골목의 갈림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어 골목길을 관람하는 방문객들의 동선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③ 공간 활용 방안

㉠ 공간의 개조

'트리-움'의 공간개조 방식과 같이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통해 골목길에 위치한 공간을 개조하여 에코뮤지엄의 한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18> '배다리 트리-움'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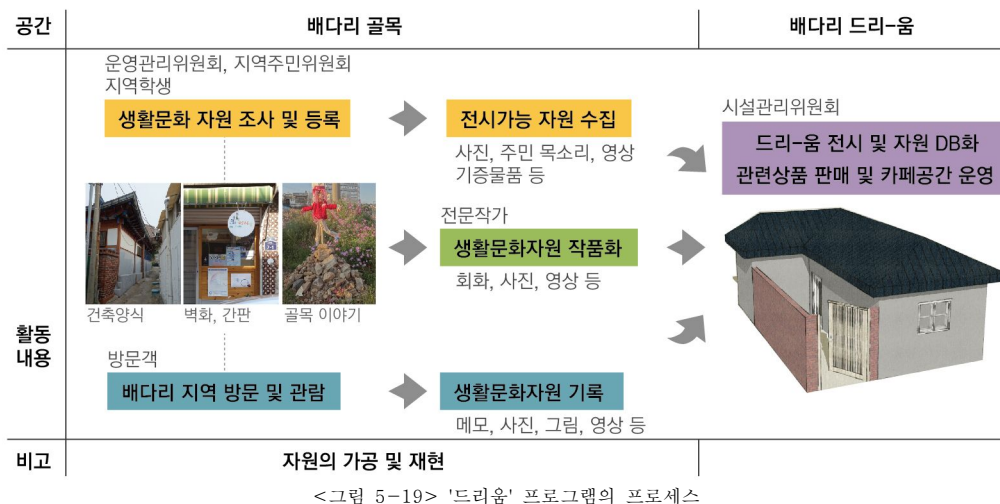
④ 세부 실행 프로그램

㉠ 배다리 골목집

배다리 지역은 전문작가 및 방문객들의 출사장소 및 작품 활동 지역이며,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기록물들이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진, 회화, 영상 등을 전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배다리 골목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룹은 위원회 및 지역 학생 그룹, 문화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갤러리 전시와 관련하여 배다리 지역에 방문한 전문작가 그룹, 일반 방문객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그룹은 배다리 골목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활문화자원(독특한 건축양식, 벽화 및 재미있는 간판, 배다리 골목 이야기 등)을 발굴하며 DB화하고, 진화시키는 활동을 한다.

먼저 위원회 및 지역 학생 그룹은 배다리 골목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활문화자원을 조사하며 전시 가능한 자원을 수집한다. 이 때 해당 자원은 지역자원에 대한 사진, 골목의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는 주민 목소리, 주민이 기증한 물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 전문작가들에게 배다리 골목의 경관과 관련한 작품을 기증 받거나 배다리 골목 경관과 관련한 판매 희망 상품을 공급받는다. 셋째로 시설관리위원회는 '드리-움'에 방문한 일반인 방문객들이 골목길 경관을 촬영한 사진, 메모, 그림, 관련 이야기 등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물품과 작품들은 '드리-움'의 공간에 전시되거나 판매되며 위의 세 그룹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자원은 자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축적해 나간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배다리 지역의 자원은 점차 축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이 가공되고 재현되는 과정을 거쳐 자원이 점차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19>와 같다.



3) 배다리 배-움

<표 5-4> '배다리 배-움'의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21 창영초등학교 구관
건물 이용 방식	인천교육청 교육박물관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공간 이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박물관 전시 기능과 연계한 강좌 공간 제공
실행 주체	교육박물관 관계자, 지역주민위원회 위원·회원, 운영위원회 위원
이용 대상	문화단체, 지역주민, 지역 학생, 방문객(강좌 수강생)

① 공간의 성격

배다리 지역의 문화단체들은 크고 작은 강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러한 강좌를 듣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지식인, 수강생들이 배다리 지역을 찾고 있다. 또한 배다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 근대 교육과 문화의 시발점이 된 장소이며 교육, 인문학, 노동문학 등이 발전해온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 인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인천 교육 박물관' 설립 계획과 에코뮤지엄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배우다'라는 의미를 담으며 '움'을 종결어미로 하는 '배-움'을 시설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② 공간의 선정



<그림 5-20> '배다리 배-움'의 위치

창영초등학교 구관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다. 학생들의 수업은 별도의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천교육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교육기관인 창영초등학교 구관 건물을 활용해 '인천 교육 박물관' 건립을 고려중

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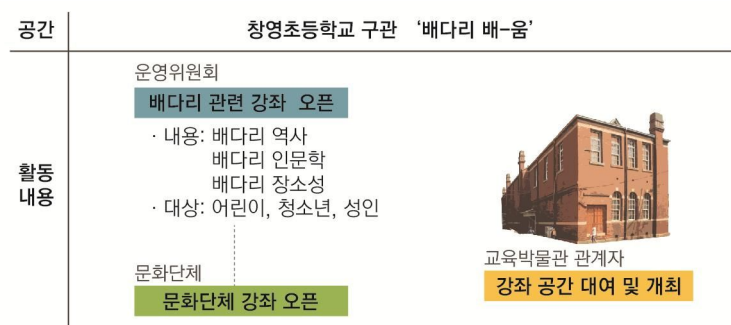
배다리 지역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박물관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에코뮤지엄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또한 박물관이 조성되었을 때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창영초등학교 구관 공간에서 에코뮤지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③ 세부 실행 프로그램

㉠ 배다리학(學)

배다리 지역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배다리 지역이 역사적으로 배움의 공간이었다는 의의를 갖기도 한다. 때문에 이미 지역의 문화단체에서는 다양한 강연 및 강좌를 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낭송회가 열리는 등 지식과 배움의 공간이었던 배다리의 역사적 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배다리 에코뮤지엄 또한 이러한 지역의 가치를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근대 교육의 시발점이 된 공간인 창영초등학교 구관과 위와 같은 지역의 움직임을 연계한 '배다리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에코뮤지엄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 지역 연구를 담당하는 위원, '인천교육박물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이 배다리 지역과 관련한 강좌 및 강연을 연다. 이 강좌의 대상은 지역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적합한 내용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문화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강연 및 강좌의 경우 '인천교육박물관'의 공간을 대여하여 강연 및 강좌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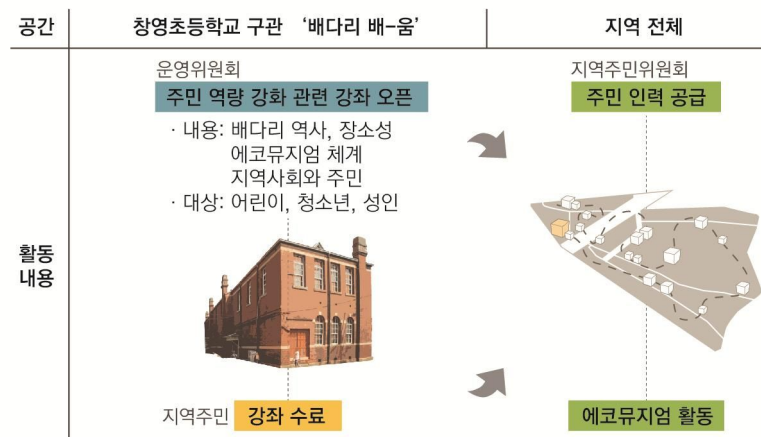
<그림 5-21> '배다리학'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 배다리 주민 학교

에코뮤지엄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교육 인력 및 공간이 제공되는 '인천교육박물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교육을 실행해나가는 '배다리 주민학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배다리학'의 프로그램이 배다리 지역에 대한 강좌로 구성이 된다면 '배

다리 주민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에코뮤지엄 프로그램의 실행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강좌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배다리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지역에 조성되는 에코뮤지엄의 체계,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강좌를 오픈하여 지역주민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때 강좌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이 강좌를 수료한 주민 수강생은 에코뮤지엄의 인력으로 활동하며, 지역주민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에코뮤지엄의 시설은 필요한 주민 인력을 제공받으며 지역조사 및 연구 활동, 프로그램 실행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22>와 같다.



<그림 5-22> '배다리 주민학교'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4) 배다리 헌책방 골목

<표 5-5> 배다리 헌책방 골목의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헌책방 골목 일대
공간 이용 방식	배다리 지역의 카페, 오픈 스페이스 공간과 연계하여 공간 이용
프로그램 기능	헌책방골목의 활성화,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문화시설
실행 주체	시설관리위원회 위원·회원, 헌책방 주인, 방문객
이용 대상	지역주민, 지역 학생, 방문객

① 공간의 성격

1910년대부터 인천에는 성냥공장과 제분회사, 방직 공장 등이 모여 있어 오고가는 물자가 많았으며, 해방 후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남기고 간 물건 중에는 책이 많았다. 이 책들이 고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당시 배다리 근방에는 헌책방 시장이 형성되었다. 현재까지도 10여곳의 헌책방이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헌책방 골목은 배다리 지

역을 상징하는 골목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헌책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헌책방들과 연계하여 헌책방 골목을 활성화하며 에코뮤지엄의 프로그램으로서 헌책들을 지역의 자원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② 공간의 선정



<그림 5-23> 헌책방 골목의 위치

다른 프로그램의 공간처럼 한 건물을 특정 하는 것이 아니라 헌책방 골목에 위치한 모든 헌책방이 참여하여 연대하는 비가시적인 공간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헌책방과 문화단체 공간, 에코뮤지엄 계획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등과 연계해 지역전체 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지역 전체에

조성된 오픈스페이스 공간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5-24>와 같이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시설은 문화단체 시설과 에코뮤지엄 시설을 포함하여 6곳이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에코뮤지엄 시설이 확대된다면 연계 가능한 시설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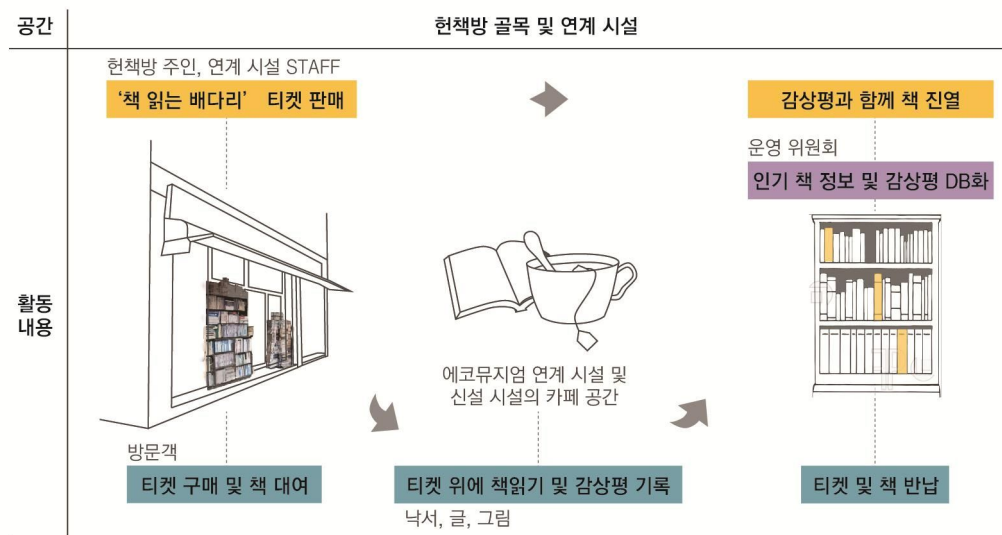
<그림 5-24> 헌책방 골목과 및 연계 시설, 오픈스페이스 위치

③ 세부 실행 프로그램

㉠ 책 읽는 배다리

침체되어있는 헌책방 골목을 활성화하고, 배다리 지역을 상징하는 헌책방과 지역 전체 시설 및 공간과 연계해 지역을 브랜딩 할 수 있는 '책 읽는 배다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헌책방을 포함한 에코뮤지엄 모든 시설에서 '책 읽는 배다리' 티켓을 판매한다. 이 티켓으로 배다리 헌책방에서 한 권의 책을 대여할 수 있으며, 에코뮤지엄 시설 내의 카페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방문객은 티켓을 구매한 후 헌책방에서 책을 대여하고, 배다리 지역 곳곳에 조성된 에코뮤지엄 시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 책을 읽은 후 티켓 종이 위에 책에 대한 감상평을 낙서, 글,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다. 이를 헌책방에 책과 함께 반납한다. 헌책방의 주인들은 책과 함께 티켓 기록물들을 함께 진열하여 이후의 방문객들이 책이 대여되었던 빈도와 감상평등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에코뮤지엄의 운영위원회는 인기가 높은 책, 수준이 높은 감상평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이 정보를 방문객들에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침체된 헌책방 골목의 수익 창출과 지역 및 헌책방 골목을 홍보의 기회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25>와 같다.



<그림 5-25> '책 읽는 배다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5) 배다리 발돋움

<표 5-6> '배다리 발돋움'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21 3층
공간 이용 방식	동구청 사회적기업 나누리건설을 통한 공간 개조 후 임대
프로그램 기능	배다리 경관 조망, 휴식 및 카페 공간
실행 주체	시설관리위원회 위원·회원
이용 대상	지역주민, 방문객

① 공간의 성격

배다리 지역은 용도지역 구분에서 2종 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 경관은 개항기 이후부터 배다리 주민의 생활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며, 이러한 경관 또한 배다리 지역의 생활·역사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금곡로를 따라 조성된 몇몇의 4층 이상의 상업건물은 배다리 지역의 저층주거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다리 지역의 저층 주거지 경관을 조망하며 방문객 및 지역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발을 세워 키를 높이다'라는 의미를 담으며 '움'을 종결어미로 하는 '발돋움'을 시설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② 공간의 선정



<그림 5-26> '배다리 발돋움'의 위치

해당 공간의 1~2층은 사용하고 있으나 3~4층 공간은 공실로 남아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을 개조하여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카페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배다리 지역의 다른 2층 이상의 건물에도 위의 계획을 적용할 수 있으며, 조망 공간이 늘어날수록 배다리 지역의 다양한 조망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공간 활용 방안

㉠ 공간의 개조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 등의 정부·지방정부 지원 사업 혹은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수익구조를 통해 단계적 개발로서 공간 개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간에는 배다리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테라스, 조망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림 5-27> '배다리 발돋움'의 조망 공간 모습

6) 배다리 지새-움

<표 5-7> '배다리 지새-움'의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7 스페이스빔
공간 이용 방식	스페이스빔에서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에코뮤지엄과 연계
프로그램 기능	막걸리 만들기 체험, 관련 상품 판매
실행 주체	시설관리위원회 회원·위원, 지역주민위원회 위원·회원, 인근 상업시설
이용 대상	방문객, 학생, 지역주민

㉠ 공간의 성격

'스페이스빔'의 건물은 1926년부터 1996년까지 양조장을 운영하던 공장건물이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단체 '스페이스빔'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지금도 양조장이었던 건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던 '소성주'는 인천 향토 막걸리로 현재는 청천동으로 자리를 옮겨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배다리 지역에서 '소성주'를 맛

볼 수 있는 '개코막걸리' 음식점이 존재하며, 옛 구조와 모습을 간직한 양조장 건물이 있어 막걸리는 배다리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상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막걸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밤을 지새우다'라는 의미를 담으며 '움'을 종결어미로 하는 '지새-움'을 시설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② 공간의 선정



<그림 5-28> '배다리 지새-움'의 개요

해당 공간은 현재 '스페이스빔'에서 사용 중이며, 이 문화단체는 배다리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및 문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배다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한번쯤 둘러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한 건물 내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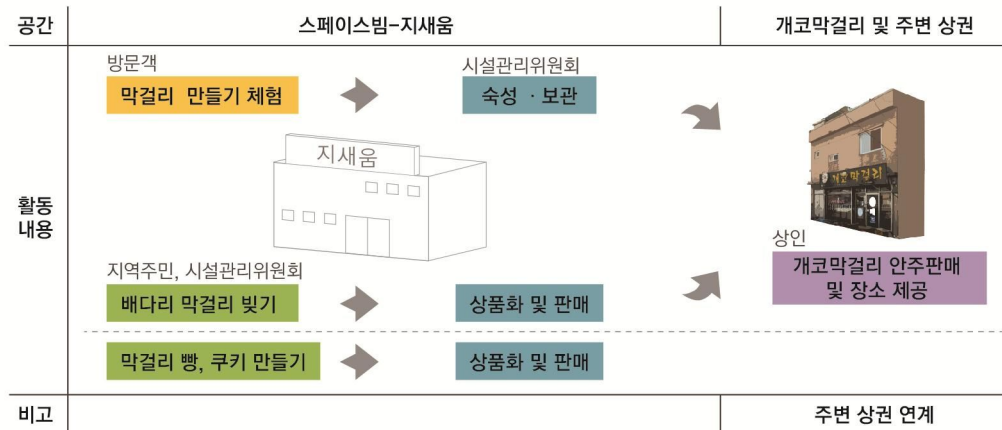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이 존재하며, '스페이스빔'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벌이는 활동의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에코뮤지엄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③ 세부 실행 프로그램

㉠ 막걸리 DIY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배다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막걸리를 소개하며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상품을 판매하는 '막걸리 DIY'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지새-움'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방문객을 위한 막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막걸리를 숙성 및 보관하는 기간(약 7일)을 거치게 된다. 방문객은 다시 배다리 지역에 찾아와 '개코막걸리' 및 향후 연계를 맺는 지역 음식점에서 막걸리 안주를 구매하여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관리위원회 및 지역주민은 소량으로 배다리 막걸리를 빚거나 막걸리 빵, 쿠키 등으로 만들어 '지새-움'공간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이를 판매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29>와 같다.



<그림 5-29> '막걸리 DIY'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3) 관람 루트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개요



<그림 5-30> 관람루트의 동선

지역 전체에 분포한 시설 및 자원을 네트워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방문객들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관람루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배다리 지역의 자원은 크게 역사자원과 생활문화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이 특성을 살린 역사

자원 탐방루트와 생활문화자원 탐방루트를 계획하였다. <그림 5-30>과 같이 각 루트는 테마에 맞는 시설과 자원을 관람할 수 있는 동선으로 짜였으며, 세부 장소는 <표 5-8>과 같다.

<표 5-8> 관람루트의 세부 장소

분류	관람 동선
역사자원 탐방루트	배다리 다-움(스페이스빔 건물)→산업도로 공사부지(개항기 길)→배다리 배-움(창영초등학교 구관)→노동운동의 거리→배다리 퇴-움→배다리 골목길→여선교사기숙사→창영감리교회→영화초등학교 본관→떠 갤러리→마을사진관 다행→한점갤러리→산업도로 공사부지(개항기 길)→90년된 한옥집→여인숙 골목→대인상회(現 토시살 구이)→낙화민화 공방(옛 창고 건물)→조흥상회(現 나비날다)→현책방 골목→사진공간 배다리→아벨서점 전시관→배다리 발돋-움→배다리 지새-움(스페이스빔 건물)
생활문화자원 탐방루트	배다리 다-움(스페이스빔 건물)→산업도로 공사부지 마을텃밭→산업도로 공사부지(개항기 길)→배다리 골목길→배다리 퇴-움→배다리 골목길→배다리 배-움(창영초등학교 구관)→풍경 너머 또 다른 세상→배다리 골목길→배다리 드리-움→

① 세부 실행 프로그램

㉠ 주민 해설사

배다리 지역에는 오랫동안 배다리 지역의 변화상을 지켜보며 살아온 주민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가이드가 된다면 더욱 실감나는 지역의 이야기와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설사가 될 주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강좌를 오픈해야 하며, 이는 '배-움'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민 해설사'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으로 분류하여 눈높이에 맞는 지역가이드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배다리 지역은 현재 주변 지역 학교에서의 단체 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지역이므로 학교 단체 투어 프로그램 또한 제공해야 한다.

㉡ 뚜벅뚜벅, 배다리

배다리를 자유롭게 관람하기 원하는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뚜벅뚜벅, 배다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참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배다리 지역을 관람하고자 하는 방문객에게 관람루트 및 지역 자원, 에코뮤지엄 시설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방문객이 관람을 하며 지역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다른 방문객의 사진 및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 방문객들에 의해 발굴되는 새로운 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에코뮤지엄 시설 및 주요 자원에 부착된 증강현실 마커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해설을 시청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 수단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문객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이 기록한 사진, 위치 정보 등은 자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지역 자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의 의견, 관람 행태 등이 축적되어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5-31>과 같다.



<그림 5-31> '뚜벅뚜벅, 배다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4) 프로그램 계획의 종합

위에서 제시한 세부 프로그램들은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실행 과정상의 여건에 맞추어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들은 에코뮤

지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도출한 것으로 향후 계획 시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시설은 위의 프로그램이 갖는 성격과 역할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의 프로그램들을 그 성격과 역할별로 구분하여 종합하여 보면 지역연구,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화, 정보제공, 교육, 체험, 지역 관람, 판매·휴식, 주민 커뮤니티로 나타난다. 이들의 세부 내용은 <표 5-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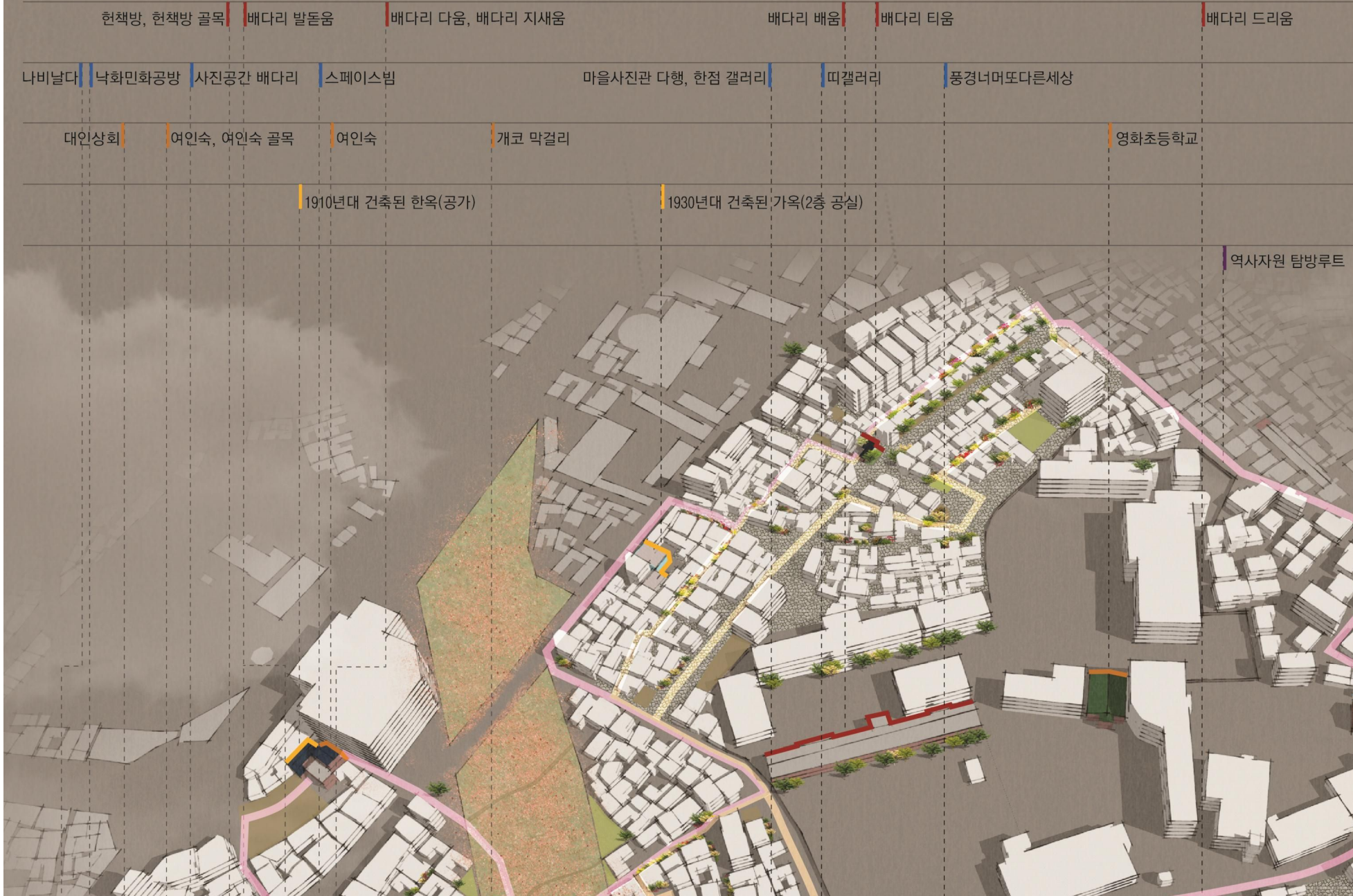
<표 5-9>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역할 별 분류

역할	시설	프로그램
지역 연구	다-옴	-
	틱-옴	덧발번식
	드리-옴	배다리 골목집
	배-옴	배다리학 배다리 주민 학교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화	다-옴	-
	드리-옴	배다리 골목집
	관람루트	뚜벅뚜벅, 배다리
	헌책방 골목	책 읽는 배다리
정보 제공	다-옴	-
	틱-옴	通(통)하는 골목
	드리-옴	배다리 골목집
	관람루트	주민 해설사 뚜벅뚜벅, 배다리
교육	배-옴	배다리학 배다리 주민 학교
체험	헌책방 골목	책 읽는 배다리
	지새-옴	막걸리 DIY
지역 관람	관람루트	주민 해설사 뚜벅뚜벅, 배다리
	틱-옴	덧발번식
판매, 휴식	드리-옴	배다리 골목집
	헌책방 골목	책 읽는 배다리
	틱-옴	배다리 공동작업소
주민 커뮤니티	발돋-옴	-

(5)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도

위에서 제시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종합하여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계획도를 제시하면 <그림 5-32>와 같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시하는 에코뮤지엄의 시설은 '에코뮤지엄 신설 시설'로 표기하였으며, 배다리 에코뮤지엄과 연계가능하며 관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연계 가능 기존 문화단체 시설', '연계가능 기존 시설')을 표기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공간 발굴과 시설 확충을 통해 '향후 활용 가능한 시설' 및 에코뮤지엄 시설들은 늘어갈 것이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도



제4절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계획

1. 단계별 조성 계획

에코뮤지엄은 한 시점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조성과정이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 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 계획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다리 에코뮤지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 및 에코뮤지엄의 기초 인력을 양성·확보하는 1단계와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2단계, 에코뮤지엄 시설을 확대해 나가며 잠재자원을 활발히 활용해 나가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 할 수 있다.

<표 5-10> 단계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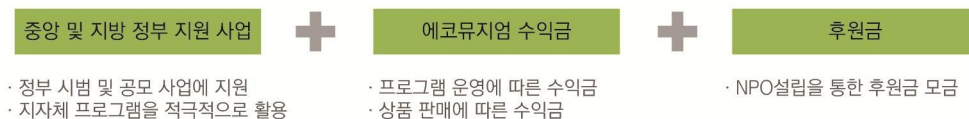
실행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위원회 조직	핵심 인력, 참여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설립 기반 마련	에코뮤지엄 관련: 자원 발굴·연구·교육, 자금			
	지역 관련: 환경 정비, 주요 골목 정비			
설립 및 실행	활용 가능 공간의 개조 및 활용	코어시설	일반시설 중 일부	일반시설, 잠재시설
	프로그램 실행			
정보 관리	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브로셔, 가이드북 출판 및 보급			
	웹사이트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우선 1단계에서는 에코뮤지엄을 실행해 나갈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에코뮤지엄 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로써 에코뮤지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또한 설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을 연구하며, 자원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 및 생활문화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에코뮤지엄 실행 시 주요 시설이 자리하거나 주요 루트가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나간다. 정보관리의 경우 배다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다리 지역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및 자원에 대한 연구·발굴을 통하여 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활용가능 공간을 개조해나가게 되는데, 재정적 부담이 적으며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선별하여 개조해 나가며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코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부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설립 기반 마련 활동을 앞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물리적 시설이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3단계에서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초석으로 삼도록 한다. 더불어 에코뮤지엄 시설,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출판하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3단계는 에코뮤지엄이 정착하며 프로그램 및 시설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잠재시설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1단계와 2단계에서 실행하였던 설립 기반 마련과 정보 관리에 대한 부문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에코뮤지엄이 점차 진화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시설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갈 것이다.

2. 에코뮤지엄 조성 기금의 마련



<그림 5-33> 에코뮤지엄 조성 기금 마련 방안

배다리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기금마련의 방안은 크게 '중양 및 지방 정부 지원 사업', '에코뮤지엄 수익금',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에코뮤지엄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생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초기단계의 재원조달과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양 및 지방 정부의 시범·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전문적 교육 및 지원금을 확보하거나 동구청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단계의 기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과 관련하여 지원이 가능한 중양 및 지방정부 지원 사업은 <표 5-11>과 같다. 또한 주민주도하에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판매에 따른 수익구조를 마련하여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코어시설 등을 비영리단체(NPO)로 등록하여 지역을 아끼고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11> 정부·지방 정부 시범 사업 및 공모 사업

소속	명칭	내용	지원내용	지원예산 (백만원)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지역의 문화예술 자연자원 등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발상의 지역사업 지원	지원금, 컨설팅, 교육	160~600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 브랜드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선정	지원금, 컨설팅, 홍보, 해외답사	20~3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한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최대 60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행복프로젝트	과거 역사성을 지니고 있던 곳이지만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장소 또는 시설물(건축물 포함)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미술문화 공간으로 조성	지원금, 워크숍	1000 이상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전국 각 지역 우수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 강화	워크숍, 컨설팅, 홍보, 표창, 지원금	20~100 (2012년)
인천시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소규모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회적 기업 결연사업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운영 생산물 우선구매	지원금, 교육, 결연사업, 법률자문, 상품구매 홍보, 이벤트	20
인천 동구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	사회적기업 및 주민과 함께 폐가와 빈집을 활용, 마을 개선 사업 추진	지원금	-

3.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

배다리 지역에는 9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 예술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어 에코뮤지엄 실행 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문화예술단체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역의 에코뮤지엄 시설과 문화예술 시설을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다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내용은 <표 5-12>와 같다.

<표 5-12> 지역 예술문화단체 프로그램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아벨서점 전시관	문학, 역사 관련 전시 시 낭송회
스페이스빔	작가 레지던시 강좌 도시캠핑 마을 공동체 활동
나비날다	책방 북카페 벼룩시장 유기농 먹거리 판매 뜨개질 작업실 강좌 게스트 하우스
마을사진관, 다행	카페 사진관 마을 신문
풍경너머 또다른 세상	나무 공방 학생, 학부모 대상 강좌
사진공간 배다리	사진 전시 강좌
띠갤러리	작품 전시
한점 갤러리	작품 전시
낙화 민화 공방	낙화 민화 공방 작품 전시

4. 홍보 및 이벤트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계획은 최종 결과물 도출보다 과정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배다리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배다리 에코뮤지엄의 CI개발, 프로그램 및 시설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출판, 지역연구 및 분석 내용을 담은 책 출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보 제공을 위한 배다리 에코뮤지엄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필요하며, 언론매체를 통해 배다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을 알려 다양한 채널의 후원과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배다리 지역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축제인 '배다리 문화 축전'을 배다리 에코뮤지엄과 연계하여 개최함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및 배다리 에코뮤지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자원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역사자원의 개념에 속하지 않았던 다양한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또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에 역사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역사적 가치만을 중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이 무시되거나,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지역민의 의견 및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전문가 위주의 역사자원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도입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에코뮤지엄의 이론을 고찰하고, 유럽 및 일본에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에코뮤지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그 개념을 재정립하고, 실행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인 배다리 지역은 근대역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장소임에도 산업도로 건설 추진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을 위한 대안적 계획과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계획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의 역사자원, 생활문화자원, 인적자원을 연구 및 발굴하였다. 자원 분석에 있어 기존의 문헌에 존재하지 않지만 생활사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배다리 지역에는 지역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20~30년대, 50~6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존재하며, 이는 근대 건축물과 함께 지역에서 보존하고 관리해나가야 하는 자원이다. 또한 지역민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기에 현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보존방식은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민의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된 동네텃밭, 공동 작업의 행태,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경관은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 및 생활상이 재현된 것으로 향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하는 자원이다.

셋째, 문화단체의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벽화, 역사건축물의 활용행태, 산업도

로의 새로운 생태계, 지역축제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은 에코뮤지엄 조성 시 필수적이다.

넷째, 지역 방문객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기록과 공유의 행태, 지식의 네트워크 등은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시 지역방문객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 자원이다.

이와 같은 자원 분석과 에코뮤지엄 이론 연구를 통해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을 제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다리 에코뮤지엄은 지역리더, 지역주민, 문화단체 및 NPO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의 지역과 관계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조직은 운영위원회, 시설 관리위원회, 지역주민위원회로 구성한다.

둘째, 에코뮤지엄의 시설은 코어시설, 일반시설, 관람루트로 나누어 조성하며, 앞선 자원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시적·비가시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셋째, 에코뮤지엄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단계적 계획은 필수적이며, 점차 진화하는 배다리 에코뮤지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기금마련의 방안, 홍보 및 이벤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특정 대상지인 배다리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을 연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배다리 에코뮤지엄 계획은 향후 배다리 지역을 계획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을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동진. "인천 배다리지역 재생을 위한 이슈 탐색," 『배다리 또 하나의 인천: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 (사)도쿄모모 코리아(2010). 서울: 하나.
- 고일(1955), 『인천석금』. 인천: 경기문화사.
- 김선기, 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용하. "인천의 성장과 도시계획," 『배다리 또 하나의 인천: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 (사)도쿄모모 코리아(2010). 서울: 하나.
- 김윤식. "배다리에 관한 몇가지의 기억들,"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2009). 인천: 작가들.
- 성혜영(2004).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서울: 휴머니스트.
- 이성진. "우각로로 들어온 근대문화-역사적 의미와 가치성,"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2009). 인천: 작가들.
- 이종복, "배다리와 우각리의 형성,"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2009). 인천: 작가들.
- 이종현(2008). 『구도심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이희환(2009a). "인천 동구 배다리 일대의 지역개관,"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2009). 인천: 작가들.
- _____(2009b). "근대화와 산업화, 노동자들의 삶터-배다리 일대의 산업화와 노동운동,"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2009). 인천: 작가들.
- _____(2009c). "오래된 서민들의 삶의 터전-배다리 일대의 문화와 풍속,"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희환 외 11 (공편)(2009). 인천: 작가들.
- 인하대학교(2008).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 인하대학교 박물관.
- 철암지역 건축도시작업팀(2001). 『철암 그 미래를 위한 제안-철암건축도시작업팀 제1차 작업발표회 보고서』.

- 한국문화전략연구소(2010).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 대전: 문화재청.
- 한동수, "인천 배다리의 근대건축과 경관,"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이회환 외 11 (공편)(2009). 인천: 작가들.
- 츠치코쿠(笹谷康之)(2001). "日本エコミュージアム究員の描くエコミュージアム像," 『エコミュージアム究』 4: 53-5.
- 하기하쿠부즈칸(萩博物館)(2004). 『萩博物館 展示案内』 山口: 萩博物館.
- Landry Charles. (*The*) *Creative city*, 임상오(역)(2005). 『창조도시』 서울: 해남.
- JCIC-Heritage(2010).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eritage Conservation*. Tokyo: JCIC-Heritage.
- Maggi, Maurizio and Vittorio Falletti(2000). *Ecomuseums in Europe-What they are and what they can be*. Torino: Istituto Ricerche Economico-Sociali del Piemonte.
- Metsahallitus Natural Heritage Services(2012). *The Diversity of Sacred Lands in Europe-Proceedings of the Third Workshop of the Delos Initiative*. Switzerland: IUCN.
- Querrien, Max Yvon Jean(1982). *Pour une nouvelle politique du patrimoine: Rapport au ministre de la cultu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Ohara, Kazuoki. *Eco Museum Eno Tabi*, 김현정(역)(2008).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서울: 아르케.
- Davis, Peter(2001). *Ecomuseums: a sense of place*. London: Continuum.
- Giddens, Anthony.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윤병철, 박병래(역)(1991). 『사회이론의 주요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학술지 수록 논문

- 권수미(2011).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학회』 14(2): 43-63.
- 김경은(2011). "조형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의 공공성 연구-문화예술공동체 할아택의 '그리기'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문화정책논총』 25(1): 65-88.
- 여경진, 주영민(2007). "일본 에코뮤지엄의 형성과 목적," 『한국농촌관광학회』 14(1): 111-37.

- 이영민(2005). "경인선 철도와 인천의 문화 지리적 변화," 『인천학연구』 4: 393-415.
- 이재영, 이종오(2001). "프랑스 에코뮤지엄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EU연구』 28: 229-47.
- 이희환(2003). "인천 개항장의 역사문화지리," 『인천문화연구』 1: 194-246.
- 장훈중, 정종완(2009). "지역문화 기반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사례연구-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3): 281-91.
- 정진오(2010). "살아 숨 쉬는 인천 배다리," 『플랫폼』 20: 84-7.
- Andermann, Jens and Silke Arnold-de Simine(2012). "Introduction: Memory, Community and the New Museum," *Theory Culture Society*, 29(3): 3-13.
- Maggi, Maurizio(2009). "Ecomuseums in Italy. Concepts and practices," *Museologia Epatriônio*, 2(1): 70-78.
- Nishimura, Atsushi.(2005). "A Tiny Field for Soundscape Design: A Case Study of Soundscape Museum in Hirano, Osaka," *The Journal of Acoustic Ecology*, 6(2): 21-24.
- Ohara, Kazuoki(2008). "What have we learnt and should we learn from the Scandinavian Ecomuseums?," *Journal of Japan Ecomuseological Society*, 13: 43-51.
- Corral, Óscar Navajas(2010). "Japan ecomuseums: Global models for concrete realities," *Cadernos de Sociomuseologia*, 38: 217-44.
- Davis, Peter(2004). "Ecomuseums and the Democratisation of Japanese Mus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0(1): 93-110.
- Su Donghai(2008). "The Concept of the Ecomuseum and its Practice in China," *Museum International*, 60(1): 29-38.

학술대회 발표자료

- 왕현중(2012). "에코뮤지엄의 도입과 영월군의 역사 정체성," 『제 1회 영월연세포럼』 2011년 5월 23-26, 영월.
- Horie, Noriko and Sadatoshi Tabata(2007). "The idea and the Role of Field-Museums in Japan," 『10th 한국조경학회 한·중·일 심포지움』 2007, 서울.

- Ohara, Kazuoki(2011). "Japanese Ecomuseums—the Significaces and Challenges," 『제 1회 영월연세포럼』 2011년 5월 23-26, 영월.
- Ohara Kazuoki, Atsushi Yanagida(2010). "Ecomuseums in Current Japan and Ecomusem Network of Miura Peninsula," *3rd EIEMC*, September 2004, Rio de Janeiro.
- Sabrina Hong Yi(2010). "The Evaluations of Ecomuseum Success: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Assessment of Chinese Ecomuseums," *18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 5-8 July 2010, Adelaide.

학위논문

- 권용결(2001). 도시 내의 역사경관보존에 관한 연구-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영결(2012).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의 영향관계 및 인지특성분석-경기도 소재 시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영숙(2003). 에코뮤지엄 개념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배은석(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신현요(2005).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양홍권(2004). 지역혁신형 학습도시시스템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승현(2007).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정수환(2005).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계획-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경희(2009).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한주연(2012). 해외 에코뮤지엄 사례 연구-경주 양동마을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탐색,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신문기사

김정수, "'철암건축도시작업팀' 주대관씨," 『한겨레신문』 (2004년 6월 8일).

박창현, "[폐광지 산업문화유산을 살리자] 2. 이것이 산업유산이다," 『강원도민일보』
(2011년 9월 14일).

_____, "[폐광지 산업문화 유산을 살리자] 11. 에필로그-탄광촌의 새로운 희망찾기" 『강
원도민일보』 (2011년 11월 16일).

손장원, "건축은 문화재 생산 활동," 『인천일보』 (2008년 9월 30일).

심혜진, "대하소설 '토지'의 박경리 선생이 배다리에서 헌책방 연 사연," 『부평신문』
(2012년 11월 13일).

유승희, "인천 배다리 문화지구 '갈 길 멀다'," 『인천신문』 (2012년 3월 21일).

이환직, "인천교육박물관 부지선정 '갑론을박'," 『인천신문』 (2012년 4월 19일).

임종업, "'할아텍'사람들 폐광촌 철암에 녹아들다," 『한겨레신문』 (2008년 8월 21일).

차준호, "버려진 폐가가 어려운 이웃들 '보금자리'로," 『동아일보』 (2012년 11월 20일).

정기간행물

민운기(2012a). "배다리 문화지구지정 제안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인천 지역·미술·
문화 비평지, 시각』 (2012년 3, 4월).

_____(2012b). "'생활문화'활성화 담론에 대하여," 『인천 지역·미술·문화 비평지, 시
각』 (2012년 5, 6월).

_____(2012c).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 지역·
미술·문화 비평지, 시각』 (2012년 9, 10월).

오민근(2012). "배다리 역사문화마을과 문화지구 지정에 관하여," 『인천 지역·미술·문
화 비평지, 시각』 (2012년 3, 4월).

홈페이지

2012 배다리 문화축전 <http://cafe.naver.com/baedariro>

다행하다 <http://cafe.daum.net/daheanghada>
달이네 <http://cafe.naver.com/fullmoonh>
문화재청 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시민모임 <http://cafe.naver.com/vaedari>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위원회 <http://cafe.naver.com/baedaritable>
소상공인진흥원 <http://www.seda.or.kr/>
스페이스빔 커뮤니티 <http://www.spacebeam.net/aboutus>
인천광역시 동구청 www.icdonggu.go.kr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icweb/>
지역발전위원회 www.region.go.kr
현책방 아벨서점 <http://cafe.naver.com/abelbook/>
Écomusée du creusot-montceau <http://www.ecomusee-creusot-montceau.com>
Écomusée de l'avesnois blog <http://ecomusee.canalblog.com/>
Écomusée de l'avesnois <http://www.ecomusee-avesnois.fr/>
N P O 萩まちじゅう博物館 <http://www.npomachihaku.com>
Scopriminiera <http://www.scopriminiera.it>
おもろいで平野 <http://www.omoroide.com>
萩博物館 <http://www.city.hagi.lg.jp/hagihaku>

Abstract

Eco-museum Planning of Baedari in Incheon Based on Local Living and Historical Culture

Hee eun, Ya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Kyung-jin Zoh

'Community Design'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way of urban development replacing the construction-oriented way. Also, there are paradigm shifts to develop cities more creatively. Above all, there is an effort to conserve various regional resources by expanding the scope of historical resources. In addition, using creative ways for the conserv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the unconditional conservation. On this account, considering the fundamental and intangible value of the resources and understanding the true meaning of 'communication' has come to the fore in the regional planning process.

In these latest shifts, this study pursues a community involved regional plan based on local living culture and intangible value of resources with a concept of Eco-museum. Baedari in Incheon is the site for the stud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which is able to be a way to regenerate the town of Baedari and to discover the value of the local living culture. Additionally,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systematic plan for the communit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working for Baedari.

The concept of Eco-museum originated in France in 1960s and it has been globally used for the regional planning. The Eco-museum focuses on the conserv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gional resources, residents' participations, and the context of the resources. These features show that the Eco-museum has a possibility to solve the problems of modern cities.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s a

redefined concept and planning system of the Eco-museum, which will be applied to domestic area,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on the theory and case studies.

The site for this study, Baedari town, has lots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gional resources. These living cultural resources reflect the life of Koreans, especially that of the working clas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industrialization era. However, Baedari had suffered from conflicts on the redevelopment plan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dustrial road. Even today, there are many conflicts unresolved about the conservation of the local culture and resources.

Therefore, prior to planning, this study discovered and analyzed the resources to redefine the local living and historical value of this place. Three significant categories of the local resources were found: historical resources, living cultur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buildings in Baedari show the architectural style of 1920~30's and 1950~60's. These should be conserved and maintained by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the way of conservation that does not separate the current life of the residents from the historical resources is essential. Second, the living cultural resources reflecting the lifestyle of the residents such as community gardens, the behavior of group working, and the landscape of the low-rise residential area and alleys should be applied to the Baedari Eco-museum plan. Third, the resources that the local cultural organization has created through their activities including the wall paintings, the usage of the historical buildings, the new ecosystem of the industrial road construction site, and local festivals have improved the local environment and enhanced the local value. Thus, constructing a network with the local cultural organizations is an essential process. Fourth, the resources from the visitors' activities like the behaviors of recording and sharing and the knowledge network enhance awareness of the area and should be made full use to encourage visitors' particip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Baedari and the local resourc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established a vision,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the Baedari Eco-museum. The vision of the Baedari Eco-museum is 'evolving Eco-museum' that adds historical layers continuously. The objectives are as follows: accumulating historical layers on the resources by linking the residents' lives and regional resources, sharing the value of the living-historical culture with the residents and visitors, establishing the virtuous system for the sustainable Eco-museum.

Under such a vision and goals, this study proposes a detailed plan for the Baedari Eco-museum. First, community leaders, residents, representatives of the cultural organizations or NPO,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who are associated with Baedari should participate in the planning and managing of the Baedari Eco-museum. The organization should compose of a steering committee, a facilities committee, and a residents committee. Second, Eco-museum should consist of a core museum, satellite museums, and tour routes. Each facility will have its own programs based on the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derived from the research. Third, a phased plan is essential to organize and manage the Eco-museum sustainably. For the sustainability, the way of fund raising, promoting, and holding events are suggested.

As mentioned above, the town of Baedari has the important historical value of Korea and there has been much effort to preserve the value using the communal culture. Accordingly, this study discovered new local living resources, went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residents' opinions, and tried to shed new light on the value of Baedari.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a future regional planning of Baedari and also present a way to the local community which has been trying to preserve the value of the region.

KEYWORD: Eco-Museum, Eco-Museum Planning, Local Living and Historical Culture, Analysis of Local Resources, Local Community, Incheon Baedari

Student Number: 2011-22347